

“골목상권 사업 철수” 결국 백기 든 카카오

5년간 3000억 상생기금 조성... 김범수 “사회적 책임 다할 것”

“최근의 지적은 사회가 올리는 강력한 경종으로, 카키오와 모든 계열사는 지난 10년간 추구해 왔던 성장 방식을 과감하게 버리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성장을 위한 근본적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카카오가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여당 등 당정의 플랫폼 규제 '십자포화'에 결국 '백기'를 들었다. 문어발식 확장으로 골목상권 침해 논란을 빚었던 사업의 철수를 비롯해 수천억 원에 달하는 기금 조성 카드 상생안을 제시했다.

카카오는 14일 골목 상권 논란을 불러온 사업을 철수하고 혁신 사업 중심으로 재편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4면

IT(정보통신) 혁신과 이용자들의 후생을 더할 수 있는 영역 중심으로 사업을 전개한다. 골목 상권 논란 사업 등 이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계열사 정리 및 철수를 검토한다.

플랫폼 종사자와 소상공인 등 파트너들과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어가기 위해 공동체 차원에서 5년간 3000억 원의 상생기금도 마련한다.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지분 100%를 보유한 케이큐브홀딩스는 미래 교육, 인재 양성과 같은 사회적 가치 창출에 집중하는 기업으로 전환하고, 콘텐츠

츠와 기술을 바탕으로 글로벌 비즈니스를 적극적으로 강화한다.

갑질 플랫폼 기업 꼬리표의 원인이 됐던 카카오톡은 논란이 된 스마트호를 서비스를 전면 폐지하고, 택시 기사 대상 프로그램비stop 요금은 월 3만9000원으로 인하했다. 가맹 택시 사업자와의 상생 협의회도 구성해 논의를 이어간다.

골목상권 진흥 직접 가능성에 대해 우려가 있었던 기업 고객 대상 꽃·간식·샐러드 배달 중개 서비스는 철수한다. 해당 서비스를 제공해 온 기업에 미칠 사업적 영향을 고려, 충분한 논의를 통해 점진적으로 사업을 축소한다.

이 밖에 대리운전 기사들과의 상생에도 힘쓴다. 기존 20%의 고정 수수료 대신 수요공급에 따라 0~20%의 범위로 할인 적용되는 '변동 수수료제'를 전국으로 확대 적용하고, 동반성장위원회를 통해 진행되는 대리운전사업자들과의 논의 채널에서도 적극적으로 상생안을 마련한다.

김 의장은 "기술과 사람이 만드는 더 나은 세상이라는 본질에 맞게 카카오톡과 파트너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모델을 반드시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남호 기자 spdran@



김부겸(앞줄 왼쪽) 국무총리와 이재용(오른쪽) 삼성전자 부회장이 14일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삼성 청년 소프트웨어 아카데미(SSAFY)' 교육 현장을 방문, 밝게 웃으며 박수치고 있다.

김부겸 만난 이재용 “3년간 청년 일자리 3만개 창출”

이 부회장 “청년희망, 힘 보탬 것”
김 총리 “과감한 투자 감사” 화답

삼성그룹이 정부와 청년 일자리·교육기회 창출 사업인 '청년희망 ON' 프로젝트 파트너십을 맺고 3년간 매년 1만 개, 총 3만 개의 청년 일자리 창출에 나서기로 했다.

▶ 관련기사 3면

국무총리실과 삼성그룹은 14일 서울 역삼동 SSAFY(싸피·삼성 청년 소프트웨어 아카데미) 서울 캠퍼스에서 간담회를 하고 이 같은 내용의 청년 일자리 창출 계획을 발

표했다. 이 자리에서 삼성은 취업연계형 SSAFY 교육생을 연간 1000명 수준에서 내년에는 2000명 이상으로 증원하기로 했다. SSAFY는 만 29세 이하 취준생 및 졸업 예정자를 대상으로 1년간 2학기(총 12개월)를 운영하는 취업 연계형 SW교육 프로그램이다. 미취업 교육생들에게는 월 100만 원의 교육보조금 등 제반사항을 지원해 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 준다.

삼성은 C랩 아웃사이드(청년창업지원)·스마트공장 사업 등 기존 사회공헌사업을 확대하고 '지역청년활동가 지원사업'을 신설하기로 했다.

이제요 삼성전자 부회장은 지난달 13일 가
석방 출소한 뒤 첫 공식적인 대외 행보로 이
번 행사에 참석해 “청년들의 희망”을 위해
최선을 다해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김부
겸 총리는 “국민의 기업다운 삼성의 과감한
투자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지난달 240조 원 투자계획 발표에서 연 4만 명의 인원을 직접 채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여기에 이날 공개한 청년 일자리 3만 개를 더하면 앞으로 3년간 총 7만 명의 청년 고용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총리실은 설명했다.

세종=박병립 기자 riby@

구글법 시행 첫날... 공정위, 구글에 2074억 과징금 철퇴

구글이 스마트폰 제조사에 자사 운영체제(OS)인 안드로이드 탑재를 강요한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000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모바일 시장에서 압도적인 시

장점유율을 앞세워 경쟁 OS 진입 및 신규 기기 개발을 막는 등 공정거래법(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금지 등) 위반 행위를 한 구글에 과징금 2074억 원을 부과한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구글은 모바일 시장에서 지배력을 확보한 2011년부터 삼성전자 등 기기 제조사에 필수적인 플레이스토어 라이선스 계약과 OS 사전접근권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전제조건으로 '피면화금지계약'

(AFA)을 반드시 체결하도록 강제했다. AFA는 기기제조사가 출시하는 모든 기기에 대해 안드로이드 변형 운영체제인 '포크 OS' 탑재와 직접 포크 OS 개발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거래선을 찾지 못한 아마존, 알리바바 등의 모바일 OS 사업은 모두 실패했다. 삼성전자가 자체 개발한 스마트워치용 포크 OS도 구글의

AFA 압박에 못 이겨 사장(死藏)됐다.

이날 공정위 제재와 함께 세계 최초로 구글 등 앱마켓 사업자가 콘텐츠 사업자에게 자사결제 시스템(인앱·In App) 이용 강요를 금지하는 이른바 '구글 갑질 방지법'까지 시행되면서 구글은 한국으로부터 독과점 행위에 대해 혼쭐나는 꼴이 됐다.

세종=서병곤 기자 sbg1219@

기억 속 그때처럼
함께 하고 싶은 바람 담아

올 추석, 건강을 선물하세요

추석맛이 사은행사

행사기간 2021.08.27-09.22

- 선물용 제품 10-20% 품목할인**
*일부 품목 제외
- 구매금액대별 할인**
*25/50/75/100만원 결제 시 1/2/3/5만원 할인 (단, 회원에 한함)
- 신규회원 가입 후 첫 구매시 1만 포인트 적립**
*SMS수신동의 및 10만원 이상 결제 시

정관장에서
마음을 전하는
다양한 방법

기다릴 필요 없는
매장 픽업

마음을 대신 전하는
정물 배송

소중한 분께
특별 포장

지금 검색창에 정관장들을 검색해보세요 (www.kgshop.co.kr)

정관장

제조원 및 판매원
주 | 한국인삼공사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뚝뚝한 한 채는 서울에” 지방 큰손들 ‘주택 쇼핑’

외지인 매년 늘어 30%대 눈앞... 강남 3구 4채 중 1채 구매
밀려나는 실수요자·지방 주택시장 소외 현상 예의 주시해야

#지방 아파트 3채를 소유한 다주택자 A씨는 실거주할 곳과 임대수익을 얻을 아파트 1채를 남긴 뒤 모두 처분할 생각이다. 대신 매도 과정에서 얻은 시세 차익에 여윌 돈을 보태 서울 아파트 한 채를 매수할 계획이다. A씨는 “서울 집값이 오르는 것을 보니 ‘뚝뚝한 한 채’ 정도는 서울에 마련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서울 밖 거주자들의 서울 주택 매수세가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서울 주택을 안전 자산으로 보는 인식과 재테크용으로 서울 주택만한 게 없다는 견고한 믿음이 공격적인 ‘원정 쇼핑’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지방 ‘큰 손’들이 서울 주택을 쓸어담으면서 집값이 치솟자 서울

시민들은 경기·인천 등 주변부로 밀려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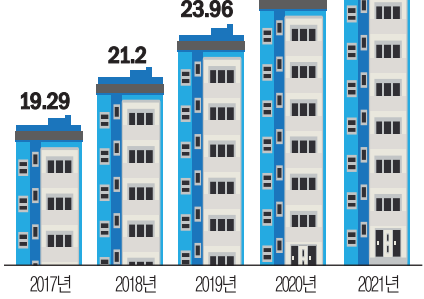
14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7월까지 서울에서 매매 거래된 주택은 8만3857건으로, 이 중 외지인들이 산 주택은 2만2349건을 차지했다. 무려 26%가 넘는 비중이다. 서울 주택 4채 중 한 채는 외지인이 샀다는 얘기다.

외지인의 서울 주택 매수비중은 문재인 정부가 출발한 2017년 19.29%로 시작해 △2018년 21.2% △2019년 23.96% △2020년 25.73%로 지속적으로 늘었다. 과거 집값 급등기에도 20% 안팎을 보이던 외지인 거래 비중이 이제 30%를 바라볼 정도로 공격적으로 변한 셈이다.

지역별로는 도봉(34.25%)·강서

서울 주택 매매거래 중
외지인 거래 비중 추이
(단위: %)

※ 출처: 한국부동산원



(33.47%)·양천구(32.0%) 등에서 외지인의 주택 매수 비중이 높았다. 지방 부자들의 강남 주택 선호도 여전했다. 강남3구에선 외지인 매수 비중이 강남구 24.9%, 서초구 23.0%, 송파구 23.5%로 4채 중 1채가 외지인의 손에 들어갔다.

◇서울 주택 매수 집중... 왜? =서울 밖 거주자들의 서울 주택 매수 비중이 갈수록

높아지는 것은 집값 하락기에도 서울 아파트는 급락할 가능성이 적다는 믿음 때문으로 보인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장은 “지방의 웬만한 부자라면 서울에 집 한 채씩은 갖고 있다고 봐야 한다”면서 “서울 집값은 경기 위기와 같은 외부 충격이 없는 한 계속 오를 것이라는 ‘서울 불패’ 믿음이 크게 작용하지 않았겠느냐”고 말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지방 주요 도시 아파트값이 최근 몇 년 새 급등하면서 서울 집값이 오히려 싸 보이는 착시현상이 나타났다”며 “과거엔 지방 부자들이 강남구 압구정동이나 대치동, 서초구 반포동 등 강남 핵심 지역의 랜드마크 아파트를 많이 샀는데 요즘은 서울 전역의 중저가 주택까지 가리지 않고 사들이는 특징이 있다”고 했다.

◇밀려나는 서울 수요=지방 투자자들이 서울 주택 매수에 집중하는 사이 정작 서울 주택 수요자는 서울 밖으로 밀려나고

있다. 올 들어 7월까지 경기도 주택 매매 거래 건수는 17만7835건으로, 이 중 서울 거주자의 매입 건수는 3만1531건(17.7%)이었다. 서울 시민의 경기도 주택 매수 비중이 2017~2020년 10% 안팎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탈서울 현상이 극심해진 것으로 보인다.

서울 집값 급등이 탈서울 행렬을 자극하면서 경기도 아파트값은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8월 경기도 아파트 중위 매매가격은 5억5784만 원(KB국민은행 기준)으로 1년 전(4억276만 원)보다 1억5000만 원 넘게 올랐다.

지방 큰 손들이 서울 주택을 쇼핑하는 이면에 지방 주택시장이 소외되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 주택시장 규제 완화 등 제도적인 보완 작업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동호 기자 sorahosi@

SK머티리얼즈, 상주에 실리콘 음극재 공장 설립

8500억 투입 내년부터 상업 생산

SK머티리얼즈 그룹14(가칭, 이하 합작회사)와 글로벌 첨단 소재 기업인 SK머티리얼즈가 경상북도·상주시와 ‘투자협정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총 8500억 규모의 실리콘 음극재 및 원재료 생산 공장 설립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MOU를 통해 합작회사는 상주 청리 일반산업단지 부지에 차세대 실리콘 음극재 배터리 소재 생산공장을 설립한다.

다음 달에 제1공장을 착공, 2022년에는 상업생산을 시작한다. 이후 추가 증설을 통해 확장할 방침으로 투자 규모는 총 5500억 원으로 예상된다.

또 SK머티리얼즈는 합작회사 증설에 맞춰 실리콘 음극재의 주원료인 실란(SiH4)을 생산하는 공장설립 및 부지매입에 총



경상북도 상주시와 SK그룹14·SK머티리얼즈(주)의 상주 배터리 소재 공장 조성을 위한 투자협약(MOU)식이 14일 오후 5시 상주시청에서 열렸다. 왼쪽부터 임이자 국회의원, 이철우 경북도지사, 이윤옥 SK머티리얼즈 대표이사, 강영석 상주시장, 정재현 상주시회의위원장, 사진제공 상주시

3000억 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실리콘 음극재’는 현재 전기차용 배터리에 쓰이는 ‘흑연 음극재’보다 주행 거리는 길고 충전시간은 짧아 차세대 배터리

소재로 꼽힌다. 또 가볍고 부피가 작아 모바일·태블릿 등 IT 기기나 드론 같은 소형 항공기에도 활용될 수 있다.

특히 합작회사의 제품은 실리콘 음극재의 문제점이었던 부피 팽창으로 인한 수명 감소 문제를 다공성 탄소 지지체 내 실리콘 증착으로 해결했다. 이를 통해 충·방전 용량 및 초기 효율, 수명이 획기적으로 개선됐다.

현재배터리 제조사뿐만 아니라 전기차, 가전, IT 업체 등 30여 개의 고객으로부터 평가가 진행 중이며 2022년 이후 양산 물량 공급을 논의 중이다.

이윤옥 SK머티리얼즈 사장은 “합작회사와 SK머티리얼즈는 적극적인 투자와 기술개발로 실리콘 음극재뿐만 아니라 다양한 배터리 소재로 산업을 확대해 글로벌 시장에 ‘K-배터리’ 소재의 위상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다음 수습기자 citizen@

文대통령, 현대車 경형 SUV 캐스퍼 예약구매

문재인 대통령이

현대자동차의 경형 SUV ‘캐스퍼’의 온라인 사전예약 신청 첫날인 14일 오전 직접 인터넷을 통해 차량을 예약했다.

청와대 박경미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캐스퍼는 ‘광주형 일자리’에서 처음으로 생산하는 경형 SUV”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캐스퍼’ 차량은 문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사용하고자 구매하는 것으로 퇴임 후에도 계속 사용한다.

박 대변인은 “이번 광주형 일자리 생산 차량 구매 신청은 그동안 문재인 정부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해 온 상생형 지역일자리 정책의 성공적인 정착과 확산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여민관 집무실에서 ‘광주형 일자리’를 통해 처음으로 생산되는 경형 SUV 차량 ‘캐스퍼’를 온라인 사전예약하고 있다.



을 국민과 함께 응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변인은 “그간 광주형 일자리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여덟 개 지역에서 상생협약이 맺어졌으며, 앞으로 총 51조 원의 투자와 직간접 일자리 13만 개를 만들어 낼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정일환 기자 whan@

故 영산(靈山) 조용기 목사 한국교회 장(葬)

‘20세기를 빛낸 위대한 복음 전도자’로 한국 교회 부흥과 세계 교회 성장을 주도하며 개신교 역사에 한 획을 그은 조용기 여의도순복음교회 원로목사님께서 2021년 9월 14일 오전 7시 13분에 86세를 일기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기에 한국교회장으로 장례예식을 거행하게 됨을 삼가 알려드립니다.

■빈 소 : 여의도순복음교회 베다니홀

■전국환송예배 :

- 일시 - 2021년 9월 18일 오전 8시
- 장소 - 여의도순복음교회 대성전

(거리두기 4단계로 인해 직계 가족과 순서 담당자만 참석합니다. 예배는 온라인으로 생중계 됩니다.)

■장 지 : 경기도 파주시 오산리최자실기념금식기도원 묘원

■하관예배 : 2021년 9월 18일 오전 10시

■장례위원장 : 소강석, 이철, 장종현

■집행위원장 : 이영훈

■집행부위원장 : 이장균, 김호성, 신범섭

■집행위원 : 여의도순복음교회 원로장로, 시무장로

■유가족

아들 희준 민제 승제

■고문

강진문 고 훈 박선희 김자연 김국도 김근상 김동원 김동호 김병혁 김삼환 김상근 김상복 김석년 김선도 김영주 김영진 김요셉 김용도 김용완 김윤기 김인중 김장환 김재용 김진호 김창인 나경일 노정선 노태철 립인식 문세광 민경태 박요한 박정근 박종순 박종화 박준서 서기행 서임중 서광관 손봉호 손인용 송용필 신경하 신신목 안명환 안영로 안재용 양병희 엄신형 오관석 오재조 오희동 우원근 원광기 원팔연 유경재 유중현 윤석전 윤항기 이강평 이광선 이규호 이동석 이동원 이만열 이승렬 이신용 이영환 이용규 이정익 이철신 이태희 이용규 이홍정 임원순 장 상 전광훈 전병금 정근모 정서영 정성진 정인찬 정장복 정필도 조경대 조용복 조원래 조일래 지 덕 채영남 최병두 최부옥 최성규 최윤권 최홍준 피영민 피종진 하태조 한영훈 한창영 홍정길 홍정식 황수원 황인찬

■장례위원

〈연합기관 소속 교단장〉

장기원 강진국 강희옥 박종섭 권오삼 권인기 권철용 권태진 기길선 김경철 김고현 김광옥 김광호 김국경 김길곤 김동성 김명식 김병희 김바울 김병근 김상진 김숙희 김승경 김영기 김영배 김영숙 김영정 김원남 김윤석 김은섭 김의용 김재홍 김경용 김정임 김종복 김종택 김중곤 김태곤 김학모 김현수 김현성 김홍기 김홍철 김효중 김희신 노문호 류금순 류성준 맹규학 문정민 박남규 박남수 박만수 박만진 박문수 박병화 박상규 박성규 박순진 박영호 박용구 박태권 박종자 박종윤 배기순 백성덕 서승원 손 덕 손원영 송방호 송영준 송종근 송진태 송태섭 신광준 신동호 신명섭 신민규 신승훈 신정호 신진철 심영식 심하보 안성삼 안이영 안호상 양병일 양승오 이승우 엄용대 오경태 오영자 오용근 우선화 원종문 유안근 유영희 유재봉 윤광모 윤종길 이강석 이남규 이병훈 이상구 이상재 이상호 이상현 이영한 이완순 이용운 이의현 이정훈 이주훈 이규각 이찬수 전병두 전종희 전태식 정경호 정광식

정바울 정성일 정인석 정진성 조성환 조승현 지형은 재상학 최남복 최능력 최바울 최병수 최병학 최영철 최요한 최재희 최진기 최철호 최현성 하태석 하태용 한기재 한요한 한은수 한정수 홍계환 홍정자 황덕광 황영주 황형식

〈교계〉

고명진 박주환 김경진 김문훈 김병삼 김승옥 김양재 김운성 김은호 김정석 김학중 류영모 박노훈 박동찬 박성민 손달의 손현보 오정현 유기성 이규현 이기용 이상학 이재훈 이찬수 임석순 장경동 주승종 최병탁 최성은 최종천 한기재

〈영목회원〉

강영선 강태욱 고경환 고충진 권경환 김경문 김대수 김병현 김봉준 김삼환 김영석 김용준 김원철 김유민 명성훈 민장기 박의섭 박종선 박정호 배삼한 백승억 백종석 송영준 시가키 시게마사 신성남 양병조 엄기호 엄진용 유재필 윤종남 이영훈 이용우 이일재 이장균 이재창 이태근 이호선 임동환 임형근 장희열 전효은 정길영 정재명 정재우 조승렬 조희연 채지석 최길학 최병우 최성규 최영길 최용우 하용달 한상인 함동근 외 제자 및 순복음선교회 소속 해외선교사 일동

■추모단체

CBS CGI CTS C채널 DCEM 교회성장연구소 국민일보 군복음화후원회 GoodTV 굿피플 기하성총회 대한기독교서회 대한성서공회 베테스다대학 순복음대학원대학교 순복음목회대학원 순복음북미총회 순복음세계선교회 순복음영산신학원 신앙계 순복음실업인선교연합회 아가페소망교도소 앨범북지회 여의도굿피플북지센터 영산수련원 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대학교 크리스찬메모리얼파크 한국대학생선교회 한국성서화본부 한세대학교 외 기타 기독교 단체

영산 조용기 목사 한국교회장 장례위원회

〈삼성 청년 소프트웨어 아카데미〉

〈이재용 부회장〉

첫 공식행보로 ‘SSAFY’ 찾은 JY, 청년인재 양성 의지

‘C랩 아웃사이드’ ‘스마트공장’ 등 기존 사회공헌사업 확대
SSAFY 2000명으로 증원… 대기업·금융권 취업 지원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출소 후 첫 행보로 ‘삼성 청년 소프트웨어 아카데미’(SSAFY)를 찾은 건 청년 일자리 창출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는 의지를 피력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14일 김부겸 국무총리와의 간담회에서 삼성그룹은 청년창업을 지원하는 ‘C랩 아웃사이드’(청년창업지원), 중소·중견기업 생산성 향상을 돕는 ‘스마트공장’ 사업 등 기존 사회공헌사업을 확대하고, ‘지역청년 활동가 지원사업’을 신설해 연간 1만 개, 3년간 총 3만 개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부회장은 간담회에서 취업연계형 SSAFY 교육생을 연간 1000명 수준에서 내년부터 2000명 이상으로 증원하겠다고 밝혔다.

SSAFY는 청년 소프트웨어 교육은 평소 기업의 사회적 역할 확대를 강조해 온 이 부회장의 ‘동행 비전’이 담긴 프로그램이다.

삼성전자는 소프트웨어 분야를 미래 경쟁력의 핵심이라고 판단해 1990년대부터 국내 인재 양성을 위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왔다. 2018년 8월 정부의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방안’의 일환으로 취

업 준비생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SSAFY’를 시작했다. 그간 축적해온 소프트웨어 교육 경험과 노하우를 외부로 확대한 것이다.

이 부회장은 직접 교육현장을 방문할 만큼 ‘SSAFY’ 프로그램에 많은 관심을 두고 있다. 2019년 8월 광주캠퍼스를 방문했을 당시 이 부회장은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은 IT 생태계 저변 확대를 위해 필수적”이라며 “어렵더라도 미래를 위해 지금 씨앗을 심어야 한다”고 밝혔다.

‘SSAFY’는 국내 IT 생태계 저변 확대와 청년 취업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청년들에게는 새로운 진로를 열어주고, 수요보다 공급이 부족한 기업들에는 양질의 인력을 제공한다.

국가 차원에서는 소프트웨어 인재를 양성하고, 청년 실업률을 감소시켜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

SSAFY는 1년간 매일 8시간씩 총 1600시간의 집중적인 실무 교육과 교육생 간 협업 프로젝트 등을 통해 기업에 즉각 투입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소프트웨어 개발자를 양성한다. 1학기 5개월간의 집중 코딩 교육은 800시간 수준으로 대학교 소프트웨어 전공자의 2년치 학습량에 달



김부겸(왼쪽) 국무총리가 14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멀티캠퍼스에서 열린 ‘삼성 청년 소프트웨어 아카데미(SSAFY)’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주막인사를 하고 있다. 삼성은 정부가 추진하는 청년 일자리 프로젝트 ‘청년희망ON 프로젝트’ 사업 2호 기업으로 참여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한다고 평가되고 있으며, 과목 기준 환산 시에는 22개 과목 학습량에 해당한다.

기업 일선 현장의 소프트웨어 개발 환경과 동일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교육생들이

해의 IT 기업과 국내 유명 스타트업 개발자들에게 멘토링을 받을 수 있도록 해 기업 현장을 교육 과정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이 ‘취업’으로 이어지도록 집중적인 지원 활동도 펼치고 있다. 교육생들은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작성 코칭, 모의 면접 연습 등의 맞춤형 지원이 취업 현장에서 직접적인 도움이 됐다고 평가한다.

올해 상반기까지 2087명의 교육생이 수료했으며, 그중 76%에 달하는 1579명이 취업에 성공했다.

수료생들은 삼성전자를 비롯해 신한은행, 카카오, LG CNS, SK C&C, 네이버, 쿠팡, 신세계 I&C, NH농협은행, KB국민은행, 현대자동차 등 IT·금융권의 다양한 기업에 취업했다. 이들이 취업한 기업의 수는 480여 개에 달한다.

디지털 전환을 가속하는 은행권에서도 SSAFY 출신 채용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신한은행, NH농협은행,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등과 같은 기업에서 수료생들이 근무하고 있다.

삼성 관계자는 “삼성의 CSR(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이 우리 사회에 더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CSR 방향성을 재정립하고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송영록 기자 syr@

전세계 반한 ‘폴더블폰’ “5년 뒤 5100만대 판매”

‘Z플립3’ 올해 최다 판매 전망
구글·오포·샤오미 등도 가세
애플 2023년 시장 진입할 듯

삼성전자가 주도하고 있는 폴더블폰 시장이 매년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14일 디스플레이 시장조사업체 DSCC는 올해 전 세계 폴더블폰 출하량이 750만대를 기록하고, 내년에는 1590만 대, 2026년에는 5100만 대로 급증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DSCC는 폴더블 출하량 전망치를 꾸준히 상향하고 있으며, 2026년 전망치는 처음 밝혔다.

폴더블폰 성장세는 삼성전자 갤럭시Z 시리즈가 주도하고 있다. DSCC는 올해 출하량 전망치를 기존보다 35% 상향한 750만 대로 조정했는데, 이는 갤럭시Z 시리즈의 폭발적인 인기 덕분이다.

로스영 DSCC CEO(최고경영자)는 “폴더블폰의 엄청난 성장은 삼성이 공격적인 가격의 갤럭시Z플립3와 갤럭시Z폴드3를 출시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어 “특히 삼성은 폴더블 스마트폰에 대한 소비자 인식을 크게 높이는 프로모션 및 마케팅에 20억 달러를 지출한 것으로 보고됐다”고 밝혔다.

DSCC는 올해 가장 많이 팔린 폴더블 스마트폰은 갤럭시Z플립3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올해 폴더블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역시 삼성이 85%로 1위를 차지하고, 화웨이가 10%로 그 뒤를 이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올 하반기와 내년에는 구글, 오포, 비보, 샤오미의 새로운 폴더블폰이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보인다.

DSCC는 “반도체 부족 현상 역시 폴더블폰 성장을 이끌 것”이라며 “스마트폰 제조사들은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더 비싼



삼성전자 갤럭시Z폴드(왼쪽)와 Z플립.

제품을 우선순위에 둘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이 밖에 다양한 업체들이 속속 폴더블폰 시장에 진입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날 네덜란드 특허 전문매체 레츠고디지털에 따르면 일본 카메라 업체 후지필름은 지난달 초 미국 특허상표청(USPTO)에 갤럭시Z폴드와 비슷한 형태의 폴더블폰 특허를 출원했다.

스타일러스펜을 지원하며, 카메라 전문 업체답게 카메라 기능에 중점을 둔 폴더블폰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애플 역시 2023년께 폴더블폰 시장 진입이 예상된다. 이미 애플은 세로형으로 접히는 폴더블 디바이스 관련 특허를 출원한 바 있다.

이처럼 폴더블폰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삼성디스플레이는 4분기 베트남 박닌 공장 증설을 검토 중이다. 폴더블 디스플레이 모듈 라인이 가동되는 곳이다.

현재 ‘갤럭시Z’ 시리즈는 대부분 베트남에서 생산된다. 삼성디스플레이가 충남 아산 A3 공장에서 만든 폴더블 패널이 베트남에서 모듈 공정을 거쳐 삼성전자 베트남 공장에서 전달된다. 업계에선 삼성디스플레이가 연간 생산량을 1700만 대에서 2500만 대로 늘릴 것으로 보고 있다.

송영록 기자 syr@



다양한 삶의 모양만큼
각자가 원하는 행복은 다르니가

무엇을 원하든 당신에게 딱 맞는 보장으로

더 두근거리는 매일을 마주할 수 있게
한화손해보험이 함께하겠습니다

당신의 매일이
빈틈없이 행복하게



〈카카오 의장〉

김범수 “사회의 강력한 경종” 꽃·음식배달 접는다

‘상생안’ 꺼내 든 카카오

당정 “플랫폼 무한확장 막자”

온플법·M&A 제한 등 추진에

운전자보험 등 판매 중단하고

모빌리티 스마트호출도 폐지

케이큐브는 사회적 기업 전환

당정과 여론의 못매를 맞은 카카오가 백기를 들었다. 상생 방안을 발표한 카카오는 이와 함께 미래 전략을 수정하며 기업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14일 카카오가 발표한 상생안에 따르면 카카오는 △골목상권 논란 사업 철수 및 혁신 사업 중심으로 재편 △파트너 지원 확대를 위한 기금 5년간 3000억 원 조성 △케이큐브홀딩스 사회적 가치 창출 집중 등에 나선다.

◇당정 ‘카카오 몰매’ 효과 있었나? = 카카오가 이런 ‘상생방안’을 내놓은 배경엔 여당과 정부의 규제 때리기가 있다. 카카오의 ‘갑질’이 늘어나고 있다는 이유였다.

대표적인 곳은 카카오모빌리티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그간 택시·대리운전 업체와 갈등해 왔다. 택시의 경우 가맹 택시와 비가맹 택시의 승객 호출(콜) 알림을 차별한다는 의혹이 지속해서 제기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신고장이 접수되기도 했다.

당정은 최근 카카오의 ‘무한 확장’을 지적하며 전방위적 규제 부과 가능성을 시사해 왔다. 여당이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을 내세우며 대형 IT 플랫폼의 ‘갑질’을 막겠다고 한 것이 먼저다.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 규제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 플랫폼과 입주업체 간 공정거래를 도모하기 위해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다. 김범수 의장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의 관련 조사를 진행하는 점도 강조했다.

무분별한 골목상권 진출이 우려된다며 인수합병(M&A) 제한도 고려하고 있다. 조성욱 공정위 위원장이 온라인 플랫폼 분야 단독행위 심사지침 제정을 추진하는 한편, 플랫폼 기업의 특성을 반영한 M&A 심사기준 개정을 위한 검토에 들어갔다고 밝히면서다.



플랫폼 사업을 제도권으로 편입하려는 움직임도 있었다. 온라인 금융 플랫폼이 제공하는 보험, 펀드 등 금융상품 비교·추천 서비스가 ‘중개’에 해당한다고 판단,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했다. 따라서 25일까지 금융상품 중개업자로 등록해 운영하라고 요구했다.

◇카카오, 골목상권 침해 사업 철수·상생기금 조성 = 카카오는 이에 백기를 든 모양새다. 사업을 잠정적으로 중단하며 제도권으로 들어갈 준비를 하는 한편, 상생안을 발표하며 정부 규제와 발을 맞추고 있다. 전날 카카오페이는 보험사와 제휴를 맺고 판매하던 운전자·반려동물·해외여행자 보험 등 보험상품 판매를 잠정 중단했다. 펀드 투자 서비스 채널도 개편했다.

이어 잇달은 골목상권 침해 논란이 벌어진 사업을 점진적으로 철수하겠다는 결정을 내렸다. 카카오는 카카오모빌리티의 꽃배달과 간식·샐러드 배달 등 골목상권 논란이 벌어진 사업에 대해서는 계열사를 정리하고 사업을 철수한다. 카카오페이도 역시 이해관계자와 협의를 거쳐 조정한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스마트호출 서비스를 전면 폐지하고 택시 기사 대상 프로그램비 요금을 월 3만9000원으로 내린다.

이에 더해 카카오 공동체 차원의 상생기금도 조성한다. 앞으로 5년간 3000억 원 규모다. 여기에는 카카오모빌리티, 카

카오페이, 카카오펙, 카카오펙테이먼트 등 전 계열사가 모두 참여한다. 상생기금과 관련한 세부 계획안은 올해 안으로 마련할 방침이다.

김 의장의 개인 회사인 케이큐브홀딩스는 미래 교육, 인재 양성과 같은 사회적 가치 창출에 집중하는 기업으로 전환한다. 현재 투자 등에 집중하고 있는 케이큐브홀딩스는 김 의장이 주식 100%를 보유한 개인 회사로 알려졌지만 8월 기준 카카오 10.59%, 카카오페이 1.00% 등을 보유하며 카카오 지배구조 최상단에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을 받아 왔다.

지분 정리 등과 관련해 카카오 관계자는 “김 의장의 개인 회사인 만큼 일단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역할 측면을 우선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회사에 재직 중인 김 의장의 부인과 자녀 등 가족은 모두 퇴사하기로 했다.

미래 전략도 수정됐다. 카카오는 향후 콘텐츠와 기술을 바탕으로 글로벌 비즈니스를 적극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내수를 공략하기 위해 적극적인 M&A 정책을 펼치던 카카오가 기술 기업으로 선회하는 셈이다. 카카오모빌리티의 경우 향후 자율주행과 이동 서비스 혁신, B2B 분야의 모빌리티 기술 연구개발에 주력하고 신사업 발굴과 글로벌 비즈니스에 더 집중할 계획이다. 이다원 기자 leedw@

“플랫폼 산업 막 성장기인데 족쇄부터 채워…생태계 위기”

네·카 스타트업 육성자 역할…M&A·투자 위축 우려

카카오를 중심으로 한 빅테크(대형 IT 기업) 규제가 본격화된 가운데 국내 벤처·스타트업 기업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온라인 플랫폼 산업을 기반으로 성장하던 생태계가 위축될 수 있는 문제가 제기된다.

14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벤처·스타트업 기업은 카카오를 시작으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가 시작된 데 우려를 표하고 있다.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가 본격적으로 적용된다면 이제 막 성숙기에 접어든 국내 플랫폼 산업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기업 간 거래(B2B) 플랫폼을 운영 중인 한 스타트업 대표는 “스타트업부터 시작한 플랫폼 ‘공룡’이 속속 등장하는 미국 등 해외 시장과 달리 국내 플랫폼 산업은 이제 겨우 어린이 수준”이라며 “한국 땅에서 시작한 플랫폼 기업 중 규제가 필요한 기업은 하나도 없다고 본다”고 했다. 이어 “플랫폼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솔직히 우려스럽다”며 “아직 논의 중인 만큼 (상황을) 지켜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에 대한 우려도 크다. 온플법이 스타트업의 성장 가능성을 제한할 수 있다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스포) 대표는 “입법 취지와 달리 적용 대상이 광범위할 것 같아 업계가 우려하고 있다”며 “국내법의 경우 매출이 100억 원만 넘어도 법안이 적용되는데 공정위는 30개 이상이라고 하지만 최대 100곳까지 (대상이) 늘어날 수 있다”고 짚었다.

최 대표는 “플랫폼에 대한 규제는 ‘플랫폼이기 때문에’ 이뤄지는 것이 아닌 글로벌 사업자와 같이 해당 시장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형성하고 이로 인해 소비자 후생이 저하되는 등 구체적인

피해가 있을 때 필요하다”며 “온플법은 시장 경쟁을 촉진하기보다는 후발 스타트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그 부분이 크게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유효상 숭실대학교 교수도 “플랫폼 기업이 없으면 국내 경제의 혁신 생태계가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는지 우려된다”며 “대기업의 성장이 위축된 상황에서는 스타트업 생태계를 육성하고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 나가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규제를 하기 전에 큰 그림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네이버, 카카오 등 IT 대기업이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에서 맡았던 ‘육성자’로서의 역할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들린다. 인수합병(M&A)과 투자를 통해 적극적으로 스타트업을 발굴하던 카카오페이도 M&A 등이 제한받을 경우 생태계에 활력이 사라질 것이란 우려다.

시리즈B 투자를 받은 스타트업에서 일하고 있는 한 개발자는 “카카오벤처스뿐만 아니라 카카오 공동체 전반에서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가 활발했던 것으로 안다”며 “스타트업에서 일하는 사람 입장에선 카카오페이 네이버처럼 IT 플랫폼이 회사를 발굴하고 가치를 알아줄 길 바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최성진 코스포 대표도 “카카오도 대기업 집단으로서 M&A 관련 규제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단순히 다양한 서비스를 해서 규제한다기보다는 개별 시장에서 독점적인 영향력이 있는지, 있다고 해도 그게 서비스 수행을 저해하는지 면밀히 살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다원 기자 leedw@

“플랫폼 탐욕 막아야” 국내외서 규제 칼날

플랫폼 선도 기업 등 IT 업계에 정부가 규제 칼날을 꺼내 들기를 주저하지 않고 있다. 비단 국내만의 일이 아니다. 등장 당시에는 ‘혁신’으로 평가받던 기업들이 독점적 지위를 바탕으로 수익 추구에 나서자 세계 곳곳에서 강도 높은 규제 방안이 등장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모바일 시장에서 경쟁 운영체제(OS) 진입 및 신규기기 개발을 막은 행위로 공정거래법(시장지배적 지위 남용·불공정거래행위 금지)을 위반한 구글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2074억 원을 부과했다.

카카오 역시 금융당국의 플랫폼 규제 발표 이후 일주일 만에 사회적 책임 강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굴복하는 모습을 보였다. 2019년 카폴 서비스를 잠정 중단하던 모습에 비해 빠른 행보다.

해외에서도 플랫폼 업계에 대한 규제는 강화되고 있다. 13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네덜란드와 영국, 프랑스

등 유럽 법원은 세계 최대 차량공유업체 우버에 불리한 판결을 잇달아 내렸다.

네덜란드 법원은 우버 기사를 개인사업자가 아닌 피고용인으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우버 기사들은 피고용인으로 인정받지 못해 급여 부분에서 손해를 봤다며 우버를 고소했다. 재판부는 “우버와 운전자 간의 법적 관계는 고용 계약의 모든 조건을 충족한다”며 “우버는 운전자 보호를 위해 택시 운송에 대한 단체 노동 협약을 적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영국에서도 같은 문제로 소송이 벌어져 3월 대법원이 최종 항소심을 통해 운전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이를 전례 프랑스 법원은 택시업체와 우버 간 소송에서 택시 기사들에게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우버가 택시 면허 없는 사람들을 기사로 활용한 부분을 지적했다.

중국은 ‘중국판 우버’인 디디추싱의 신규 사용자 가입을 제한하는 등 연일 기업들에 규제 철폐를 내리고 있다. 최근엔 알

전 세계 플랫폼 기업 최신 규제 현황	
네덜란드, 영국	- 우버 기사 개인사업자 아닌 피고용인으로 계약 명령
프랑스	- 택시 면허 없는 우버 기사 활동 제재
미국	- 구글 반독점 제소, 애플 인앱결제 강요 불허
중국	- 알리바바, 텐센트 등 빅테크, 타기업 서비스 링크 차단 해제 명령 - 알리페이 소비자 대출 사업 분리 지시
※ 출처: 블룸버그, CNBC 등	
리바바와 텐센트 등 빅테크 기업에 다른 기업 서비스에 대한 링크 차단을 해제하라고 지시했다.	
세계 각국에서 플랫폼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시장을 독점할 경우 혁신이 저해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장은 지난해 “플랫폼 사업자가 독점력을 남용하고 혁신과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일관성 있게 엄정히 대응해 나가야 한다”며 기업이 정선 위축을 우려하기도 했다.	
조성준 기자 tiatio@	
고대영 기자 kodae0@	

카카오 백기에…네이버 “우리식 상생”

스마트팜 등 소상공인 지원 정책

정부와 여당의 플랫폼 규제 강화에 카카오가 사실상 백기 투항한 가운데 네이버의 행보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근 논란에서 한발 비켜서 있던 네이버는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던 만큼 앞으로도 계속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14일 네이버 관계자는 “분수펀드 등 몇 년 전부터 지금까지 상생안을 잘 이어 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해서 지원할 방침”이라며 “플랫폼 규제와는 별개로 지원안을 계속해서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네이버는 1위 포털 사업자로서 지배적인 위치에서 다양한 독과점 우려에 시달린 뒤 중소상공인, 기존 이익집단의 반발에 기민하게 대응한 바 있다.

실제로 네이버는 2012년 오픈마켓 형태의 ‘샵N’ 서비스를 선보이며 골목상권에 뛰어들었다. 당시 이커머스 업계에서는 “포털 검색 사업자가 판매 사업까지 한다”며 강한 반발을 나타내기도 했다. 네이버의 사업 진출에 반발한 이커머스 업체들은

네이버 지식쇼핑에서 철수하기도 했다. 이에 네이버는 ‘스마트팜’을 선보이며 소상공인 지원에 나섰다.

주요 사업 무대를 국내가 아닌 해외 시장으로 돌린 것도 신의 한 수가 됐다. 네이버 자회사 라인은 일본 시장을 주력 무대로 삼고 있다. 현재는 일본 소프트뱅크와 경영 통합을 거쳐 영향력을 강화하고 있다. 네이버웹툰은 본사를 미국 로스앤젤레스로 옮겨 현지화에 집중하고 있으며, 웹 소설 플랫폼 왓패드도 인수해 미국 시장 공략에 나섰다. 네이버 자회사 네이버페이가 개발한 ‘제페토’는 글로벌 메타버스 시장 개척에 중요한 플랫폼으로 꼽히고 있다.

위정현 중앙대 경영학과 교수는 “네이버는 2010년대 이후 B2C(기업·소비자 간 거래) 분야로 갔다가 갈을 맞은 뒤 B2B(기업 간 거래)에 집중하고 있다”며 “계열사별로 각개약진하던 카카오는 그런 경험 없이 확장기를 맞아 총력전을 벌이다 지금 같은 여론의 못매를 맞게 됐다”고 분석했다.

조성준 기자 tiatio@

12분 만에 끝난 남양유업 주총, 왜신 논의는 없었다

임시주총서 매각 반복

남양유업의 매각 반복 의지가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됐다.

남양유업은 14일 열린 임시주총에서 한앤코 측의 신규이사 선임안 등을 부결 시키며 매각 발표 후 반복이 이어졌던 홍원식 회장의 매각 철회 의사를 반영했다. 남양유업은 이날 주총에서 다음 달 임시주총을 통해 경영 정상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앤코와의 소송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남양유업이 주주들을 만족시킬 만한 경영쇄신안을 내놓을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된다.

남양유업은 이날 서울 강남구 본사에서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상정된 안건 3가지가 모두 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주총은 홍 회장의 '노쇼' 논란이 불거진 7월 30일 주총이 연기돼 이날로 마뤄진 것이다.

◇오너 일가 의지대로 흘러간 임시주총=임시 주총에서는 윤여를 한앤코 회장 등을 신규 이사로 선임하고 집행임원제도를 도입하는 정관 변경과 감사 선임권 등의 안건이 상정됐으나, 신규 이사선임의 건과 정관변경은 부결, 감사 선임의 건은 철회됐다.

남양유업 관계자는 "경영안정화를 위한 임시 주주총회를 10월 안에 진행할 예정으로, 안건 및 시기는 논의 중이다. 구체적인

한앤코 신규이사 선임안 부결 대주주 일부만 참여 졸속 비판 매각 여부 법정에서 가려질 듯

내용이 확정되면 재공시를 통해 알릴 예정"이라고 전했다.

무거운 안건임에도 임시주총은 12분 만에 끝났다. 일각에서는 대주주 일부만 참여한 채 졸속으로 임시주총이 치러졌다는 비판도 일고 있다. 임시주총에는 5명 내외의 인사만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소액주주 등은 배제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임시 주총에는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의 법률대리인 LKB앤파트너스 관계자가 참석했고, 한앤코 측은 참여할 수 없었다. 홍 회장 역시 주총에 불참했지만 위임장을 통해 한앤코 측 인사 선임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임시 주총 이후 한앤코 관계자는 "계약이 유효함에도 불구하고, 지배구조개선 목적의 집행임원제도 도입 및 이사 선임 안건이 부결되고 별도로 상근감사 선임안이 사전 철회된 점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전했다.

◇경영정상화 의지 있나=남양유업은 다음 달 임시주총을 추가로 열기로 하고 경



매각 무산으로 홍역을 치르고 있는 남양유업의 임시 주주총회가 열린 14일 서울 강남구 남양유업 본사에서 주총을 마친 주주가 건물을 빠져나가고 있다.

영 정상화를 약속했다. 이 자리에서 홍원식 회장과 오너 일가가 경영에서 물러날지가 관심사다. 그러나 매각 반복과 이로 인한 소송전을 앞둔 상황에서 오너 일가가 경영에서 손을 뗀다는 미지수다. 앞서 남양유업은 직위해제 상태였던 장남 홍진석 상무를 전락기획담당 상무로 내정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고, 홍 회장 역시 5월 초 사퇴 선언을 하고도 여전히 회장직을 유지하고 있다.

투자은행(IB) 업계에서는 소액주주를 배제한 채 임시주총을 강행한 것부터 '경

영 정상화'가 아닌 '오너 버티기'에 방점을 찍은 행보라고 비판하며 남양유업의 경영 쇄신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매각 여부는 결국 법정에서=남양유업의 매각은 결국 법정에서 가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홍 회장의 매각 반복에 한앤코가 거래 중결 의무 이행 소송을 제기하면서 남양유업 매각은 이미 파국으로 치닫하는 분위기다. 한앤코가 주장하는 계약은 홍 회장 지분 51.68%를 포함한 부인인 이운경 씨, 손자 홍승의 씨 등 오너 일가 지분 53.08%를 3107억 2916만 원에 매도하는

것이다.

한앤코는 소송을 제기하며 "이번 사태를 방지하면 인수합병(M&A) 시장에서 나쁜 선례로 남을 것"이라며 "운용사로서 마땅한 책무와 시장 질서를 지키기 위해 변화와 재기를 염원하는 남양유업의 전 임직원들의 희망이 좌절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로서는 남양유업이 새로운 매각 대상을 찾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한앤코는 거래중결 의무 이행 소송에 앞서 홍 회장 일가에 주식매매거래정지 가처분을 제기했고 법원이 이를 인용했기 때문이다. 법원의 인용으로 새로운 매수자를 찾을 수 없는 만큼 사실상 법정에서는 남양유업과 한앤코의 거래 성사 여부를 다투게 된다. 결국 남양유업 매각 논란은 법정에서 종지부를 찍게 됐다.

IB업계에서는 법원 결정에 앞서 다음 달 열리는 남양유업의 임시주주총회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임시 주총에서 남양유업이 홍 회장 등 오너일가가 물러나는 초강수를 통해 쇄신 의지를 보일지 업계의 이목이 집중된다. 김혜지 기자 heyji@

탄소중립 기술개발 내년 4179억 투입

NDC 관련 산업계 간담회 2030년 6.7조 예타 추진

정부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에너지 효율 향상 등 즉시 사용 가능한 기술 개발에 내년 4179억 원을 투입한다. 핵심기술 확보를 위해 2030년까지 6조7000억 원 규모의 예비타당성 사업을 추진하며 정책금융 지원도 5조 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철강, 석유화학 등 주요 기업 대표이사들과 함께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황과 관련 산업계 간담회를 14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산업부는 과감한 한계돌파형 기술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에너지 효율 향상, 연·원료 대체 등 즉시 상용화 가능한 기술개발에 내년 4179억 원을 투입한다. 장기적으론 핵심기술 확보를 위해 기술개발-실증-사업화 등 6조7000억 원 규모의 전주기 예비타당성 사업을 2030년까지 추진한다.

정책 금융도 지원한다. 신성장·원천 기술 범위 확대(조세특례제한법) 등 투자세액공제를 강화해 철강, 석유화학 등 주요 업종의 저탄소 전환투자를 지원하며 산업은행 KDB탄소스프레드 5조 원, 산업부 탄소중립전환 융자 지원 1500억 원 등 탄소중립 정책금융 지원을 5조1500억 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탄소중립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해 과감한 투자, 혁신기업 육성, 선제적 제도개선에 나선다. 이를 위해 내년 1045억 원을 투입해 다배출 업종 공정 전환 지원, 탄소중립 선도 플랜트 구축 등을 추진한다.

4분기에 탄소중립 전환투자 시 규제특례 등을 내용으로 하는 '탄소중립



연합뉴스

산업전환 특별법(가칭)'을 제정해 체계적 산업전환 등 전방위적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이 자리에서 참여 기업들은 탄소중립 이행 과정에서 기술개발과 설비 교체에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만큼, 혁신기술·제품 개발과 대규모 감축설비 및 저탄소 공정전환 투자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요청했다.

포스코는 배출권 거래제도를 개선하고 녹색투자 활성화 취지에 맞는 녹색분류체계 마련을, 금호석유화학은 석유화학 탄소중립 연구·개발(R&D) 예타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을 각각 요청했다. GS칼텍스는 배출권거래제의 상쇄감축 사업 인정 비율 상향을 건의했다. 현대차는 수소차 충전 인프라 확충, 구매 인센티브 확대 등을 요청했다.

산업부와 참여기업들은 '탄소중립이 도전적이지만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입 등 글로벌 신경제질서 대두로 탄소중립은 더는 기존산업의 축소가 아닌 성장동력과 일자리 창출의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문승욱(사진) 산업부 장관은 "탄소중립 속도 경쟁에서 우위를 선점해 새로운 시대 제조강국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정부가 총력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박병립 기자 riby@

www.korad.or.kr

한국원자력환경공단과 함께하는 안전한 방사성폐기물 관리

병원

원자력 발전소

산업체 / 연구소

방사선의 위험으로부터
국민과 환경을 지키는 일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의 약속입니다.

KORAD

한국원자력환경공단
KOREA RADIOACTIVE WASTE AGENCY

<1.01>

감염재생산지수 ‘상승세’인데 추석 이동량도 늘어 ‘비상’

주간 이동량 3주 연속 증가 영향
연휴 이후 확진자 더 늘어날 듯
전국 대규모 유행으로 변질 수도

주간 이동량이 3주 연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 이동량 증가는 2~3주 뒤 확진자 증가로 이어진다. 지금과 같은 확산세가 앞으로 1~2주는 더 이어진다는 의미다. 박항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1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지난주 전국의 이동량은 직전 주보다 1.9% 증가했다”며 “고속도로 통행량, 신용카드 매출액 등 이동량 보조지표들도 모두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 그리고 피로 누적, 추석 연휴 준비 등으로 인해 이동량이 증가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가 통계청으로부터 제공받은 휴대전화 이동량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6~12일 전국 이동량은 전주보다 1.9% 증가했다. 지역별로 수도권은 1.5%, 비수도권은 2.2% 늘었다. 수도권에서는 3주째, 비수도권에선 2주째 이동량이 늘고 있다. 전반적인 방역지표도 악화됐다. 5~11일 감염재생산지수(1.01)는 1을 넘어섰고, 감염경로 조사 중 비율은

37.7%까지 치솟았다.

확진자 발생의 경향성을 고려할 때, 연휴기간 전 수도권 확산세 반전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최근 1주간(8~14일) 수도권의 일평균 확진자는 1300.9명으로 전국 확진자(1757.1명)의 74.0%를 차지했다. 주간 발생률도 인구 10만 명당 5.0명으로, 호남권(1.2명)의 4배를 웃돌았다.

이런 상황에 추석 연휴를 계기로 지역간 이동이 늘면 수도권의 확산세가 전국으로 번질 가능성이 크다. 박 반장은 “접종을 완료했거나 진단검사를 받은 후에 최소 인원으로 고향을 방문할 것을 권고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수도권 인구의 이동 증가로 전국적으로 큰 규모의 유행이 확산될 위험성이 있다는 것 다시 한번 유념해 달라”고 당부했다. 중대본은 올해 추석 연휴기간 일평균 이동량이 지난해 추석보다 3.5%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나마 휴일이 지나면서 예방접종은 다시 속도를 내고 있다. 이날 0시 기준 예방접종 인원은 1차 접종자가 82만5438명, 접종 완료자는 42만2119명 추가됐다. 인구 대비 접종률은 66.2%다. 40대 이하도 모든 연령대에서 1차 접종률이 60%를 넘어섰다. 접종이 원활하게 진행된다면 16일에는 1차 접종률이 추석 전 목표치인 70%를 달성할 전망이다. 세종=김지영 기자 jye@



대목 앞둔 과일 시장 추석 연휴를 앞둔 14일 오후 인천시 남동구 남촌농산물도매시장이 과일을 사러 온 시민들로 북적이고 있다. 연합뉴스

<FDA·WHO 소속> 세계 유명 과학자들 “대부분 사람 부스터샷 불필요”

의학저널 랜싯에 전문가리뷰 게재
“미접종자 우선, 더 많은 생명 구해”

세계 일선의 유명 과학자들이 현시점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추가 접종(부스터샷) 필요성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내놨다. 이는 부스터샷接种의 옳고 그름을 둘러싼 논란에 한층 더 불을 붙일 것으로 예상된다.

13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 식품의약국(FDA)과 세계보건기구(WHO) 소속의 저명 과학자들이 세계적인 의학저널 랜싯에 투고한 전문가 리뷰를 통해 “현재까지 일반 대중에게 부스터샷이 필요하다는 증거가 나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임상시험 데이터와 광범위한 현장 관찰 연구 등을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로 접종 이후 수개월이 흐르더라도 코로나19 백신이 중증 예방에 매우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과학자들은 “어떠한 연구도 중증 질환에 대한 방어력이 크게 저하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믿을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부스터샷을 너무 일찍 광범위하게 도입했을 때 생길 수 있는 부작용도 경고했다.

무엇보다 이들은 백신 공급이 제한된 상황에서 추가 접종 이익이 미접종자의 심각한 증세를 완화하는 이익을 넘어서진 않는다는 주장을 펼쳤다. 과학자들은 “부스터샷接种이 심각한 질환의 중기적 리스크를 낮춰주는 것으로 나타나더라도, 현재 공급 상황을 고려하면 미접종자에게 먼저 백신을 투여해야 더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어떠한 백신이 부스터샷에 적합한지, 적정 용량은 얼마인지 등 데이터가 한층 더 모이

는 것을 기다리는 편이 좋다고 조언했다.

이는 백신 공급량이 풍부한 선진국들 사이에서 자국민의 면역력 상승과 ‘델타’ 변이의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백신 잉여분을 추가접종분으로 돌리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나왔다. 이스라엘과 독일, 프랑스 등은 이미 부스터샷接种에 나섰거나 도입을 확정지었으며, 미국 역시 이달 20일부터 부스터샷接种을 시작할 계획이다. 다만 계획을 실행으로 옮기려면 FDA와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번 리뷰에는 FDA 백신연구심의실의 매리언 그루버 실장과 필립 크로스 부실장, 숨야 스와미나탄 WHO 최고과학자, 마이크 라이언 WHO 긴급대응팀장, 아나 마리아 에나오-레스트레포 WHO 백신 연구개발 담당 등이 함께했다. 변효선 기자 hsbun@

中企 18만 근로자 복지 정부 지원 150억 늘려

정부가 원·하청 상생협력과 중소기업 근로자 복지 지원을 위해 조성된 공동근로복지기금(공동기금)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14일 열린 제1차 공동기금 지원 심사위원회에서 174개 공동기금에 25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전년보다 150억 원 늘어난 금액이다.

공동기금은 기업별 사내 근로복지기금

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둘 이상의 사업주가 공동으로 조성하는 기금으로, 2016년 1월 도입됐다. 정부는 원·하청이 조성한 공동기금 등을 대상으로 지원사업을 시행 중이다. 이번 지원 결정으로 공동기금에 참여한 1106개 중소기업의 18만 명 근로자가 학자금·의료비 등의 복지 지원을 받게 된다. 정부가 지원금을 대폭 확대한 것은 공동근로복지기금이 급증한 것과도 무관치 않다. 공동기금의 연도별 설립 개수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해마다 50개를 밀돌았지만, 지난해 182개로 급증했다. 세종=서병곤 기자 sbg1219@

4차산업시대를 선도하는 광해광업 전주기 전문기관

한국광해광업공단 KOMIR가 찾아옵니다.

국내의 광물자원 개발과 광물자원산업 육성, 지원을 통해 광물자원의 안정적 수급을 도모해온 한국광물자원공사와 광산피해 복구와 지역사회 개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한국광해관리공단인 체계적인 광해광업 전주기 지원 전문기관 **한국광해광업공단**으로 새롭게 시작합니다.

KOMIR 주요 업무 및 역할

- 국내 광물자원산업 고도화를 위한 스마트 광업 체계 구축
- 민간 국내·외 자원개발 지원을 위한 전 주기 단계별 맞춤형 광업·광해기술 및 금융서비스
- 광산지역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친환경적 광산피해 복구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특화형 도시재생과 대체산업 육성
- 국가핵심광물 조달을 위한 희소금속의 비축 고도화·재순환 지원

당신의 **봄**

보

삼성화재 좋은보험사전

보험

(명) [보:험]

아프면 찾는 것. 이제는
아프지 말라고 찾는 것

나 “보험”으로
건강관리 하잖아~



통합건강관리서비스
애니핏

**삼성화재 애니핏으로
오늘부터 건강관리 시작하세요!**

걸음수만큼 포인트 적립, 적립한 포인트로 보험료 결제는 물론
병원 예약, 건강검진 예약, 질병 정보 검색과 마음챙김까지!

* 이용 대상 : 삼성화재 건강보험 가입 피보험자(만 15세 이상, 본인명의의 스마트폰 소지자)
* 걷기 목표 달성시 매일 최대 100포인트

당신에게 좋은보험 **삼성화재**

이재명 “대장동 개발 모범적 공익사업…금융사 취재하라”



이재명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14일 국회에서 성남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화천대유’ 특혜 의혹 반박

4073억 배당 논란에 “주주 몰라 나와 개발이익 나누는 관계 아냐”
野 “언론 겁박 멈추고 검증대 서라”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4일 성남시장 재직 당시 추진된 대장지구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 대해 알 수 없는 영역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 지사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에 나서 “대장동 개발은 민간개발 특혜 사업을 막고 5503억 원을 시민 이익으로 환수한 모범적 공익사업이다. 지금도 자랑하는 성남시장 시절 최대 치적”이라며 시행사인 성남의철 지분을 가진 화천대유에 대해서 “투자자들 합의로 신설한 자산관리회사로 그

주주와 자회사(천화동인1호)의 구체적 내역은 투자금융기관(하나·국민·기업은행)만 알 수 있다. 이재명의 것이 아니냐고 하지 말고 금융회사를 취재하라”고 말했다.

이 지사의 설명에 따르면 지난 2009년 민간사업자들이 신영수 당시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의 동생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출신 인사들에게 수억 원 뇌물을 줘 대장동 공영개발을 포기시켰는데, 이 지사가 2010년 6월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 다시 공영개발로 전환했다.

성남시 산하 성남도시개발공사(SDC)는 자금조달과 사업수행, 사업위험 부담을 위해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하기로 했고, 공모로 선정된 하나은행 주관 컨소시엄(하나·기업·국민은행, 동양생명, 하나자산신탁)이 ‘50%-1주’를 SDC는 ‘50%+1주’를 투자해 SP인 성남의철을 세우고 투자자들 합의로 자산관리회사인 화천대

유를 설립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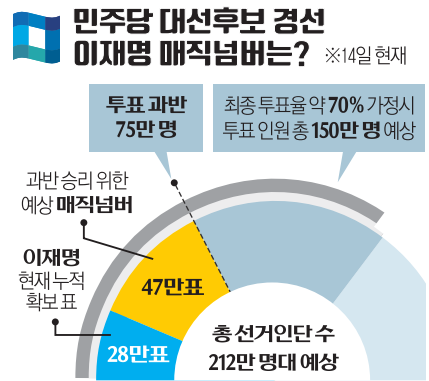
여기서 문제는 성남의철과 화천대유의 배당이다. 0.99% 지분을 가진 화천대유와 6% 지분의 SK증권이 성남의철이 지난 2018년부터 3년간 배당한 총 5903억 원 중 4073억 원을 가져갔다. SK증권 배당금은 화천대유 지분 100%를 가진 언론인 출신 A씨와 그가 모집한 투자자 6명으로 구성된 ‘특정금전신탁’이다. 반면 50% 지분의 SDC는 3460억 원을 배당받았다.

그러나 이 지사는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 부분이 아니라고 선을 그은 것이다. 이 지사는 “손해가 나면 본인들이 부담하고 이익이 나도 우리에게 먼저 준다. 그 사람들이 이익을 어디다 쓰는지 알 필요도 없고 알 수도 없다”며 “제가 개발이익을 나누는 관계라면 사업 시작 이후 성남시 기반시설 공사를 대신하도록 인가조건을 바꿔 민간 투자자 몫을 920억 원이나 줄였겠냐”라고

반문했다. 대장동 사업은 5503억 원 환수 외에 사업자에게 2761억 원 추산 성남시 1공단 공원조성사업과, 920억 원 규모 사업지 인근 터널공사, 1822억 원 규모 대장동 A11 블록 임대부지 제공 의무가 지워졌다. 이 지사가 직접 나서 대장지구 개발의 전모를 밝히며 의혹을 제기한 조선일보에 대선 개입 중단을 요구하고 법적 대응을 검토한다는 등 강수를 뒀지만, 의혹의 핵심인 화천대유 등의 과다 배당 문제는 결국 해소하지 못해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경선 경쟁 후보인 이낙연 전 대표는 전날 “관심을 갖고 주목하고 있다. 진실이 드러나야 한다”고 의혹 제기에 가세했다. 야권에선 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구두논쟁을 통해 이 지사 해명에 대해 “언론에 대한 겁박을 멈추고 당당히 언론의 검증대에 나서라”라고 압박했다.

김윤호 기자 uknow@



與 경선 변곡점 호남 표심은 “이낙연에 호남표 결집” “될 사람 이재명 밀 것”

더불어민주당 대선 판도에 변곡점이 될 수 있는 호남(25일 광주·전남, 26일 전북) 경선을 앞두고 그간 전략적 선택에 능했던 호남의 표심 향배가 주목된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중도 하차하면서 호남 경선이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낙연 전 대표의 뚜렷한 양강 구도로 치러질 가능성이 커졌다. 4차례의 지역 순회 경선과 1차 슈퍼위크에서 대세론을 확인한 이재명 후보에게 쏠릴 것이란 분석과 함께 전북 출신인 정세균 후보의 사퇴로 같은 호남 연고지의 이낙연 후보가 호남 표 결집 효과를 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1위 후보인 이 지사는 현재까지 1차 선거인단 투표에서 5연승을 거뒀다. 12일 기준 누적 득표율 51.41%로, 아슬아슬한 과반을 유지하면서 ‘무결선 본선행’에는 빨간불이 들어왔다. 이 전 대표는 대의원·권리당원 20만 표가 포진한 호남에 사활을 걸고 이 지사와의 11만 표가량 격차를 단숨에 좁히려겠다는 계획이다.

호남은 그동안 본선 경쟁력이 있는 후보에 힘을 실어주는 전략적 투표에 능한 것으로 분석됐다. 신을 명지대 교수는 “20대 총선 때 국민의당이 호남을 휩쓸었듯 호남이 전통적으로 친문 세가 강한 곳이다”라며 “호남은 ‘될 사람을 미는 곳’이라며 그만큼 힘든 게임”이라고 밝혔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호남 역시 본선 경쟁력 높은 후보에 편승하는 밴드왜건(편승) 효과가 높을 거라고 본다”며 “이 전 대표가 격차를 따라잡기엔 역부족”이라고 밝혔다. 최 교수는 “단지 결선까지 가지 않으면 경선의 역동성이 떨어진다는 측면에서 호남이 ‘숨 고르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며 “이때문에 이 전 대표에게 생각보다 표가 더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꽃들 기자 flowerslee@

박지원 이어 홍준표 연루설까지 ‘꼬리 무는 의혹’

본질 흐려진 ‘고발사주’

洪, 尹 겨냥 “정치 잘못 배워”
與 “檢 선거개입 여부가 핵심”

정치권을 발각 뒤집어놓은 ‘고발사주’ 의혹이 일단 국면 전환에 본질마저 흐려지고 있다. 애초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겨냥했던 의혹의 불씨는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에게로 옮겨 갔으며, ‘윤석열 게이트’는 ‘박지원 게이트’로 둔갑했다. 이 와중에 제3자도 등장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여권은 야권을 향해 ‘물타기 시도’라며 고발사주 의혹의 본질은 ‘검찰의 선거 개입 여부’라고 거듭 강조했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전 총장 측

은 전날 사주 의혹을 제보한 조성은 씨와 박 원장이 특수관계임을 내세워 ‘국정원발 정치공작’ 의혹을 제기한 데 이어 조 씨와 박 원장의 식사 자리에 국민의힘 대권 주자인 홍준표 의원의 선거 캠프 인사가 동석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난데없는 연루설 제기에 홍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고발사주 사건에 마치 우리 측 캠프 인사가 관여된 듯이 거짓 소문이나 퍼트리고 있다”며 “누군지 특정해 보라고 하니 기자들에게 취재해 보라고 역공작이나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참 잘못 배운 못된 정치 행태”라며 “누가 거짓 소문 퍼트리고 있는 지 다 알고 있다”고 꼬집었다. 윤석열 측

캠프에서 이 같은 소문을 흘리고 있다는 의미다.

박 원장, 조 씨 등 당사자들도 이를 부인했다. 조 씨는 “(홍 의원 측 인사의) 이름조차 들어 본 적이 없다”고 했고, 박 원장 역시 “나는 그 사람 알지도 못한다. 거짓말이 제일 나쁘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상황을 두고 여권은 연일 고발사주 의혹의 본질은 여전히 검찰의 선거 개입 여부라고 반박하고 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여권 인사 고발사주 의혹’을 ‘박지원 게이트’로 규정한 국민의힘을 향해 “검찰의 하수인이었음을 스스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다시 한번 비판했다.

이어 “윤석열 검찰이 검찰 내부망 기

밀을 이용해 장모 사건의 대응문건을 작성하고 변호하려 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검찰 관계자가 내부 관계망을 본 게 아니라면 장모 측 변호인도 알 수 없는 정보라고 한다”며 “검찰권을 사유화해서 야당과 언론에 대한 공격을 하는 것은 물론이고 본인과 가족에 대한 변호활동까지 나선 초유의 국기문란 사건이라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날에도 이재명 캠프 총괄선거대책본부장인 박주민 의원은 “고발사주 사건의 본질을 흐리는 몰타기 시도”라며 “만났다는 사실만으로 문제가 된다면 윤 전 총장이 언론사 사주와 만나고 개인적 만남이라며 내용을 밝히지 않은 것부터 먼저 해명해야 한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하유미 기자 jscs508@



문 대통령, BTS 특사 임명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방탄소년단(BTS)에게 ‘미래세대와 문화를 위한 대통령 특별사절’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방탄소년단에게 외교관 여권과 만년필 선물을 전달했다. 문 대통령은 “BTS가 대한민국의 품격을 높였다”며 치하했다. BTS는 “특사라는 좋은 기회를 주셔서 영광스럽다”고 답했다.

뉴시스

서욱 국방부 장관 “北 순항미사일 발사 탐지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이 14일 최근 북한 신행 장거리 순항미사일 발사 탐지에 실패했다는 논란에 대해 “한미연합 자산으로 탐지했다”고 반박했다. 서 장관은 국회 외교·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김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북한 순항미사일을 한미가) 식별한 것이 정확한가”라는 질문에 “그렇다”며 이같이 답했다.

‘북한 순항미사일의 비행고도가 낮아 한미가 실시간으로 탐지하는데 실패했다’는

세간의 주장에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 장관은 “(한미가 탐지한 북한 순항미사일에 대해) 초기 분석을 하고 있고, 자세히 말씀드릴 수 없지만, 한미 공조 하에 세부 내용을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한미연합 SI 정보 사항으로 식별 이후 밝히기 어려웠다는 입장이다. 서 장관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의도에 대해서 “(북한의) 순항미사일은 북한의 8차 당 대회에서 결정된 국방과학발전 및 무기체계개발 5개년 계획

일부로 국방력을 시험하고 무력시위의 성격도 일부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고도 설명했다. 전날 노동신문 등 북한 관영매체에 따르면 북한 국방과학원은 11~12일 ‘신행 장거리 순항미사일’ 시험발사에 성공했다.

국민의힘 소속 정보위원들은 13일 공동성명을 통해 ‘박지원 정치공작 의혹’ 진상 조사를 위한 국회 정보위 소집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이 국정원장 특활비 사용 내역과 국정원장 공관 출입 기록 제출을 요구하자 박지원 원장은 “그것은 국정원장이 할 수 없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유헤림 기자 wiseforest@

홍준표 지지자 반발에 이영돈 PD 영입 보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인 홍준표 캠프가 14일 지지자들 반발에 ‘떡거리 X파일’로 유명한 이영돈 PD 캠프 영입을 보류했다.

홍준표 의원은 개인 페이스북에 “이영돈 PD와 방금 상의해서 일단 영입을 보류하기로 했다”며 “속고 끝에 영입했는데 지지자분들 비판이 봇물 터지듯 쏟아진다. 인사는 게 참 힘든 작업”이라고 밝혔다.

인사 영입을 발표한 지 하루도 안 돼서 결정을 철회한 것이다. 이날 오전 홍 의원은 이영돈 PD를 미디어 총괄 본부장으로 영입한다고 알리면서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미디어 대처 능력은 탁월하신 분”이라고 소개한 바가 있다.

갑작스러운 철회 배경을 두고 세간에선 자영업자의 표심을 의식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이영돈 PD의 대표작인 ‘떡거리 X파일’에서 ‘대왕 카스텔라’ 제조과정을 문제 삼으면서 피해를 본 자영업자들이 쏟아졌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이영돈 PD는 개인 유튜브 채널을 통해 “대만 카스텔라는 2014년 7월 회사를 그만두고 3년 후인 2017년에 방송한 것”이라며 억울함을 표명하기도 했다.

같은 날 홍 의원은 문화산업 총괄 본부장에 여명숙 전 게임물관리위원장, 외신대변인으로 권민영 경기도당 수석 부위원장을 각각 임명했다.

유헤림 기자 wiseforest@

바람 멈추자 전기요금 급등 ‘재생에너지의 딜레마’

북해 바람 유럽 에너지값 좌우
英 9월 전기요금 7배나 뛰어
석탄 화력발전소 재가동에
탄소배출권 가격도 최고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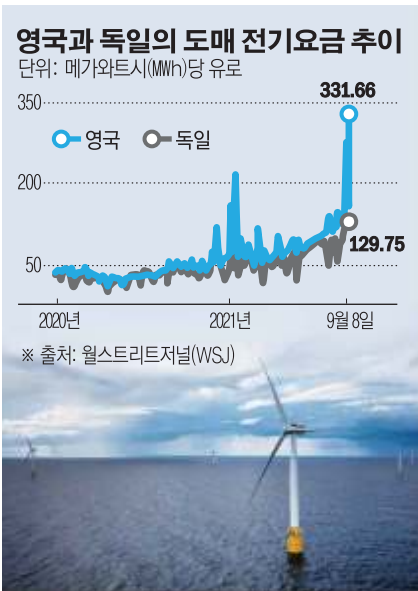
최근 유럽 재생에너지 시장에 복병이 나타났다. 바로 재생에너지의 원천인 ‘자연’이다. 북해에 불던 바람이 멈추면서 공급에 차질이 생겼다. 이는 가뜰이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수급 불일치로 고공행진 중인 천연가스와 석탄 가격에 기름을 부었다. 글로벌 ‘탈탄소’ 추세에 재생에너지 수요가 급증하고 있지만, 기후에 좌우되는 특성 탓에 비용 부담을 키운다고 13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진단했다.

유럽 각국이 에너지 가격 고공행진에 비명을 지르고 있다. 에너지 가격은 코로나19 충격을 딛고 수요가 빠르게 회복된 반면 공급이 이를 못 따라가면서 가격이 폭등했다. 여기에 북해 지역에 불던 바람이 멈추면서 사태가 더 악화했다. 풍력발전단지 가동이 중단돼 에너지 공급에 차질이 생기면서 천연가스, 석탄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초래한 것이다.

데이터 정보업체 ICIS에 따르면 지난주 북해 풍속이 느려지면서 영국의 도매 전기 요금은메가와트시(MWh)당 285파운드(약 46만 원)까지 치솟았다. 이는 1999년 이후 최고치다.

독일과 프랑스·네덜란드 등에서도 요금이 치솟았지만 풍력 발전 의존도가 높은 영국의 가격 상승세가 가장 가팔랐다. 영국은 2050년 탄소배출 제로를 목표로 풍력 비중을 전체 전기 생산의 4분의 1까지 확대했다. 9월 전기요금은 전월보다 2배 이상 올랐고 작년 같은 시점 대비 7배나 뛰었다.

전력 사용이 대폭 증가하는 겨울철이다 가오면서 유럽 에너지 시장은 더 살얼음판을 걷게 됐다. ICIS의 수석 에너지 이코노미스트인 스테판 콘스탄티노프는 “전력 비용 급등에 사람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면서 “수요가 훨씬 많은 겨울에도 전력 공급 차질이 지속되면 시스템 안정성 자체



가 위협받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전력 공급 부족으로 가격 부담이 커지자 영국은 천연가스, 석탄 화력발전소로 눈을 돌렸다. 영국 국영 전력회사 내셔널그리드는 폐쇄 예정이던 노팅햄셔의 웨스트버튼 A 화력발전소 재가동을 요청했다. 당장 급한 불은 껐지만 이마저도 3년 후에는 불가능한 일이 된다. 영국 정부는 2024년까지 모든 화력 발전소를 폐쇄할 계획이다.

탄소 배출 탓에 ‘전덕꾸러기’ 취급을 받아온 석탄 화력발전소가 재가동에 들어가면서 전력업체가 화석연료를 태우는 데 필요한 탄소배출권 가격도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유럽연합(EU) 탄소배출권 가격은 지난달 말 사상 최초로 톤당 60유로를 돌파했다. 이는 연초의 약 30유로에서 두 배 오른 것이다.

유럽 전력 시장의 전반적인 가격 상승세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 시장의 독특한 가격 책정 구조 때문이다. 전력 시장에서는 생산비가 가장 높은 공급자가 가격을 결정한다. 전력 생산비가 높은 화력발전소가동은 전체 전력 시장의 가격 상승을 의미한다. 전력·천연가스·석탄·탄소배출권 시장의 연쇄 가격 상승 도미노가 펼쳐지게 되는 것이다.

에너지 가격 상승은 경제에도 부담을 줄 가능성이 크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중앙은행(ECB) 총재는 9일 통화정책 회의에서 인플레이션 주요인 중 하나로 에너지 시장을 언급했다. 김서영 기자 0jung2@

재활용 철강 쓰고 수소 사용… 車업계 ‘그린 스틸’이 뜬다

벤츠·볼보 저탄소 철강 조달
제조 과정에서도 친환경 강조
투자 주기 길고 고비용 걸림돌

글로벌 자동차 업계가 친환경적인 제조공정을 통해 탄소 발자국을 줄이려는 움직임을 강화하면서, ‘그린 스틸’이 각광받고 있다.

13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철강을 많이 사용하는 자동차 업체들은 재활용 철강을 더 많이 사용하는 낮은 수준기술에서부터 기존 석탄 화력 공장 대신 수소를 전력으로 하는 제철소에서 철강을 조달하는 방법까지 다방면에 걸쳐 친환경 철강 모색에 나서고 있다.

철강 산업은 세계에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가장 많은 산업 중 하나이며, 자동차 업계는 이러한 철강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분야다. 철강 업체들이 보다 친환경적인 방식으로 철강을 생산하는 방안을 찾아나

선 가운데, 자동차 회사들도 규제 당국과 기후변화에 민감한 투자자, 고객의 요구를 받아 이러한 움직임에 동참하고 있다.

특히 유럽 자동차와 철강 업체들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철강의 개발·사용을 향한 움직임을 가속화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의 기후변화 대응 계획 ‘그린딜’은 오는 2050년까지 지역 내 제조업과 그 공급망에 대해 탄소 중립 실현을 의무화하고 있다.

독일 자동차 대기업 다임러의 고급차 부문인 메르세데스벤츠는 이달 초 스웨덴 철강 회사 SSAB와 계약을 맺었다. SSAB 산하 하이브리트가 내년부터 벤츠를 위해 저탄소 철강을 생산할 예정이다. 이 계약은 오는 2039년까지 모든 벤츠 차량을 탄소 중립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의 일부라고 WSJ는 설명했다.

스웨덴 완성차 업체 볼보는 이미 하이브리트로부터 철강을 조달하고 있으며, 독일 BMW는 미국에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철강 스타트업에 투자하고 있다.

전기차(EV)로의 전환과 더불어 차량 주행으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에 나서는 것은 물론 제조 과정에서까지 친환경적으로 나아가려는 것이다.

다만 철강업계의 설비투자 주기가 길어서 저탄소 생산으로 크게 전환하기까지는 적잖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이 걸림돌로 꼽히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지난해 10월 “수소를 이용한 철강 생산이 2050년 전 세계 1차 철강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5% 미만일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올리버 집세 BMW 최고경영자(CEO)는 지난주 독일 뮌헨 국제 오토쇼에서 기자들에게 “철강 산업에서는 현재 많은 투자가 이뤄지고 있다”면서도 “다만 그것은 시간이 좀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철강 생산은 비용도 더 들어간다. SSAB는 화석 연료를 사용하지 않는 철강의 제조비용이 기존 철강보다 20~30%더 비싸진다고 밝혔다.

변호선 기자 hsbun@



뉴섬 지원 나선 바이든

조 바이든(왼쪽)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주 롱비치 시티칼리지에서 열린 유세 현장에 참석해 유권자들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캘리포니아 주민소환 투표를 하루 앞둔 이날 유권자들에게 개인 뉴섬 주지사 에 대한 지지를 요청했다. 주민소환 투표는 현 주지사의 자사직을 유지할지를 결정하는 선거다. 지난해 11월 뉴섬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봉쇄 정책을 펼쳐 놓고 로비스트 친구의 생일파티에 참석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주민의 공분을 샀고, 이후 재선임 투표로 이어지게 됐다. 공화당에선 래리 엘더가 후보로 나왔다. 바이든 대통령은 '내가 본 사람 중 도널드 트럼프 복제인간에 가장 가깝다'며 엘더를 견제했다. 롱비치/로이터연합뉴스

“10년간 2조 달러” 美 민주당 ‘부자 증세’ 공개

금융시장 최대 변수 될 것

미국 민주당의 ‘부자 증세’ 세부안이 공개됐다. 최상위 부유층과 기업을 겨냥한 ‘핀셋’ 증세로 향후 10년간 2조 달러 이상의 세수 확보가 가능하다는 계산이다.

13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국 민주당은 최상위층 기업, 개인,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세제 개편안을 내놨다. 법안에는 법인세율을 21%에서 26.5%로 인상하는 내용이 담겼다. 연간 수입이 500만 달러 이상인 기업에 26.5%, 40만~500만 달러 기업에 21%, 40만 달러 미만에는 18% 법인세율이 적용된다.

연간 40만 달러 이상 소득(부부일 경우 45만 달러)인 사람에 대한 소득세 최고 세율은 기존 37%에서 39.6%로 높다. 연간 500만 달러 이상 개인소득에는 3%포인트의 가산세도 물린다.

자본이득에 대한 최고세율은 20%에서 25%로 올린다. 미국 기업의 해외투자 수익에 대해서는 최저세율을 10.5%에서 16.5%로 인상한다.

이번 법안은 ‘바이트프’ 3조5000억 달

러(약 4100조 원) 규모 인프라 법안의 재원 마련 일환이자 양극화 해소를 위한 ‘부자 증세’ 성격이 담겨 있다.

다만 당초 조 바이든 대통령이 제시한 목표지에서는 후퇴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법인세율을 28%로, 자본이득 최고세율을 39.6%로 각각 제시했었다.

워싱턴포스트(WP)는 민주당의 증세안이 미국의 ‘슈퍼리치’ 계층과 중산층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의 산물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미국 상공회의소 수석 정책 책임자인 네일 브래들리는 “증세가 경제를 망칠 수 있다”면서 “고용과 임금상승에 찬물을 끼얹고 미국 경제 번영을 위협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골드만삭스는 “인플레이션, 델타 변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함께 증세 이슈가 금융시장 최대 변수로 떠올랐다”고 평가했다. 기업 부담 가중 전망에 증시는 이미 하락 압박을 받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번 법안은 이르면 이번 주 하원 세입위원회에서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의회 최종 통과는 진통이 예상된다.

김서영 기자 0jung2@

“페이스북 ‘화이트리스트’ 만들어 VIP 특별 대우”

WSJ “정치·언론인 등에 특권
선동적 게시물 제재 없이 공유

페이스북이 이른바 ‘화이트리스트’를 만들어 VIP 고객을 별도 관리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VIP에 예외 규정을 적용하는 식으로 일반 사용자를 기만한 것으로 보인다.

13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페이스북이 ‘Xcheck’로 불리는 프로그램을 통해 수백만 명의 유명인과 정치인, 언론인 등에게 특권을 제공했다고 보도했다.

WSJ가 확보한 문서에 따르면 해당 프로그램은 유명 계정에 대한 품질 관리 조치 차원으로 만들어졌으며, 화이트리스트에 포함된 이들은 페이스북의 제재 정책에 상대적으로 자유로웠다.

특히 ‘괴롭힘’이나 ‘폭력 선동’ 등 일반

사용자가 게시했다면 제재받았을 게시물도 이들의 경우 예외로 허용된 것으로 전해진다. 2019년 브라질 축구 스타 네이마르가 자신을 성폭행 혐의로 제소한 여성의 누드 사진을 공개한 것이 대표 사례다.

그 밖에 “백신은 인체에 치명적이다”라던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난민들을 ‘짐승’이라고 불렀다”는 등 사실 검증이 되지 않은 선동적인 게시물이 특정 계정을 통해 버젓이 공유되기도 했다.

6월 페이스북은 유명인을 대상으로 한 특정 시스템이 ‘소수의 결정’에만 활용된다고 밝혔지만, 실상은 달랐다. 이렇게 규제를 피해간 VIP가 작년에만 580만 명에 달한다고 WSJ는 폭로했다.

앤드 스톤 페이스북 대변인은 “Xcheck에 대한 비판은 정당하다”면서도 “이 시스템은 콘텐츠에 대한 정책을 정확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회사는 화이트리스트 관행을 단계적

으로 없애기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고 있다”며 “(공개된) 내부 자료 대부분은 가장 중요한 사실을 왜곡하는 오래된 정보”라고 덧붙였다.

페이스북의 해명에도 논란은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이 문제에 정통한 관계자는 문서 일부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의회까지 넘어갔다고 전했다. 특히 문서에 마크 저커버그 최고경영자(CEO)를 포함한 고위 경영진에 대한 프레젠테이션 초안과 직원 토론 내용이 포함되는 등 페이스북 내에서 화이트리스트가 조직적으로 다뤄졌음을 시사한 것이 주목할 점이다.

WSJ는 “페이스북은 소셜네트워크 내에서 보이지 않는 엘리트 계층을 만들었다”며 “저커버그는 과거 콘텐츠 삭제 조치 중 10%를 잘못 결정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XCheck에 포함된 사용자는 더 우호적인 대우를 받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고대영 기자 kodae0@

금감원 ‘소비자 경보’ 남발에 보험사 “법령근거 없다” 반발

금융감독원이 지난해부터 소비자경보 발령을 늘리자, 금융권 물밑에선 반발의 조짐이 일고 있다. 법령 근거 없이 남발해 영업실적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금감원의 소비자경보 제도는 법령에 근거한 제도는 아니지만, 소비자보호 일환으로 운영되고 있다.

1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생명보험협회는 전 생보사 들을 대상으로 금감원 소비자경보 제도에 대한 의견수렴을 실시했다. 소비자경보로 인한 생보사들의 피해사례, 이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의견을 취합했다.

일각에선 소비자경보로 인한 생보사들의 영업 실적에 차질이 있따르자, 협회 차원에서 당국에 공식건의를 하기 위해 사전작업에 나선 것이다 분석한다. 협회는 공문에서 금감원의 소비자경보 제도에 대해 “법령 근거 기준은 없지만, 소비자보호 일환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회신사에 설명했다.

금융감독원 소비자경보는 금융소비자 피해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가 피해를 볼 수 있는 사안에 대해 미리 알려주는 제도다. 지난 2012년 6월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총 90여 건이 발령

금감원 소비자경보제도 현황

※ 2021년 8월 기준



금감원, 작년 발령기준 완화하자
경보 건수 17건…4배 이상 증가
생보협, 소비자경보 대상 의견수렴
피해사례 취합, 개선 요청 나설듯

금감원은 작년 상반기에 소비자경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소비자경보 발령 기준을 개설했다. 소비자경보가 선제적으로 발령될 수 있도록 피해 건수 기준을 완화했고, 정성적 기준을 신규 도입해 소비자피해 가능성이 큰 경우에도 소비자경보를 발령할 수 있도록 했다. 정량적 기준과 정성적 기준의 세부적인 기준은 공개되지 않고 있다.

금감원이 소비자경보를 발령한 횟수

는 지난해부터 급증했다. 지난해 발령된 경보 건수는 17건인데, 전년 대비 4배 이상 많은 수치다. 올해는 총 11건의 경보가 발령됐다. △보이스피싱 5회 △보험 3회 △금융 2회 △은행 1회로 업권 중에는 보험업권의 경보 발령 횟수가 가장 많다.

특히 올해에는 종신보험 갈아타기, 종신보험은 사회초년생의 목돈마련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체증형 종신보험 가입 시 유의하세요 등의 자료가 연속으로 배포됐다. 지난해에는 코로나 관련 보험사기, 역외보험, 외화보험 등의 경보도 집중적으로 안내됐다.

보험업계는 금감원 소비자경보 발령으로 영업에 큰 차질을 빚고 있다고 반발한다. 업계는 법령 근거가 없다는 명분으로 피해사례들을 취합해 금감원에 제도 개선을 요청하려는 분위기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금감원 소비자경보 발령 이후에 종신보험, 외화보험 등 판매 실적이 크게 하락했다”며 “보험이 업권 중 소비자에게 가장 밀접하다는 이유도 있겠지만, 당국이 나서서 보험업계 공포감을 조성하고 있다는 반발이 나와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다”고 말했다.

서지연 기자 sjy@



고승범(오른쪽) 금융위원장이 14일 서민금융중앙통합지원센터를 찾아 직원을 격려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승범 “청년 지원 힘쓰겠다”

〈금융위원장〉

‘서민·취약계층 간담회’ 열어
“희망적금융예산 국회통과 노력”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는 청년들을 도와드릴 수 있는 정책을 하나하려고 합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14일 서울 중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열린 ‘서민, 취약계층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고 위원장은 청년 정책이 다른 세대로부터 역차별될 수 있다는 지적에 “노년층도 당연히 중요하다”며 “어떤 특정 계층만 한정해서 하겠다는 아니라 노년층 관련해서도 연관된 제도가 있다”고 반박했다. 지난 7일 금융위원회엔 청년 정책을 전달하기 위해 청년정책과가 신설됐다.

지난주 6개 금융협회(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가 발표한 금융산업 내부 통제 제도 발전 방안에 대해 고 위원장은 “금융권의 의견도 듣고 내부적으로 여러 측면에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협회 안은 이사회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파생연계결합펀드(DLF) 등 여러 금융사고가 있었음에도 협회의 자율안이 현실적이라는 질문에는 “연관돼 나온 것”이라며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다. 가상자산 업권법 제정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여러 법안을 내 (금융위가) 기초적인 것들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고 위원장은 실제 정책 서민금융을 이용한 소상공인, 청년들을 만나 전반적인 금융 애로 사항을 청취했다. 고 위원장은 서민, 취약계층과 최접점에 있는 상담 직원들이 맞춤형 상담을 할 수 있도록 면밀한 모니터링을 당부했다.

이 자리에서 고 위원장은 “최고급리가 인하고 가계부채 관리가 강화되면서 저신용, 저소득자에게 충분한 자금 공급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자금 애로를 겪지 않도록 충분한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에서 추가로 개선할 사항이 있는지 살피고, 청년희망적금 관련 예산이 국회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고 위원장은 햇살론유스 금융지원과 취업알선 등의 상담 과정을 본 후 종합 상담이 활성화돼 통합지원센터가 원스톱서비스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코로나19 극복과 재기를 위한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살피고 현장의 목소리를 꾸준히 점검할 방침이다.

문수빈 기자 bean@

팍팍해진 가계살림… 상반기 카드론 3.5兆 급증

카드대출 이용액 56조1000억… 지난해보다 5.8% 증가
단기카드대출 줄고 카드론 늘어 “가계부채 질 악화” 우려

올 상반기 코로나19 등의 여파로 살림이 팍팍해진 서민들이 이용하는 카드론이 작년 같은 기간 대비 14%가까이 늘었다. 카드론은 은행 대출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저신용자 등 금융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고금리 상품이다. 카드론 잔액이 증가했다는 건 서민 계층의 급전 수요가 그만큼 많이 늘었다는 분석이다. 이들의 은행 대출 접근성은 낮아졌다는 의미로 가계부채의 질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중 카드대출 이용액은 56조1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8%(3조1000억 원) 증가했다.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이용

액은 27조1000억 원으로 1.8%(5000억 원) 감소한 반면, 카드론 이용액은 28조9000억 원으로 13.8%(3조5000억 원) 늘었다.

상반기 카드사의 실적을 살펴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장기화에도 불구하고 소비지출이 회복되고, 카드대출 이용도 증가하면서 카드사의 순이익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8개 전업카드사의 순이익(IFRS 기준)은 1조4944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3.7%(3763억 원) 증가했다.

총수익은 소비심리 회복에 따라 가맹점 수수료 수익이 증가했고 카드대출 증가로

카드론 수익도 늘어나며 5993억 원 증가했다. 총비용은 리스관련 비용과 법인세 비용 증가로 2229억 원 늘어났다.

신용·체크카드 이용액은 462조6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424조8000억 원) 대비 8.9%(37조8000억 원) 증가했다. 소비회복으로 개인 신용카드 이용액(293조5000억 원)이 크게 증가했다. 법인 신용카드 이용액과 체크카드 이용액도 증가했다.

금감원은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카드대출이 과도하게 증가하지 않도록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금리상승 가능성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건전성 지표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하반기 잠재 리스크 요인(금리 상승, 변이 바이러스 확산 등)에 선제적으로 대비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김유진 기자 eugene@

푸본현대생명, 이재원 대표이사 선임

푸본현대생명은 14일 임시주주총회와 이사회를 열고 이재원<사진> 대표이사 선임안을 의결했다.

이 대표의 임기는 15일부터 3년간이다. 앞서 지난달 24일 푸본현대생명 임원추천위원회는 차기 대표 후보로 이 대표를 추천했다.

이 대표는 2017년 1월 현대라이프 대표로 취임했으며 이듬해 대만의 푸본생명으로 회사 대주주가 바뀐 후에도 푸본현대생



명의 초대 대표를 맡았으며 이날 연임이 결정됐다.

임원추천위원회에서는 이재원 대표이사 추천에 대해 “금융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추고 회사의 비전을 공유하며 회사의 공익성 및 건전 경영에 기여할 수 있는 경영인”이라고 추천 사유를 밝혔다.

서지연 기자 sjy@

<기업PR>

BC카드, 취약계층에 ‘건강식품 꾸러미’ 지원 서울·대구 등 전국 7개 지역 2800가구 대상

BC카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에 처한 전국 취약계층에 ‘식품 꾸러미’를 지원한다.

BC카드는 13일 전국 취약계층 2800세대에 건강 먹거리를 담은 ‘사랑해 빨간밥차 식품 꾸러미’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식품 꾸러미’는 이달 24일까지 전국 7개 지역(서울, 인천, 대구, 울산, 김해, 광주, 여수) 내 독거노인, 장애인, 저소득가정에 전달된다.

해당 세대는 원봉교회(서울), 사랑의쌀나눔운동본부(인천), 사단법인 사랑해밥차(대구) 등 각 지역 빨간밥차 운영기관에서 선정했다.

BC카드와 KT그룹희망나눔재단이 공

동으로 마련한 ‘식품 꾸러미’에는 균형 잡힌 영양 섭취 중요성을 고려해 고령자 맞춤형 건강 먹거리로 구성했다. 저염식 간편국, 즉석밥, 건강음료 등 총 15종의 영양식을 보냉백에 넣어 전달할 예정이다.

서지연 BC카드 마케팅본부장(상무)은 “거리는 멀어도 마음은 가까이 나누고자 추석을 앞두고 식품 꾸러미를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BC카드는 지역사회와 상생할 수 있는 사회공헌활동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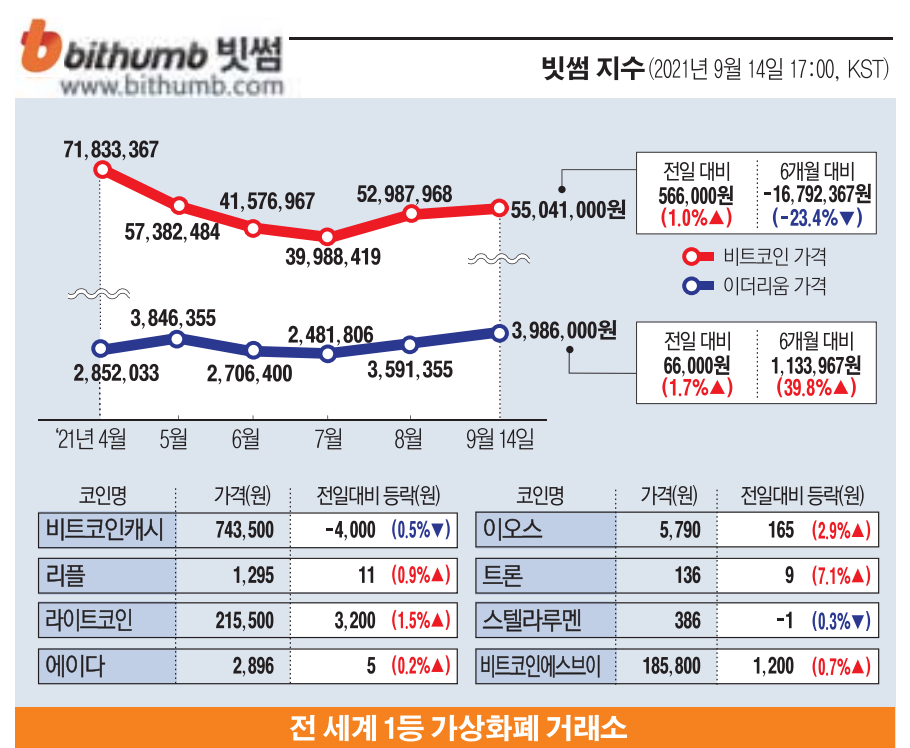
BC카드는 코로나19 영향으로 비대면 지역사회 사회공헌활동으로 전환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6월 서울 중구청과 협업해 개인당 목표



걸음 수를 달성하면 마일리지 당 1원을 기부하는 ‘착한 걸음 캠페인’과 취약계층 결식 지원 위한 ‘사랑해 나눔박스 전달식’도 진행했다.

‘나눔박스’는 마스크, 생필품 등 다양한 물품들로 구성됐으며 BC카드 임직원으로 구성된 자원봉사자들이 서울 을지로4가 내 거주 중인 취약계층 612세대에 비대면으로 전달 완료했다.





날렵한 외모에 넉넉한 공간... 차박도 'OK'

현대차 경형 SUV '캐스퍼', 온라인 사전계약 스타트

현대자동차가 새로 선보인 경형 SUV '캐스퍼'가 베일을 벗었다. 기존에 판매 하던 경차, 소형 SUV와 비교해도 소비자의 선택을 받을만한 매력으로 무장했다.

현대차는 14일 캐스퍼의 온라인 얼리 버드 예약(사전계약)을 시작했다. 캐스퍼는 기존 영업망이 아닌 웹사이트 '캐스퍼 온라인'에서만 판매된다. 본격적인 D 2C(고객 직접 판매)는 29일 디지털 프리미엄어와 함께 시작한다. 사전계약 첫날부터 캐스퍼는 대중의 높은 관심을 받으며 이날 오전 한때 사전계약 사이트가 먹통이 되기도 했다.

캐스퍼는 공간 활용성, 역동적인 디자인, 안전성 등 여러 측면에서 준수한 상품성을 갖췄다는 평가가 나온다.

캐스퍼의 길이는 3595mm로 기아 모닝, 쉐보레 스파크와 같다. 다만, 높이는 1575mm로 소형 SUV 메뉴보다 높게 설계했다.

제한된 크기지만, 경형 SUV라는 새로운 차급에 걸맞게 실내 공간을 효율적으로 구성하는 데 집중했다. 캐스퍼는 1

세계 첫 전좌석 폴딩시트 적용 최대 2059mm 실내공간 확보 충돌방지 보조 등 첨단장치 탑재 스마트 모델 1385만원부터

·2열 전 좌석에 폴딩, 슬라이딩, 리클라이닝 기능을 적용해 공간 활용성을 키웠다. 특히, 세계 최초로 운전석 시트가 앞으로 완전히 접히도록 했다.

2열 시트는 최대 160mm 앞뒤로 이동할 수 있고, 최대 39도로 젖힐 수 있다. 2열 시트를 최대한 앞으로 움직이면 최대 301리터의 적재 공간을, 1·2열을 완전히 접으면 최대 2059mm의 실내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 또한, 센터 콘솔을 없애고 기어노브를 대시보드에 배치해 개방성을 살렸다. 벤치형 시트 덕분에 운전석과 동승석 사이를 자유롭게 이동할 수도 있다.

차급을 뛰어넘는 안전, 편의사양도 강점이다.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캐스퍼는 1·2열 전 좌석에 폴딩, 슬라이딩, 리클라이닝 기능을 적용해 공간 활용성을 키웠다(왼쪽). 모든 좌석을 접으면 최대 2059mm에 달하는 실내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 레저, 아웃도어 활동 등 개인의 취향과 상황에 맞는 공간 활용이 가능하다.



사진제공 현대차

(ADAS)과 앞 좌석 센터 사이드 에어백을 기본 적용했고, 고강성 경량 차체 구조를 확보해 "경차는 위험하다"라는 인식을 털어냈다. 모든 트립에는 지능형 안전기술인 △전방 충돌방지 보조 △차로 이탈방지 보조 △차로 유지 보조 △운전자 주의 경고 △하이빔 보조 △전방 차랑 출발 알림 등을 경형 최초로 기본 적용했다.

현대차는 캐스퍼를 가솔린 1.0 엔진으로 운영하는데, 가솔린 1.0 터보 엔진을 얹은 터보 모델도 '캐스퍼 액티브'라는

선택 사양으로 운영한다. 가솔린 1.0 터보는 최고출력 100마력, 최대 토크 17.5 kg·m, 복합연비 12.8km/ l의 동력 성능을 갖췄다. 76마력 수준이던 기존 경차의 출력을 뛰어넘었다.

모던 트립에는 조건과 노면 상태에 따라 주행 성능을 통합 제어하는 2WD 험로 주행 모드를 기본으로 적용했다. 차량 내 간편 결제 서비스인 '현대 카페이'와 전방을 주시하면서도 자연어 기반 음성으로 공조를 작동하는 '서버 기반 음성인식 차량 제어' 등 첨단 인포테인먼트 사

양도 운영해 운전자의 편의성까지 높였다. 판매가격은 기본 모델을 기준으로 △스마트 1385만 원 △모던 1590만 원 △인스퍼레이션 1870만 원이다. 기본 트림만 놓고 보면 모닝, 스파크보다 비싸고 배뉴보다는 저렴하다. 캐스퍼는 노·사·민·정이 힘을 모은 광주형 일자리 사업으로 설립된 광주글로벌모터스(GGM)가 생산을 책임진다. GGM은 협약 체결 2년 8개월, 공장 착공 1년 9개월 만에 15일부터 양산을 시작한다.

유창욱 기자 woogi@

현대모비스 '모터벨라' 첫 참가 ADAS·자율주행 신기술 선편

현대모비스가 독일 IAA 모빌리티에 이어 미국 디트로이트에서 열리는 모터쇼 '모터벨라(Motor Bella)'에 처음으로 참가, 공격적인 시장개척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

현대모비스는 북미지역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IT·가전 전시회인 CES에 지속해서 참가하고 있지만, 현지 모터쇼 참가는 이번이 처음이다.

모터벨라는 세계 최대 모터쇼 중 하나인 디트로이트 모터쇼(NAIAS)를 대신해 열리는 전시회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대규모 실내 전시 시설 운영이 어려워지자 야외 서킷에서 진행되는 체험형 행사인 모터벨라가 이를 대신하게 됐다. 모터벨라는 21일부터 26일까지 디트로이트 인근 폰티악 M1 중앙광장에서 열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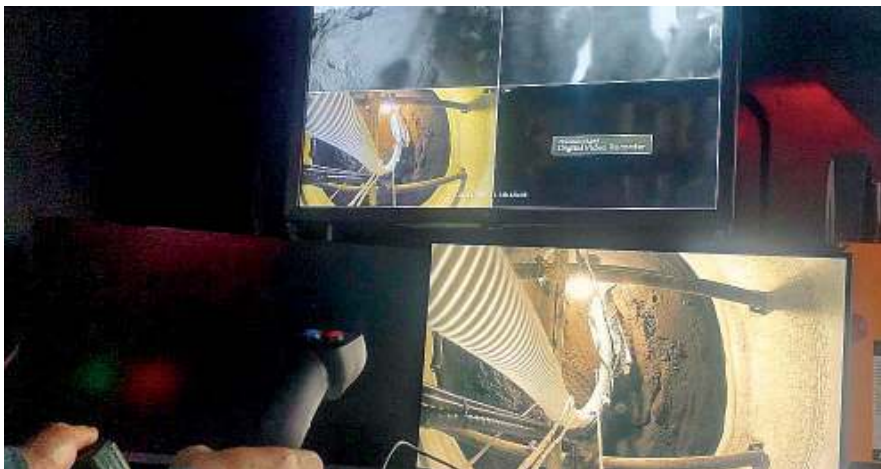
이번 전시회에서 현대모비스는 북미법인과 최근 구성한 핵심고객 전담 영업조직(KAM), 북미연구소를 중심으로 '모비스 테크데이'를 개최한다. 현대모비스가 보유한 자율주행과 전동화, 인포테인먼트 신기술을 고객사를 초청해 시연하는 행사다.

현대모비스는 모터벨라에서 북미 소비자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GV80의 첨단 운전자 보조시스템(ADAS) 신기술을 강조할 예정이다. 북미연구소에서 개발하고 있는 운전자 모니터링 시스템(DSM)과 운전자 상태 경고 시스템(DSW), 헤드업 디스플레이(HUD) 등 북미 고객에게 특화된 자율주행 신기술도 선보인다.

유창욱 기자 woogi@



현대모비스가 유럽 IAA모빌리티에 이어 북미 모터벨라에 참가하는 등 글로벌 시장에서의 공격적인 수출활동에 나섰다. 이달 초 독일 뮌헨에서 열린 IAA모빌리티 현대모비스 전시관 전경.



GS칼텍스 작업이 로봇을 활용해 질소분위기 촉매를 교체하고 있다.

사진제공 GS칼텍스

GS칼텍스 "질식위험 작업, 로봇이 대신해요"

오픈 이노베이션 아이디어 반영 로봇 활용 질소 촉매 교체 성공

GS칼텍스는 14일 국내 최초로 위험성이 높은 '질소 분위기(Nitrogen atmosphere) 촉매 교체 작업'을 로봇으로 대체했다고 밝혔다.

GS칼텍스는 국내 로봇 전문 업체와 협업해 가장 작업공간을 만들고 모의 테스트를 거쳐 실제 현장의 설비에 로봇을 투입하는 질소 분위기 촉매 교체작업에 성공했다. 이번 작업으로 작업자의 질식사고 위

험을 줄일 수 있게 됐다고 회사 측은 강조했다. 로봇 활용으로 질소 분위기 작업을 위한 위험성 검토, 작업 시간 단축 등을 통한 비용 절감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이번 작업은 GS칼텍스의 오픈 이노베이션을 위한 사내프로그램인 SBT(Self-designed Business Trip)에서 나왔다. SBT 프로그램은 회사의 미래를 위해 구성원이 아이디어를 선정하고 참여할 그룹을 구성하면 내부 심사료 선발한 그룹들을 대상으로 여러 학습과 시도의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김버리 기자 kimstar1215@

한화큐셀, 獨 기업과 '태양광 특허' 라이선스 계약

한화솔루션 큐셀 부문은 최근 독일 태양광 모듈 제조사와 태양광 셀 특허 기술 라이선스 계약을 맺었다고 14일 밝혔다.

이 계약으로 해당 제조사는 한화큐셀의 특허 기술 사용과 해당 기술을 적용한 태양광 모듈의 생산, 판매 권한을 얻게 된다.

한화큐셀의 특허 기술은 태양광 셀에 반사층을 형성해 태양광 셀을 투과하는 빛을 다시 셀 내부로 반사해 발전 효율을 높이는 퍼크(PERC) 관련 기술이다. 한화큐셀은 이 기술을 포함한 퀴텀 듀오 지(Q. ANTUM DUO Z) 기술로 태양광 모듈을 만들고 있다.

한화큐셀은 해당 태양광 셀 특허 기술 보호를 위해 경쟁사들과 소송을 진행 중이며 잇따라 승소 판결을 받고 있다. 지난해 6월 독일 뒤셀도르프 지방법원은 한화큐셀이 경쟁사 3곳에 제기한 특허 침해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내렸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한화큐셀은 3월에도 독일과 프랑스에서 동일 특허 보호를 위해 다수 업체에 추가 소송을 제기했고, 6월 네덜란드 로테르담 지방법원의 허가를 받아 네덜란드에 있는 몰루사의 창고에 보관 중인 론지 솔라의 태양광 모듈을 압류했다.

김버리 기자 kimstar1215@

LG엔솔 찾은 폴란드 국방차관 전기차 배터리 생산 '의기투합'

경협·현지 추가 투자방안 논의 유럽 시장 점유율 확대 시너지

마친 오치에파(Marcin Ociepa) 폴란드 국방부 차관이 최근 서울 여의도 파크1에 있는 LG에너지솔루션 본사를 찾아 배터리 공장 투자에 대해 논의했다.

14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오치에파 차관은 최근 본인의 SNS에 LG에너지솔루션 본사를 방문한 사진을 올리고 "서울에 있는 LG에너지솔루션 본사에서 폴란드와 한국의 경제적 협력과 폴란드에서의 추가 투자 건에 관해서 얘기를 나눴다"고 언급했다.

업계 관계자는 "LG에너지솔루션이 유럽 전기차 배터리 생산 거점을 폴란드로 삼고 투자를 지속해서 늘리고 있다"며 "이번 만남도 그런 움직임의 하나"라고 풀이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2016년 폴란드 브로츠와프를 생산 거점으로 낙점하고 공장을 짓기 시작했다. 그해 10월 착공한 뒤 2018년 본격적인 양산 체제를 갖췄다.

업계에 따르면 브로츠와프 공장의 연간 생산 능력은 지난해 말 기준 65GWh(기가와트시) 수준이다. 추가 증설을 거쳐 올해 말까지는 70GWh 수준으로 커질 전망이다. 이는 한 번 충전에 400km를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 약 120만 대에 투입 가능한 분량이다.

전기차 시장조사업체 'EV 볼륨즈'에 따



마친 오치에파(왼쪽) 폴란드 국방부 차관과 장승세 LG에너지솔루션 경영전략총괄 전무가 악수하고 있다.

출처 마친 오치에파 차관 SNS

르면 지난해 전 세계에서 팔린 전기차(PHEV 포함)는 59만 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5배 늘었다.

특히, 유럽은 강력한 '친환경 정책' 드라이브를 바탕으로 전기차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다. 같은 기간 독일의 전기차 판매량은 245% 증가했다. 스페인과 이탈리아는 3배 가까이, 프랑스, 영국, 스웨덴 등도 2배 이상 증가했다.

이처럼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유럽 전기차 시장에 발맞춰 LG에너지솔루션은 폴란드 배터리 공장에 대한 투자를 계속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LG에너지솔루션은폭스바겐, 메르세데스-벤츠, 볼보 등 가장 많은 유럽의 완성차 업체들을 고객사로 확보한 상황이다. 현재 업계에서는 LG에너지솔루션의 유럽 배터리 시장 점유율이 70%에 달한다는 추정도 나온다.

김버리 기자 kimstar1215@

한국타이어 '벤투스 S1 에보 Z' 포르쉐 세단 '파나메라'에 탑재

한국타이어엔테크놀로지가 포르쉐의 4도어 스포츠 세단 파나메라에 최고성능타이어 '벤투스 S1 에보 Z'를 신차용 타이어로 공급한다고 14일 밝혔다.

신형 파나메라에 공급하는 '벤투스 S1 에보 Z'는 고성능 스포츠카에 최적화된 설

계로 역동적인 주행성능을 발휘하게 돕는다. 비대칭 패턴과 접착면 디자인으로 그립감, 코너링 성능을 극대화한 점이 특징이다.

한국타이어는 파나메라의 스포츠 성능을 만족시키기 위해 가장 혹독한 테스트 트랙으로 평가받는 독일 뉘르부르크링 노르트슐라이페 트랙에서 차량의 최대 속도에 맞춘 극한의 테스트를 추가로 진행했다.

유창욱 기자 woogi@

한화디펜스, 英서 첨단 방산장비 뽐낸다

‘DSEI 국제 방산전시회’ 참가

한화디펜스는 14일부터 17일까지 영국 런던 엑셀 전시장에서 열리는 ‘DSEI 국제 방산전시회’에서 첨단 지상 장비와 무인 방산 시스템을 선보인다고 밝혔다.

DSEI는 영국 국방성과 국제 무역부가 주관하는 국제 방산장비 박람회다. 올해 행사에는 30여 개국에서 760개 방산업체가 참가한다. 국내 방산기업 중에는 한화디펜스가 유일하다.

한화디펜스는 이번 전시회에 K9 자주포(SPH)와 차세대 보병전투장갑차(IFV) 레드백(Redback), 비호복합 대공방어체계, 다목적 무인차량 등 최신 지상 무기체계들을 전시한다.

특히 K9 자주포의 최신형인 K9A2는 내년에 시작되는 영국 육군의 MFP 자주포 획득사업에 제한할 예정이다.

K9A2는 화력과 방호력, 기동성을 높인 제품이다. 완전 자동화 포탑을



‘DSEI 2021’에 전시된 한화디펜스 다목적 무인차량. 사진제공 한화디펜스

장착해 분당 9발까지 발사할 수 있다. 차체 방호력을 개선한 신형 보호 키트를 장착할 예정이다. 복합소재 고무 궤도를 적용해 기동성을 향상하는 방안도 구상 중이다. 또한, 한화디펜스는 MFP사업 참여를 위해 영국 현지 방위산업체들과 ‘팀 썬더(Team Thunder)’를 결성한다.

이번 전시회 기간에 영국 주요 방산 기업인 레오나르도(Leonardo UK)와 피어슨 엔지니어링(Pearson Engineering) 등과 관련 양해각서(MOU)를 맺을 예정이다.

김버리 기자 kimstar1215@

LG화학, 친환경 사업 전환 가속 美에 바이오 플라스틱 합작공장

세계 4대 곡물기업 ‘ADM’ 협력
2025년까지 ‘PLA 공장’ 완공
韓기업 첫 생분해 재료 통합생산

LG화학이 글로벌 4대 메이저 곡물 가공 기업인 미국 아처 대니얼스 미들랜드(ADM)와 손잡고 합작공장 설립에 나선다. 옥수수를 원료로 한 바이오 플라스틱 상업화를 위해서다.

LG화학은 13일(현지시간) 미국 일리노이주 시카고에 있는 ADM 본사에서 후안 루시아노 ADM CEO(회장), 신학철 LG화학 CEO(부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LA(Lactic Acid) 및 PLA(Poly Lactic Acid) 합작법인 설립을 위한 주요조건합의서(HOA)’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사는 내년 1분기에 본 계약 체결을 목표로 2025년까지 미국 현지에 연산 7만



13일(현지시간) 미국 일리노이주 시카고에 위치한 ADM 본사에서 ADM CEO 후안 루시아노(왼쪽) 회장과 LG화학 CEO 신학철 부회장이 PLA 합작법인 설립을 위한 주요조건합의서(HOA)를 체결한 뒤 악수하고 있다. 사진제공 LG화학

5000톤 규모의 PLA 공장과 이를 위한 LA 공장을 건설할 계획이다. 한국 기업이 원재료부터 제품까지 통합 생산이 가능한 PLA 공장을 짓는 것은 LG화학이 최초다.

PLA는 옥수수에서 추출한 글루코스(포도당)를 발효·정제해 가공한 LA를 원료로 만드는 대표적인 생분해성 플라스틱이다. 100% 바이오 원료로 생산돼 주로 식품 포장 용기, 식기류 등에 쓰이며, 일정 조건에서 미생물 등에 의해 수개월 내 자연 분해되는 친환경 소재다.

ADM은 전 세계 200여개 국에서 농작물 조달시설을 운영하는 글로벌 곡물 가공 기업이다. 바이오케미칼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원료인 ‘글루코스’ 생산능력과 이를 원료로 한 발효 기술에 강점을 가졌다.

합작법인 설립이 완료되면 LG화학은 수직계열화 기반의 다양한 고부가 제품 개발에 재생 가능한 바이오 원료를 접목할 수 있게 된다. 상업적 규모의 고순도 젖산 생산능력을 확보해 PLA 생산에 필요한 원료의 확보도 가능하다.

LG화학은 PLA 생산을 기반으로 바이오 플라스틱 시장을 본격 공략할 계획이다. 특히 지속가능 전략의 일환으로 기후

변화 대응 및 폐플라스틱 등 환경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생분해성 수지 상업화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협약을 통해 양사는 향후 친환경 및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분야에서 확장 가능한 바이오 소재 공동 연구개발에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후안 루시아노 회장은 “LG화학과의 이번 협력은 식물성 원료 기반의 솔루션에서 또 다른 성장의 기회와 고객 가치를 향상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학철 LG화학 부회장은 “ADM과의 합작법인 설립은 단순한 협력을 넘어 환경과 사회를 위한 지속가능한 사업 구조로의 전환을 이끄는 새로운 여정의 시작이 될 것”이라며 “지속가능 선도기업으로서 탄소중립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들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장조사업체 등에 따르면 전 세계적인 일회용품 사용 규제 강화로 생분해성 플라스틱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글로벌 바이오 플라스틱 시장은 2021년 12조원에서 2026년 34조원 규모로 연평균 23%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대수 수습기자 citizen@

내년 출시 ‘니로 EV 택시’ 앱 미터기 단다

기아·티머니, 업무협약 체결
호출·내비게이션 등 원스톱 지원

기아가 이동 및 운송 관련 결제 서비스 업체 ‘티머니’와 ‘니로 EV 택시 전용 모델’의 성공적 출시를 위한 업무 제휴 협약을 체결했다. 바퀴 회전수에 따라 요금을 계산하는 현행 전기식 미터기와 비교해 각종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4일 기아는 내년에 출시할 니로 EV 택시 전용 모델의 통합 단말에 ‘티머니 하이브리드 앱 미터기’를 장착, 향후 티머니와 다양한 협력을 모색한다고 밝혔다.

니로 EV 택시 전용 모델은 택시 고객의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맞춤형 전기 택시다. 실내 공간을 확장하고 승차차 편의성을 높이는

한편, 앱 미터기를 활용해 택시 호출·배차·내비게이션 등 택시 영업에 필요한 다양한 기능을 하나의 단말기를 통해 지원한다.

앱 미터기는 위성 위치 확인 시스템(GPS)을 사용한다. 택시의 위치를 파악해 배차하고 승객이 탑승한 이후에는 이동 거리와 시간 등을 계산해 택시 요금을 산정한다. GPS 수신기가 다소 불안정한 지역에서는 바퀴 회전수를 기반으로 거리를 산정할 수 있다.

기존 전기식 미터기가 바퀴 회전수에 따른 펄스(전기식 신호)를 이용해 요금을 산정하는데 이것과 전혀 다른 개념이다.

택시 사업자의 경우 전기식 미터기의 △구매 △수리 △요금 업데이트 △검사 등에 드는 각종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준형 기자 junior@

에쓰오일, SNS 소통 강화 웹툰 활용 공채 정보 소개

에쓰오일(S-OIL)은 채용 시즌을 맞아 SNS를 통한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자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디지털 사보 등을 통해 MZ 세대의 눈높이에 맞춘 채용 소개 웹툰, 주니어 사원 직무 소개 인터뷰 영상 등을 올

리고 있다. 이후 채용 진행 일정에 맞추어 면접 꿀팁, 직원 브이로그, 유명 유튜버 채널과 협업 콘텐츠 등도 공개할 예정이다.

에쓰오일은 올해 △경영지원 △재무 △국내 영업 △해외영업 △경영지원(공장) △공정 △설비기술 △안전환경 등 8개 직무의 신입사원을 모집한다. 이달 26일까지 채용 홈페이지에서 원서를 접수하고 인적성 검사, 인공지능(AI) 역량검사, 1차 면접, 2차 면접 등의 채용 절차를 거쳐 최종 합격자를 발표한다.

김버리 기자 kimstar1215@

참다한 홍삼

참 다 한 홍 삼

추석맞이

할인대전

2021.9.3 금 - 10.5 화

최대 20%

30 | 50 | 100 | 200만원 이상 구매시

* 실결제 3% 적립 * N+1구매시 금액별 할인과 중복 적용 불가 * 복수구매 할인 중복적용 불가

추석맞이 할인혜택

5+1

클래식

55,000원

50ml x 30포

5+1

홍삼정 마일드스틱

55,000원

10ml x 30포

5+1

홍삼정 스페셜

79,000원

240g x 1봉

5+1

홍삼절편

55,000원

20g x 6개

5세까지

5+1

10%

홍키즈 1단계

-110,000원 ~ 99,000원

330,000원 ~ 297,000원

6세~9세까지

5+1

10%

홍키즈 2단계

-130,000원 ~ 108,000원

360,000원 ~ 324,000원

10세~13세까지

5+1

10%

홍키즈 3단계

-130,000원 ~ 117,000원

390,000원 ~ 351,000원

5+1

27%

탐클래스 중

-160,000원 ~ 117,000원

50ml x 30포

5+1

29%

탐클래스 고

-190,000원 ~ 135,000원

50ml x 30포

참다한 홍삼

T.1661-0308

www.chamdahan.com

참다한 홍삼은 전국 180개 직/가맹점과 국내 유명 백화점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내홍 끝난 소상공인聯 “영업제한 철폐·손실보상” 촉구

자영업비대위와 공동 회견
“대출 만기연장 등 즉시 시행
정부 외면 땀 강력 대응할 것”

“소상공인연합회가 혼란의 시기에 있었 습니다. 자영업자에 대한 많은 목소리를 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해 죄송합니다. 이제 저희가 소상공인들의 눈물을 닦아주 겠습니다.”

최근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 회장으로 선출된 오세희 회장의 첫 행보는 전국 자영업자비대위(자대위)와의 공동 기자회견이었다. 회장 선출로 내홍을 끝낸 소공연이 자대위와의 연합을 우선시한 것이다. 영업 제한 철폐 등을 요구한 소공연은 정부가 소상공인 요구를 외면할 시 강력 대응도 예고했다.

자대위는 과거 소공연의 집안싸움으로 목소리를 내기 힘든 상황에서 자영업자들



오세희(왼쪽 세 번째)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을 비롯한 소상공인들이 14일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영업제한 폐지 및 완전한 손실보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소상공인연합회

이 스스로 만든 단체다. 그동안 이들은 서울, 부산 등 전국 지역 단위로 야간 차량 시위를 진행해 왔지만, 소공연은 특별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었다.

소공연은 입장 정리 차원에서 14일 자대위와의 첫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소상공인

들의 영업 제한 철폐 및 온전한 손실보상을 정부에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에 △비대위 탄압 중지 △과도한 영업 제한 철폐 △소상공인 손실보상 촉구 △대출 만기연장 · 이자 상환 유예 △생활방역위원회 ·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참

여 보장 등 5대 요구사항을 천명했다.

오 회장은 최근 생활고 끝에 극단적 선택을 한 자영업자들의 사례를 말하며 “고통받는 소상공인 · 자영업자들 편에 서서 이분들의 눈물과 절규를 대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의 목적에 대해 오 회장은 “소상공인연합회가 자영업 비대위와 함께 하며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더 크게 모아 나가겠다는 선언인 것”이라고 덧붙였다.

소공연에 따르면 자영업자들은 지난 1년 6개월 동안 66조 원이 넘는 빚을 떠안았고, 45만3000개, 하루 평균 1000여 개 매장이 폐업했다.

김기홍 자대위 공동대표는 “영업중지와 시간제한만이 영업 제한이 아니다”라며 “업종에 따라 사실상 집합금지과 다름없는 인원 제한 및 영업행태 제한의 경우도 반드시 손실보상의 범위에 포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부가세를 현행 10%에서 5%로 한시적으로 인하하고, 전기세 · 수도료 등 간접세 비용의 한시적 절감도 요구했다. 이어 대출 만기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 조치를 즉시 시행하고, 정책자금 대출 또한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문 낭독이 끝난 후 이창호 전국 호프연합회 회장은 “직장인들은 회사를 관두게 되면 급여가 '제로'에서 시작하지만, 자영업자는 영업을 멈추면 내부 고정지출로 마이너스에서 시작할 수밖에 없다”며 “단순히 지원금이 아닌 생존의 갈림길에 있는 자영업자들이 자생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끝으로 오 회장은 “정부가 조속한 시일 내에 입장을 밝혀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정부가 이번마저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외면한다면 차량시위뿐만 아닌 더 강력한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심민규 수습기자 wildboar@

8월 ICT 수출 34개월 만에 200억달러 돌파 15개월 연속 증가세… 반도체 4개월째 100억 달러 넘어서

8월 정보통신기술(ICT) 수출이 203억 달러로 집계되면서 역대 8월 수출액 중 1위를 달성했다. 반도체는 4개월 연속 100억 달러대 수출을 기록하며 ICT 수출 전반을 주도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8월 ICT 수출 202.7억 달러, 수입 113.8억 달러, 무역수지는 88.9억 달러 흑자로 잠정 집계됐다고 14일 밝혔다.

8월 ICT 수출액은 전년 동월 대비 33.2% 증가하며 2020년 6월 이후 15개월 연속 증가세다. 역대 8월 수출액 중 1위, 역대 월별 수출 2위에 해당하는 규모다. 특히 2018년 10월 이후 34개월 만에 200억 달러를 돌파했다.

품목별로 반도체는 117.9억 달러(42.2% ↑) 수출을 기록했다. 모바일, 컴퓨터 등 지속적인 수요 증가로 메모리와 시스템 반도체가 동반 상승했다. 디스플레이는 22.1억 달러(22.4% ↑)로 모바일 등 수요 확대에 따른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호조세에 12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휴대폰은 11.8억 달러(67.7% ↑) 수출됐다. 하반기 프리미엄 스마트폰 본격 출시로 완제품과 부품품 모두 증가하며 증가폭이 확대됐다. 컴퓨터 · 주변기기는 16.9억 달러(26.7%)로 6개월 연속 수출이 증가했다.

국가별로 중국(96.7억 달러)은 주요 품목이 모두 증가하며 12개월 연속, 베트남(32.6억 달러)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중심으로 5개월 연속 증가세가 지속했다. 미국(24.6억 달러)과 유럽연합(10.0억 달러), 일본(3.6억 달러)도 각각 20개월, 12개월, 4개월 연속 수출 증가세를 보였다.

중소 · 중견기업 수출은 46.4억 달러로 작년보다 28.9% 늘었다. 반도체와 전기장비, 컴퓨터 · 주변기기 등이 증가했다. 또 중소기업 수출은 14.8억 달러로 17.0% 신장했다. 전기장비, 접속부품 등은 증가, 컴퓨터 및 주변기기는 감소했다.

조남호 기자 spdran@

티맵 오토, 볼보 XC60에 탑재

누구·플로 인포테인먼트도 추가

티맵모빌리티는 ‘더 뉴 볼보 XC60’에 티맵 오토(사진)가 탑재된다고 14일 밝혔다. 티맵 오토는 자동차 환경에 맞게 진화한 완성차 내비게이션이다. 모바일 티맵의 서비스를 자동차에 맞게 디자인해 최적화된 사용자 경험을 구현했다.

더 뉴 XC60은 TMAP 오토를 비롯해 SK텔레콤의 인공지능(AI) 플랫폼 ‘누구(NUGU)’, 음악 플랫폼 ‘플로(FLO)’ 등 통합 인포테인먼트(IVI)가 탑재되는 첫 번째 사례다.

스마트폰을 연결해야 사용 가능한 안드로이드 오토와는 달리, 자동차에 직접 설치되는 차량용 안드로이드 OS(AAOS) 기반인 점이 특징이다.

운전자는 티맵 내비게이션을 비롯해 음성 인식률이 뛰어난 AI 누구(NUGU)를 통해 목적지 검색부터 차량 제어, 음악 재생까지 유기적으로 연결된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다. 운전자는 모바일에서 경험했던 각 서비스를 자동차 맞춤형 통합 서비스로 편하게 사용하는 셈이다.



티맵모빌리티는 모바일에서 검증한 다양한 기능을 티맵 오토에도 추가할 계획이다. 최근 출시한 실시간 인기장소 알림 서비스 ‘T지금’, 유명인이나 캐릭터 목소리로 길 안내를 받는 ‘티맵샐라’ 등을 비롯해 주차, 대리운전, 전기차 충전 결제 서비스 등 사용자 수요가 급증하는 영역에서 티맵 오토 생태계를 빠르게 확장한다.

박서하 티맵모빌리티 스마트 비하를 그룹장은 “티맵 오토는 내비게이션에서 나아가 자동차 맞춤형 플랫폼으로 진화하는 중”이라며 “다양한 서비스 · 콘텐츠 제공자와 협력하며 생태계 확장을 지속해 자동차에 최적화된 모빌리티 플랫폼으로 진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다원 기자 leedw@

‘5G MEC’로 장애물 피하는 자율주행 로봇

LG U+ 클라우드 기반 개발
병원·호텔·식당 활용 전망

LG유플러스가 5G MEC(Multi-access Edge Computing) 기술을 활용해 장애물을 피하며 안정적으로 주행하는 클라우드 로봇을 선보였다.

LG유플러스는 아마존웹서비스(AWS) 클라우드 기반 5G 코어망 일체형 MEC를 활용한 자율주행 로봇을 실증했다고 14일 밝혔다. MEC는 고객과 가까운 곳에 소규모 데이터센터를 설치해 데이터 전송 구간을 줄이고 초저지연을 구현하는 핵심 5G 기술이다.

로봇을 배달, 호텔, 방역, 안내 등 다양한 업무에 활용하려면 가격과 전력소비를 낮추는 게 관건이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클라우드 로봇(브레인리스 로봇)’은 주로 LTE 이동통신을 통해 구현됐지만 높은 지연시간 때문에 즉각적인 위험감지와 장애물 회피 등 안정적인 주행이 어려웠다.

LG유플러스는 서울시 서초구 LG전자 R&D센터에서 LG전자의 로봇서비스를 통합 수용한 일체형 MEC를 통해 이러한 난제를 해결, 클라우드 로봇의 안정적인 자율주행을 실증했다.

클라우드 로봇에는 LG전자가 개발한 5G SA(단독모드) 산업용 단말이 장착됐다. 이 로봇은 건물 벽이나 출입문 등 주변 환경을 측정해 지도를 생성



LG유플러스가 5G 코어망을 활용한 일체형 멀티액세스에지 컴퓨팅(MEC) 자율주행 로봇을 선보였다. 배송로봇들이 음식을 서빙하고 있다. LG유플러스 제공

하고, 움직이는 장애물을 인지해 회피하는 등 주변 상황에 즉각적으로 대응했다. 또 MEC에는 클라우드 로봇의 주행 엔진이 탑재돼 안정적인 자율주행을 지원했다. 클라우드 로봇이 보내온 대용량의 영상 등 센서데이터는 실시간으로 MEC플랫폼에 전송 · 처리됐고, 일반 로봇과 대등한 자율주행 성능을 유지하면서도 연산량을 50% 이상 절감할 수 있었다.

양사는 이번 실증을 계기로 비대면 서비스가 확대될 산업에서 클라우드로 보톡스가 각광받을 것으로 보고 상용화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또 LG유플러스는 기업고객이 활용하기 쉬운 5G

MEC 기술을 개발하고, MEC 기반 사례 발굴하기 위해 국내외 파트너사와 적극적인 협력을 추진 중이다. 연내 자율주행 자동차 실증, 공원 순찰 로봇 상용화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배은옥 LG유플러스 클라우드기술담당(상무)은 “MEC 전국망 구축, 표준화 활동 등 인프라 구축은 물론 다양한 실증 사례를 발굴하며 MEC 생태계 조성에 적극 나서고 있다”며 “코로나19로 ‘비대면’이 기본 원칙으로 잡혀가는 시기에 MEC와 로봇의 결합이 병원, 호텔, 식당 등 다양한 장소에 도입돼 새로운 고객 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남호 기자 spdran@

제조 중소기업 10곳 중 9곳 “산업용 전기요금 부담”

중기중앙회 “전용 요금제 필요”

국내 제조 중소기업 10곳 중 9곳에서 산업용 전기요금이 부담된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달 17일부터 27일까지 312개 제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에너지비용 부담 현황조사’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조사결과 산업용 전기요금에 관해 부담된다는 응답이 88.8%(매우 부담 20.8%+ 다소 부담 36.2%+약간 부담 31.7%)로 나타났다. 또 정부가 연료비 연동제 도입

에도 2분기 연속 전기요금을 동결한 조치에 대해 ‘경영안정 효과가 보통 이상’이라고 응답한 기업이 67.0%로 조사됐다.

전기요금체계 개편방안 중하나로 거론되는 경부하요금 인상과 관련해 조업 경험이 있는 업체들은 ‘생산원가 상승에 따른 가격 경쟁력 저하(54.8%)’와 ‘에너지비용 지속 상승 전망에 따른 경영 불확실성 확대(32.5%)’ 등을 주요 애로사항으로 꼽았다.

특히 에너지 절감과 관련해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시 ‘필요한 수준이며 더는 절감할 수 없음’으로 응답한 기업은 51.3%에 달했다. 반면 ‘인상 폭 만큼 절감할 것’으

로 응답한 기업은 5.8%에 불과했다.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전기요금 동결조치가 중소기업의 코로나19 극복에 큰 도움이 됐지만,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 발전믹스 전환으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 전망에 산업계 전반의 위기의식이 높아진 것이 사실”이라며 “정부의 탄소중립 드라이브로 발전단가 상승압박이 지속하는 만큼 ‘중소기업 전용요금제’를 도입하고, 지원사업 규모와 홍보를 강화해 관련 피해를 최소화하는 등 산업경쟁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선준 기자 tiatio@

쏟아지는 할인쿠폰 모바일 선물 쟁탈전

40대 회사원 이 모씨는 이달 초 1000원 할인 쿠폰이 발급됐다는 카카오톡 알림톡을 받았다. 최소 1만 원 이상 구입 조건이다. 며칠 뒤엔 10만 원 이상 구매시 1만 원 쿠폰이 오더니, 3일 후에 기한만 다른 동일한 쿠폰이 또 날라왔다. 그다음엔 4만 원 사면 4000원의 할인 쿠폰을 제공받았다. 2주 사이에 카카오톡머스로부터 지급받은 할인 쿠폰만 4개에 달한다.

강자 카톡 이어마켓컬리 등 가세
할인은 기본 숙박권 등 경품 제공
주소 몰라도 가능 비대면에 인기



코로나19 여파에 비대면 추석이 대세로 떠오르면서 유통업계의 '모바일 선물하기'는 그야말로 전쟁을 방불케 한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여파에 귀성 대신 고가 선물이 각광받으면서 선물하기 시장은 한층 치열한 각축전이 펼쳐지고 있다. 할인 쿠폰에 제주도 숙박권까지 내건 업체도 등장했다. 이번 추석 시즌을 통해 선물하기 서비스에 처음으로 나선 업체도 여러곳이다.

◇도전장 내미는 유통업체들…마켓컬리도 모바일 선물하기 = 14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최근 추석을 앞두고 모바일 선물하기가 인기를 끌고 있다. GS 샵의 이달 1~8일 선물하기 일평균 취급액은 지난해 대비 27% 늘었다. 같은 기간 주문건수는 15%, 주문고객수는 9% 각각 늘어났다. 티몬에서도 1일부터 10일까지 열흘간 모바일 선물하기 매출은 지난해(9월 13~22일) 대비 8배 이상 늘었다.

'선물하기' 서비스는 카카오톡이 전통의 강자다. 여기에 SSG닷컴은 2016년 7월에 관련 사업에 나섰다, 2018년에는 CJ온스타일이, 이듬해에는 티몬이 뛰어들며 몸집을 불렸다. 선물하기 시장은 지난해 약 3조5000억 원 규모로 코로나19 영향으로 비대면 선물이 늘어나고, 상대방 주소를 몰라도 쉽게 보낼 수 있다는 점에서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다.

최근에도 시장 진입 업체가 연이어 등장하고 있다. 마켓컬리는 이달 초 '선물하기 서비스'를 처음으로 론칭했다. 개시 기념으로 선물하기 서비스 이용 고객에게 최대 10% 할인 쿠폰 및 5% 적립금 페이백 혜택을 제공한다. 마켓컬리 앱과 모바일웹 내의 선물하기 카테고리에서 원하는 상품을 선택하고 선물하기를 통해 결제하면 된다.

NS홈쇼핑은 6월 홈쇼핑 인기상품과 다양한 실물 상품을 모바일로 간편하게 비대면으로 선물할 수 있도록 NS몰과 앱을 통해 '선물하기' 서비스를 내놴다. TV홈쇼핑과 T-커머스 채널, 모바일, 쇼핑북 등 NS홈쇼핑의 전 채널에서 의료기기, 보험 등 일부 상품을 제외한 전 상품을 선물하기 서비스로 이용할 수 있다. 신발 전문 ABC마트도 언택트 쇼핑의 확대에 따라 공식 온라인몰 아트닷컴을 통해 '선물하기 서비스'를 7월 오픈했다.

◇10% 할인은 기본…제주 호텔·식기세척기 경품까지 = 기존 업체들은 올 추석을 맞아 할인율을 높이고 프로모션을 강화하는 등 고객 잡기에 나섰다.

카카오머스는 추격자들을 뿌리치기 위해 10% 할인 쿠폰을 증정하는가 하면 '추석선물' 카테고리도 따로 만들었다. 금액대별로는 △5만 원 이하 △5~10만 원 △10만 원 이상로 나뉘고, 명품·패션잡화 섹션은 건강기능식품과 신선식품, 뷰티, 가전, 명품 등으로 세분화했다. 아울러 '선물 큐레이터 추천 받기'를 신설하고 추석 인사 카드 선물하기도 내놴다.

롯데하이마트는 선물하기 이용자를 대상으로 1명을 추천해 롯데호텔 제주 1박 숙박권을 제공한다. 선물하기를 통해서만 명절 인기 상품인 휴테크 '카이' 음파진동 안마의자를 포인트 적용시 300만 원 후반 대 구매할 수 있다. 이와 함께 LG전자 오브제컬렉션 식기세척기(12인용)를 혜택가 150만 원대에, 삼성전자 청정스테이션 무선청소기도 80만 원 대로 선물할 수 있다.

롯데온은 비대면 명절을 맞아 '언택트 명절 선물 코너'를 운영하며 선물하기 기능 이용시 최대 3만점의 엘포인트를 증정한다. 티몬은 21일까지 1500여 개의 상품을 특가로 판매하고, 10% 할인쿠폰과 함께 대량구매시 최대 15만 원을 할인한다.

올리브영은 22일까지 모바일 선물하기 서비스 이용 후 응모한 고객을 대상으로 'SK매직 식기세척기' '올리브영 기프트카드' '커피 기프트콘' 등의 경품을 증정할 예정이다.

남주현 기자 jooh@

메타버스 편의점 인기에… CU 제페토 2호점 학교로

교실2에 'CU제페토교실매점'

CU의 세계 최초 메타버스 공식 제휴 편의점인 'CU제페토한강점'이 큰 인기를 끌면서 제페토 2호점인 'CU제페토교실매점'이 잇따라 문을 연다.

CU는 글로벌 메타버스 플랫폼 제페토(ZEPETO)에 8월 처음 입점한 이후 한강공원 월드컵의 방문자 수가 이전보다 2배 이상 증가하고 인증샷 수도 8배나 급증할 정도로 폭발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키며 따라 14일 2호점을 오픈한다고 밝혔다.

BGF리테일에 따르면 제페토 내 개인 SNS(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인 피드의 CU 관련 게시물은 총 2900여 개, 조회수는 270만 건이 넘는다. 높은 관심 속에 제페토 내에서 아바타 아이템으로 판매하고 있는 CU의 패션 아이템은 무려 22만여 개나 판매됐다. 특히, 이달 초 선보인 비디오 부스와 포토부스 이벤트에는 일주일 만에 총 72만 명의 참여자가 몰렸다.

CU가 이번에 선보이는 제페토 2호점



'CU제페토교실매점'은 제페토 맵 중에서 트랙픽 최상위권 월드컵인 교실2에 오픈한다. 해당 편의점은 Z세대들에게 익숙한 학교 내 카페테리아 형태의 점포다. 교실 카페테리아에서 자판기를 많이 사용하는 공간적 특성을 살려 CU가 현재 추진 중인 스마트 자판기도 설치했다. 방문자가 자판기를 터치하면 PB상품인 헤이루(HEYROO) 무라벨 생수를 얻을 수 있다.

교실맵 방문자들을 타겟으로 올해 CU가 간편식 품질 업그레이드로 선보인 리치리

치 삼각김밥, 확!실한 김밥, 시그니처 도시락 등 간편식품의 구성을 대폭 확대하고 신상품 무게구름 다쿠아즈를 비롯해 아이스 드링크, 쫄쫄한 마카롱, 속초홍게라면 등 CU의 친숙한 히트 상품들을 들여놴다.

CU는 제페토 2호점 오픈을 기념해 이달 말 첫 콜라보 상품인 제페토 콘참치마요, 제육불고기 삼각김밥도 출시한다. CU가 최근 제페토 방문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선정한 메뉴를 실제 상품으로 만들어 출시하는 것이다. 해당 상품 패키지에 있는 스크래치를 긁으면 제페토에서 사용할 수 있는 캐시를 랜덤으로 지급한다.

연정옥 BGF리테일 마케팅팀장은 "제페토 편의점은 잠재 고객들에게 시공간을 초월해 CU를 소개함으로써 브랜드 친밀도를 높이는 등의 마케팅 효과를 톡톡히 얻고 있다"며 "특히, 국내뿐만 아니라 다양한 국가의 해외 유저들의 방문도 꽤 많아 글로벌 시장에 CU를 알릴 수 있는 온라인 채널로서 역할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남주현 기자 jooh@



박세리가 선택한 와인

롯데백화점은 업계 최초로 박세리 감독의 '더 시즌즈 와인즈 바이 세리 박(the seasons wines by seri park)' 프라이빗 레이아웃을 판매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와인은 박세리 골프 국가대표팀 감독이 미국 캘리포니아의 와인메이커와 오랜시간 협선했으며, 와인 업계 최초로 시즌제로 출시된다. 이번에 출시되는 와인은 리세스 알바리노(2020년, 화이트), 리프렉트 카베르네 소비농(2017년, 레드), 리메이크 시라(2015년, 레드)로 롯데백화점 전점에서 판매된다. 사진제공 롯데백화점

창립 60주년 삼양식품 “앞으로 60년, 세계적 식품기업 도전”

김정수 총괄사장 언택트 기념식

김정수(사진) 삼양식품 총괄사장이 삼양식품 창립 60주년 언택트 창립기념식에서 “앞으로의 60년은 세계적인 식품기업으로 거듭나는 새로운 도전이 될 것”이라며 “세계를 무대로 삼양식품의 저력을 유감없이 발휘하는 새로운 60년을 시작하자”고 말했다.

삼양식품은 15일 창립 60주년을 앞두고 언택트 창립기념식을 진행했다고 14일 밝혔다.

김정수 총괄사장은 기념사를 통해 “지난 60년은 사람들의 배고픔을 해결하겠다는 사명감에서 시작된 도전의 역사이며, 앞으로의 60년은 세계적인 식품기업으로 거듭



나는 새로운 도전이 될 것”이라며 “세계를 무대로 삼양식품의 저력을 유감없이 발휘하는 새로운 60년을 시작하자”고 말했다.

이어 김 총괄사장은 “ESG경영 실천을 통해 경제적,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며 우리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는 지속가능한 기업으로 나아가겠다”라며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의지를 밝혔다.

1961년 설립된 삼양식품은 ‘정직과 신용’이라는 창업정신을 바탕으로 한국 식품산업의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며 발전해왔다. 국내 최초의 라면인 ‘삼양라면’을 출시

해 라면을 제2의 주식으로 자리매김하며 새로운 식문화를 창출했고, 최근에는 세계적인 브랜드로 성장한 ‘불닭볶음면’을 통해 K푸드 열풍을 선도하며 글로벌 식품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

해외 생산공장 없이 수출 물량 전량을 국내에서 생산하는 삼양식품은 2017년 1억 달러(한화 1174억 원), 2018년 2억 달러에 이어 올해는 3억 달러 수출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하며 현재 한국 라면 수출의 절반을 책임지고 있다. 2019년 일본 판매법인을 시작으로 올해 미국, 중국에 현지 판매법인을 추가로 설립했고, 내년 수출 전진기지인 밀양 신공장 완공을 앞둔 등 글로벌 시장 진출에 더욱 속도를 내고 있다.

김혜지 기자 heyji@

<기업 PR>

동서식품 “포스트 단백질바로 간편한 한끼”

코로나 여파로 건강이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동서식품의 시리얼 브랜드 ‘포스트’가 언제 어디서나 맛있고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는 바 제품을 다양하게 선보이고 있다.

동서식품이 가장 최근에 출시한 ‘포스트 단백질바’는 다양한 견과류, 견과일과 초콜릿을 한데 뭉쳐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먹기 좋은 바 형태로 만든 제품이다. 땅콩과 통아몬드, 크랜베리 등 각종 재료가 조화롭게 어우러져 고소하면서도 풍부한 식감과 맛을 갖췄다.

‘포스트 콘푸라이트바’와 ‘포스트 골든 그레놀라바’, ‘포스트 오곡 코코볼바’도 한

끼 식사대용은 물론 든든한 간식으로 즐기기에 안성맞춤이다.

‘포스트 콘푸라이트바’는 지난 2017년 동서식품이 처음으로 선보인 시리얼바 제품이다. 포스트의 영양 가득한 시리얼을 한데 뭉쳐 바 형태로 만든 제품으로 ‘포스트 콘푸라이트바’와 ‘포스트 콘푸라이트 베리요거트바’ 2종으로 구성됐다.

‘포스트 골든 그레놀라바’는 골든 그레놀라 시리얼을 바 형태로 만든 제품으로 5곡 그레놀라에 밀크 코팅이 돼있으며, 건 크랜베리와 동결건조딸기가 함유돼 바삭한 식감과 조화로운 맛이 특징이다. 8가지



비타민과 3가지 미네랄, 우유 200ml에 해당하는 칼슘(264mg) 등 풍부한 영양까지 갖췄다.

‘포스트 오곡 코코볼바’는 기존의 동그란 오곡코코볼을 작은 미니볼 타입으로 만들어 한데 뭉친 형태에 밀크 초콜릿과 밀크 코팅을 더해 바삭하면서도 달콤하고 부드러운 맛이 특징이다.



이제, 장 속 마이크로바이옴 시대!
프로바이오틱스는
유한양행 와이즈바이옴



프리바이오틱스(부원료) 유산균대사산물(포스트바이오틱스, 부원료)

- 1

특허유산균을 포함한
유한 복합균주 포물라
- 2

유산균과 비피더스균의
배합비율을 확인하세요!
- 3

대장까지 살아가는
특허 받은 SP 코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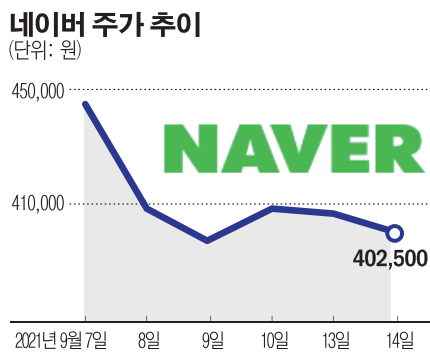
Y's BIOME
와이즈바이옴

<네이버·카카오>

규제 이슈에 네·카 1兆 매물 폭탄 ‘줍줍’ 개미들 ‘던질까 말까’ 고심

외국인·기관 ‘팔자’ 행렬에
2조원 어치 사들인 개미
‘숨겨진 악재 터질라’ 걱정

증권가 “폭락 폭 과했지만
美통화·재정정책 이슈 불안”



개미(개인 투자자)들의 네이버(NAV-ER)·카카오 사랑은 남치고도 남는다. 14일 개인들은 카카오가 케이큐브홀딩스를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하고, 3000억 원 규모의 상생 방안을 내놓겠다고 발표 하자 이 회사 주식 2212억 원어치를 추가로 사들였다. 네이버 주식도 1162억 원어치 추가 매수했다.

금융당국은 지난 7일 카카오페이 등 금융 플랫폼이 자사 앱을 통해 펀드나 보험 등 금융상품 가입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단순한 광고를 넘은 금융상품 ‘중개 행위’로 판단했다. 오는 25일부터 시행되는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 또는 인허가를 받지 않고 중개를 하는 것은 법률 위반 행위가 된다. 같은 날 여당도 토론회를 열고 “카카오가 탐욕과 구태의 상징으로 전락했다”며 강도 높게 비판해 금융당국이 최근 여당의 규제 기조에 맞춰 빅테크 규제에 돌입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터져 나왔다.

그러나 카카오의 상생안이 불안한 투자자들의 마음을 돌리기는 아쉽다는 지적이 있다. 특히 국내 주식시장이 사흘간 문을 닫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있어 양대 기술대장주를 담고 있는 개미들의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숨겨진 악재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개인들 ‘줍줍’ =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네이버는 전날보다 1.35% 하락한 40만 2500원에, 카카오는 전날보다 0.40% 하락한 12만 40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이날 카카오가 상생안을 내놓자 규제의 칼날이 무더 질 수 있다는 분위기가 시장에 흐르면서 낙폭을 줄인 것 있다.

개인들은 지난 8일부터 카카오 주식 1조 2982억 원어치를 장바구니에 담았다. 네이버 주식도 6234억 원 추가 매입했다. 인터넷 플랫폼 공통주를 싼가격에 살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 판단해 ‘줍줍’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외국인들은 5일 만에 ‘사자’ (29억 원)로 돌아섰다. 하지만 지난 8일 이후 누적 순매도 규모는 7474억 원에 달한다.

그러나 선뜻 두 종목을 모두 사들이지 못한 개미들도 상당수다. 불확실한 시점에 투자 자금을 인터넷 플랫폼 대형주에 쏟아붓기는 위험하다는 생각일 것이다. 개미들 중 “카카오의 상생안이 규제를 피할 수 있느냐, 지금 사도 되느냐”, “물타기 하다가 외국인들에게 털리는 것 아니냐”고 고민하는 이들도 많다.

◇“주가하락 과하다” = 여의도 증권가는 두 종목 모두 주가 하락이 과도하다는 리포트(기업분석 보고서)를 내놨다.

홍콩계 증권사 CLSA는 앞선 10일 ‘규제 공포(Regulation scare)’라는 보고서를 발간하며 “금융당국 발표 이후 규제 이

슈에 민감한 투자자들은 중국 규제에 인한 쇼크를 떠올렸을 것”이라며 “때문에 인터넷주 급락이 발생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정호준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시장에서 우려하고 있는 카카오페이의 중요한 비즈니스 모델이 장기적으로 사라지고 이게 주가수익비율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는 다소 과도한 반응”이라고 말했다.

이문중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네이버의 주가 하락은 핀테크 플랫폼에 대한 우려뿐 아니라 최근 국내외 플랫폼 관련 전반적인 규제 우려가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된다”면서 “다만, 규제 우려에서 네이버는 상대적으로 편안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추석 연휴를 앞두고 양대 기술대장주를 담고 있는 개미들의 고민은 깊어진다. 금융시장에 변수가 많아서다. 9월 21~22일 FOMC 회의는 물론 인프라투자법안 의회 승인 여부, 부채한도 협상, 9월 중 가시화될 수 있는 파월의장 연임 관련 이벤트도 추석 연휴 이후 대기이다.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미국 통화정책과 재정정책과 관련된 정책 이벤트라는 점에서 예상과는 다른 결과가 나온다면 금융시장 불안이나 변동성 확대에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규제이슈에 더해 미국발 파도가 덮친다면 충격이 클 수 더 클 수 있다는 게 증권가 일각의 해석이다. 조성진 기자 csjin2002@

外人, 안정성보다 ‘성장성’ 택했다

한경연, 주식매매행태 분석
총자산증가율과 상관관계

외국인은 기업의 성장성이 좋아질수록 해당 기업의 주식을 순매수하고, 안정성이 좋아질수록 순매수를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14일 ‘외국인의 주식매매행태분석과 시사점’ 분석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경연은 코스피 상장기업에 대상으로 올해 1분기 경영실적이 외국인의 코스피(KOSPI) 상장주식 순매수 비율에 미친 영향을 분석했다.

그 결과 성장성 지표인 총자산증가율이 1%포인트(p) 올라가면, 외국인 주식 순매수 비율은 0.026%p 증가했다. 반면, 안정성 지표인 자기자본비율이 1%p 증가하면 외국인 주식 순매수 비율은 0.078%p 하락했다.

또 한경연은 외국인 순매수 지표가 코스피 및 그 변동성에 영향을 주는지 분석했다. 그 결과, 외국인 순매수 비율과 코스피

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이고, 외국인 순매수액은 코스피 변동성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확인했다.

외국인 순매수 지표가 코스피와 코스피 변동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 외국인 순매수비율이 1%p 높아지면 코스피는 0.5% 상승했다. 외국인 순매수액이 1조 원 늘면 코스피 변동성은 5.4% 하락했다.

한경연은 “외국인의 주식 순매수는 주가 상승 및 주가 변동성 감소로 연결돼 주식 시장에 좋은 영향을 주고 있음을 의미한다”라고 해석했다.

한경연은 최근 외국인들의 매도공세가 지속하면서 주식시장이 약세를 면하지 못하고 있어 개인투자자는 물론 기업의 자금 조달에 악영향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이번 연구결과를 통해 외국인의 국내 주식시장 참여 확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업의 성장성이 필요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며, “기업 규제개선과 세제 지원 강화로 기업들이 적극적인 경영 활동에 나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다솜 수습기자 citizen@

현대重 상장일 해외 물량 쏟아지나

외국기관 배정된 349만 주 중 98.8% 미확약... 매도 가능

현대중공업이 16일 코스피 상장을 앞둔 가운데 외국기관 투자자가 일정기간 의무 보유하는 물량이 상장 첫날부터 대거 출회될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1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이 이번 상장을 위해 공모한 주식은 총 1800만 주로, 일반 투자자가 450만 주(25%), 우리사주조합 360만 주(20%), 기관투자자 990만 주(55%)를 배정받았다.

기관투자자 중에서도 운용사와 연기금 등 국내기관이 640만 8700주(64.7%)를 받았고, 해외 기관이 349만 1300주(35.3%)를 가져갔다. 국내 기관의 의무보유 확약 물량은 592만 8020주(92.5%)다. 의무보유확약이란 기관이 신규 상장기업의 공모주를 15일에서 6개월까지 팔지 않고 보유하기로 확약을 거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미확약 물량은 48만 680주(7.5%)에 불과했다. 이는 국내기관이 확보한 640만 8700주 중 상장 당일 매도할 수 있는 50만 주도 채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그러나 외국기관 투자자의 의무보유 물량은 4만 1500주(1.2%)에 불과했고, 미확약물량은 344만 9800주(98.8%)를 차지했다. 외국기관들은 상장 첫날부터 340만 주 이상을 팔아치울 수 있는 것이다.

한편 현대중공업은 공모가를 희망범위 상단인 6만 원으로 확정했다. 공모가 기준 공모금액은 1조 800억 원, 상장 후 시가총액은 5조 3264억 원 규모다.

지난 7일부터 8일까지 진행된 공모주 청약에선 총 18억 6297만주의 주문이 접수됐다. 통합 청약경쟁률은 404.3대 1, 청약증거금은 총 55조 8891억 원으로 집계됐다.

조성진 기자 csjin2002@

SK리츠, 코스피 상장 첫날 15.6% 상승

SK리츠가 유가증권시장 상장 첫날인 14일 공모가보다 15% 넘게 올랐다.

이날 SK리츠는 시초가(5340원)보다 8.24% 오른 5780원에 장을 마쳤다. 이는 공모가(5000원) 대비 15.6% 높은 수준이다. 장중에는 시초가보다 19.48% 뛰어오른 6380원에 거래되기도 했다.

SK리츠는 SK서린빌딩을 매입했고, 116개 SK 주유소를 보유하고 있는 클린에너지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클린에너지리

츠)의 지분 100%를 편입한 SK그룹의 스폰서 리츠다. 대기업, 금융기관, 연기금 등이 대주주로 참여해 자금조달과 자산운용, 시설관리 등을 전반적으로 지원해 안정성과 신뢰도를 높인 것이 특징이다.

앞서 SK리츠는 일반 공모 청약에서 증거금이 19조 2556억원, 최종 경쟁률이 552대 1로 집계되며 역대 리츠 공모 중 가장 많은 증거금 및 최고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다.

조성진 기자 csjin2002@

정용진, 증여세 납부 위해 광주신세계 지분 전량 매각

신세계는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으로부터 광주신세계 주식 83만 3330주를 2284억 9900만 원에 취득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를 통해 신세계는 광주신세계 주식 100만 주를 소유하게 된다. 취득 후 지분율은 62.5%가 된다. 신세계는 지분 매입에 대해 “광주신세계 지배력 확대 및 지배구조 단순화를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정 부회장은 매각 대금을 상속세 재원으로

로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은 지난해 9월 정 부회장과 정유경 신세계 총괄사장에게 각각 이마트 지분 8.22%와 신세계 지분 8.22%를 증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들 남매는 총 2천 962억원의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업계에선 정 부회장이 증여세 납부를 위해 광주신세계 지분을 매각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안경무 기자 noglasses@

미래에셋證 “4년 내 전력 재생에너지 전환”

업계 첫 ‘글로벌 RE100’ 가입
기후변화에 적극적 대응 약속

미래에셋증권이 14일 국내 금융업계 최초로 ‘RE100(Renewable Electricity 100%)’ 가입을 선언했다.

‘RE100’은 기업이 전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전기를 2050년까지 100% 재생에너지 전기로 전환하겠다는 글로벌 이니셔티브로다.

2014년 글로벌 비영리단체인 ‘더 클라이밋 그룹(The Climate Group·TCG)’이 CDP(Carbon Disclosure Project)와 협력해 발족했다.

미래에셋증권은 상반기 ESG위원회에서 결의한 ‘ESG정책 프레임워크’를 통해 ESG경영 3대 핵심영역으로 ‘탄소 중립 이행’을 위한 노력(Climature Engagement & Net-zero)’을 제시했다. 이번 RE100 가입을 통해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보다 명확한 로드맵을 수립해 2022년까지 대외 공개할 예정이다.

미래에셋증권은 가속화된 이상기후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탄소저감 노력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RE100이



최현만 미래에셋증권 수석부회장.

제시한 2050년보다 앞선 2025년까지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전력을 100%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향후 REC 구매 및 재생에너지 사업장 투자 등을 통해 국내 재생에너지 시장의 활성화를 촉진시키는 데 기여할 계획이다.

최현만 미래에셋증권 수석부회장은 “이번 RE100 가입을 통해 국내 재생에너지 시장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대한민국 기후변화 대응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수 있게 됐다”며 “미래에셋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 이행과 더불어 금융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개척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미래에셋증권은 지속가능경영의 일환으로 2006년 증권업계 최초 지속가능경영 보고서를 발간했고 2008년부터 에너지 사용에 대한 온실가스 인벤토리를 구축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대외적으로 공개해 왔다.

또 2010년부터 기후변화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CDP(Carbon Disclosure Project)에 참여했다. 탄소중립으로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 TC-FD(Task-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기후 관련 재무정보 공개 태스크포스) 지지 선언에 이어, SBTi(Science-based Target Initiative·과학기반 온실가스 감축 목표 이니셔티브)에 참여하기도 했다.

한편 9월 현재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페이스북, 골드만삭스, JP모건, 모건스탠리 등 전 세계 323개의 글로벌 기업들이 RE100에 동참하고 있다. RE100에 가입한 기업들은 TCG에 1년 안에 이행계획서(로드맵)를 제출하고 매년 이행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설경진 기자 skj78@

기본형 건축비 인상폭 최대… 분양가 상승 불씨 되나

국토부, 상한액 3.42% 인상

분양가 산정에 쓰이는 기본형 건축비가 두 달 만에 5% 넘게 올랐다. 8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분양가 상승 불씨가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자재비·인건비 상승에 최대 폭 상승= 국토교통부는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을 3.42% 인상해 15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공동주택에 적용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공급면적 3.3㎡당 기본형 건축비(16~25층, 가구당 전용면적 85㎡·공급면적 112㎡·가구당 지하층 바닥면적 39.5㎡ 기준)가 664만9000원에서 687만9000원으로 오르게 된다.

기본형 건축비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에서 분양가를 매기는 기준 중 하나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에선 건축비와 택지비 원가에서 일정 범위 이상 이윤을 붙여 주택을 분양할 수 없다. 이 중 건축비는 국토부가 인정하는 항목(건축비 가산비) 외에는 기본형 건축비 안에서 원가를 상정해야 한다.

국토부가 기본형 건축비를 올린 건 7월에 이어 두 달 만이다. 국토부는 철근 가격 상승을 반영한다며 7월에도 기본형 건축

레미콘 등 자재·인건비 상승 반영

3.3㎡당 687만9000원으로 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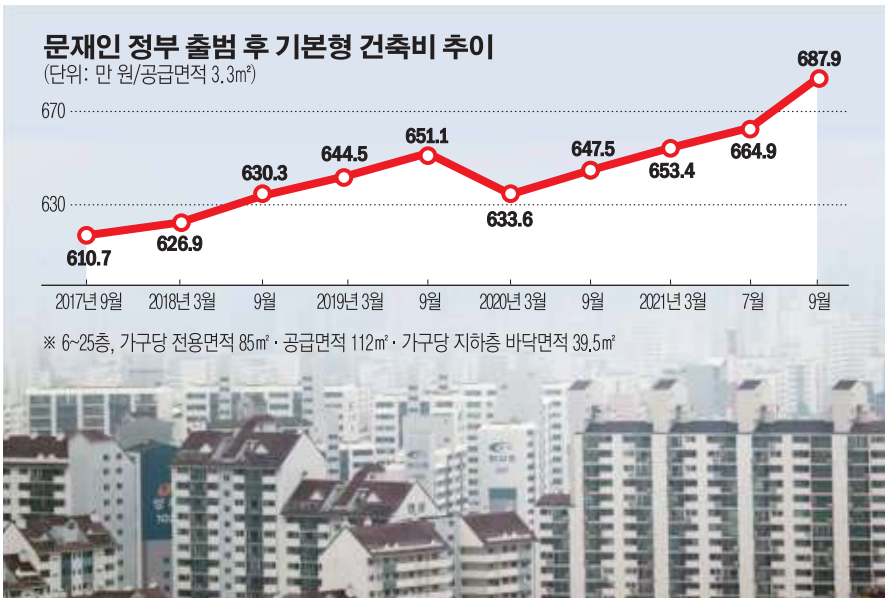
공급 위해 분양가 규제 완화 검토

서민들 ‘내집 마련’ 부담 커질듯

비를 평균 1.8% 올렸다. 올 3월 정기고시된 기본형 건축비(3.3㎡당 653만4000원)와 비교하면 반년 만에 5.3% 오른 셈이다. 반기 기준 2008년 이후 가장 큰 인상폭이다. 국토부는 9월 기본형 건축비 인상엔 레미콘, PHC 파일, 동관 등 자재비와 인건비 상승 등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기본형 건축비가 높아지는 만큼 청약자들이 부담하는 분양가 부담은 더 무거워졌다. 올 7월 서울 민간 아파트 분양가는 사상 처음으로 3.3㎡당 3000만 원을 넘어섰다.

기본형 건축비가 문제인 정부 들어서만 10% 넘게 상승한 데다 택지비 부담도 커지고 있어서다. 택지비를 산정하는 주요 기준인 공시지가가 매년 급등하고 있어서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인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전국 표준지(전국 필지 중 대표성



을 띠는 필지) 공시지가는 29.6% 올랐다.

◇국토부, 분양가 규제 완화 ‘만지작’= 국토부는 여기에 더해 가산비 산정 방식도 개편하려 한다. 가산비 산정 요인은 현재 시·군·구별로 다른데 이를 통합할 매뉴얼을 만들겠다는 게 국토부 뜻이다. 지금보다 더 많은 항목을 가산비에 포함하는 방향이 유력하다. 고급화 등을 명분으로 가산비를 높게 산정해 분양가를 높여 받을

길이 트인다는 뜻이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수도권과 주요 대도시에서 시행 중인 고분양가 심사제((HUG가 설정한 분양가 상한을 수용하지 않으면 분양에 필요한 보증을 내주지 않는 제도)를 완화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HUG는 분양 단지 인근 최근 분양가와 시세를 기준으로 분양가 상한을 정하는데 건설업계에선 시세 반영률을 높이거나 준공된 지 오래된

아파트는 비교 대상에서 빼 달라고 요구해 왔다. 분양가 규제가 완화되면 그간 분양가 갈등 때문에 분양을 미뤘었던 단지들이 청약시장에 나올 수 있다. 분양 가뭄에 시달리는 서울 청약시장에 물꼬를 트는 효과를 낼 수 있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이 “고분양가 제도 운영과 분양가상한제 시·군·구 심사과정 등에서 민간 주택 공급에 장애가 되는 점이 없는지 검토하겠다”고 말한 것도 이런 의도에서다.

하지만 분양가가 과도하게 오르면 서민 청약자에게 ‘그림의 떡’이 될 수 있다. 분양가가 9억 원이 넘는 집은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분양가가 9억 원이 넘으면 특별공급 없이 전량 일반공급된다. 청약시장이 현금·청약가점 부자에게 기울어진 운동장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여기에 높아진 분양가가 기존 주택시장까지 자극할 우려도 있다.

김성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은 “그간 정부가 고분양가가 집값을 자극하는 것을 방지했는데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것은 최소한의 제도 장치마저 없애겠다는 뜻”이라고 비판했다.

박종화 기자 pbell@

공공분양 ‘중도금 대출 불가’ 우려에도 청약 러시

低분양가·청약가점 부담 덜해

시흥 장현·파주 운정 인파 몰려

경기 시흥시 장현지구와 파주시 운정지구 공공분양주택 특별공급에 수요자들이 대거 몰렸다. 일각에선 이들 두 단지에 대한 중도금 대출이 불가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청약 경쟁률이 낮아질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하지만 공공주택은 민간주택보다 가격이 여전히 저렴한 데다 청약가점 경쟁도 덜해 주택 실수요자들의 청약 신청이 이어진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공공주택 중도금 대출이 실제로 중단된다면 곧 서민 주거 불안정이 가중될 수 있는 만큼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14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전날 마감한 경기 파주 운정3지구 A17블록과 시흥 장현지구 A3블록 공공분양주택 특별공급 경쟁률은 최근 다른 지역 공공분양 특별공급 경쟁률을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시흥 장현A3블록은 451가구 모집에 8569명이 청약통장을 던져 평균 경쟁률

LH 공공분양주택 특별공급 청약 경쟁률			
단지명	청약 일시	평균 경쟁률	
시흥장현 A3블록	9월 14일	19대 1	
파주운정3 A17블록	9월 14일	3.39대 1	
평택고덕 A-54블록	7월 5일	0.46대 1	
양주회천 A18-21블록	6월 16일	1.63대 1	
의정부고산 S3블록	1월 12일	0.4대 1	

※ 출처: 한국토지주택공사(LH)

19대 1을 기록했다. 최고 경쟁률은 전용면적 84A㎡형에서 나온 48.15:1로 41가구 모집에 2015명이 몰렸다. 파주 운정A17블록은 561가구 모집에 1904명이 신청해 평균 3.39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특히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유형에선 각각 4.59대 1과 4.9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시흥 장현지구와 파주 운정지구 공공주택은 최근 분양한 다른 지역 공공주택보다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7월 LH가 경기 평택시에서 분양한 평택 고덕지구 A54블록 특별공급 경쟁률은 평균 0.46대 1에 그쳤다. 6월 경기 양주지에서 청약신청을 받은 양주 회천지구 A18블록은 1109가구 모집에 1811명이 청약통장을 던져 1.63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앞서 시흥은행들은 정부의 가계대출 총량 관리 기조에 발맞춰 중도금 대출 중단을 선언했다. 이에LH는 시흥 장현과 파주 운정 분양 공고문에 ‘금융권 중도금 대출 규제로 중도금 대출이 현재 불투명하다’는 안내 문구를 실었다. 민간 분양에 적용된 중도금 대출 중단사태가 공공분양아파트로 번진 셈이다. 이 때문에 부동산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여유자금에 부족한 일부 실수요자들이 청약을 포기했다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하지만 ‘중도금 대출 불투명’이라는

제약에도 공공분양아파트는 나름 인기를 끌었다.

분양가가 저렴하고 청약가점 부담도 덜한 만큼 자금 여력이 부족하거나 가점이 낮은 실수요자가 몰린 것으로 보인다. 시흥 장현A3블록 전용 84㎡형 분양가는 최고 4억7088만 원으로 인근 시흥 시장현동 장현호반써밋 전용 84㎡형 최고 호가 12억 원의 40% 수준이다.

또 민간 분양주택은 청약가점제가 적용되지만, 공공분양주택은 순위순차제(무주택 기간 3년 충족 시 저축총액이 많은 순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는 방식)를 적용한다. 이 때문에 무주택 기간이 짧거나 부양가족이 적어 가점이 낮은 실수요자도 충분히 노력할 만한 셈이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집값이 계속 오르고 최근 전세대출까지 막히면서 주택 실수요자들이 공공분양주택으로 몰린 것 같다”며 “만약 공공주택 중도금 대출마저 장기간 막힌다면 자금력이 부족한 서민들은 주거 환경이 취약한 곳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는 만큼 정부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용욱 기자 dragon@

더 팍팍해진 ‘서울살이’

빌라 평균 월세 62만원

서울 빌라(연립·다세대주택) 월셋집에 거주하려면 평균 5683만 원의 보증금에 62만 원의 월세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14일 부동산 플랫폼 다방이 한국부동산원의 서울 빌라 평균 월세와 월세 보증금 추이를 조사한 결과 7월 기준 평균 월세는 62만4000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부동산원이 관련 조사를 시작한 2015년 7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서울 강북·도심권(종로·중·용산구)과 강남·동남권(서초·강남·송파·강동구) 빌라의 평균 월세는 각각 84만4000원과 88만8000원으로 서울 평균치를 웃돌았다.

은평·서대문·마포구가 포함된강북서북권(55만7000원)과 양천·강서·구로·금천·영등포·동작·관악구가 있는 강남 서남권(52만1000원)은 서울 빌라 월세 평균치보다 낮았다.

서울 빌라 7월 평균 전세보증금은 2억4300만 원으로 나타났다. 전월세전환율(전세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비율)이 4%라는 점을 고려하면 월세보증금이 1000만 원일 경우 월세는 78만 원까지 치솟는다. 올해 기준 4인 가구 중위소득(487만6290원)의 16%에 해당한다.

아울러 서울 빌라 평균 월세보증금은 5683만7000원으로 통계 집계 이래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전국 평균(2886만1000원)과 비교하면 약 두 배 높다.

경기지역도 월세와 보증금이 최고 수준에 이르렀다. 과천·안양·성남·군포·의왕시 등이 포함된 경기 경부1권 빌라 평균 월세는 전국 시·군·구 가운데 가장 높은 98만4000원이다. 서울 강남권보다도 높고 경기도 평균 월세(50만 원)의 약 두 배 규모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건설과수도권 3기 신도시 개발 여파로 집값이 크게 뛰자 전월셋집도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경부1권의 평균 월세보증금은 7394만9000원으로, 경기도 평균치(2730만5000원)의 2.7배에 달했다. 경의권(김포·고양·파주시)은 2722만9000원, 동부1권(남양주·구리·하남·광주시)은 2703만7000원으로 집계됐다. 정용욱 기자 dragon@

신림1 ‘오세훈표 신속통합기획’ 첫 적용… 13년 만에 재개발 탄력



오세훈 서울시장이 14일 서울 관악구 신림1재개발지구역을 방문해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공공’ 단어 제거 명칭 혼선 해소 정비구역 지정절차 ‘5년 → 2년’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신림1구역 정비사업이 오세훈표 ‘신속통합기획’(옛 공공기획) 도입으로 13년 만에 본격 탄력을받고 있다.

오세훈 서울 시장은 14일 신림1구역을 방문해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신속통합기획 도입 기획안을 발표했다.

신속통합기획은 민간 주도 개발에 공공이 계획과 절차를 지원하는 제도로, 공공재건축·공공재개발 등 용어상의 혼선을 해

소하기 위해 기존 공공기획에서 이같이 이름을 바꿨다. 명칭에 ‘공공’을 제거하면서 민간이 주도하고 공공이 지원하는 제도라는 점을 명확히 밝힌 셈이다.

신속통합기획은 서울시와 자치구, 주민(조합)이 하나의 조직을 이뤄 정비사업 프로세스를 통합된 기획으로 엮어내게 된다. 정비사업 초기 단계부터 공공이 주민을 지원함으로써 통상 5년 정도 소요됐던 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2년으로 단축시킬 수 있다. 사업시행과 설계자·시공사 선정 권한은 모두 주민에게 있다.

오 시장이 이날 방문한 신림1구역은 지난해 6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대상지로

선정돼 현재 정비계획을 수립 중이다. 2008년 재정비촉진구역으로 결정된 이후 13년 동안 사업이 정체되다 신속통합기획으로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신림1구역은 조만간 신속통합기획을 적용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확정해 열람 공고를 낼 계획이다. 특히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용적률이 230%에서 259%로 상당해 세대 수가 총 4240가구 규모로 늘어날 전망이다. 사업비는 1조537억 원으로 추산된다.

조합에 따르면 이르면 10월 시공사를 선정할 뒤 2024년 착공해 2027년 입주를 시작할 예정이다. 글/사진 이동욱 기자 toto@

검찰 ‘윤석열 장모 대응’ 문건 제작 의혹 논란

박범계 “‘고발 사주’ 의혹 의문점 해소될 수도”

대검찰청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가 연루된 사건에 대응하기 위한 문건을 만들었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더 조사가 돼야 한다”면서도 해당 문건과 작성 배경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의 의문점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14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 전체회의에서 대검이 윤 전 총장 장모 관련 문건을 작성한 게 맞느냐는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이날 세계일보에 대검이 지난해 3월 윤 전 총장의 장모 최모 씨가 연루된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내부문건을 만들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문건은 최 씨가 연루된 사건 4건의 현황을 정리했다.

이외 사건들도 포함해 시간 순서와 인물 별로 정리됐고 형사 처벌 전력, 사건 관계자 실명 등 개인정보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문건에 담긴 내용 일부는 일반인이 아닌 검찰 관계자만 알 수 있는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최 씨는 ‘피해자’, ‘투자자’ 등으로 표기됐다고 보도됐다.

보도 이후 여론을 중심으로 윤 전 총장을 위한 사적 정보수집에 검찰 정보라인이 동원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검이 작성했다는 자료가 사실이라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이 문건이 가리키는 것은 ‘고발 사주’ 의혹 사건에서 제가 처음부터 의문시했던 여러 정황”이라며 “(고발장이) 순전히 작성된 것이 아닌 여러 과정과 절차를 거쳐 작성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의 일정 부분을 반영한다”고 말했다. 이어 “고발장은 2019년 8월부터 2020년 4월까지를 연

급하고 있고 윤 전 총장의 부인과 장모 얘기가 나온다”며 “상당한 정보가 축적되지 않고는 작성할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찰 내지 정보의 수집이 있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전주에 국민의힘 의원이 “윤 전 총장의 기소를 내심 바라고 있는 것 같다”고 비판하자 “저 문서의 형식과 근거가 있는 문서인지 확인은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반박하기도 했다. 정수천 기자 int1000@



추모의집 철저한 방역 추석을 일주일 앞둔 14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시연화장 추모의집에서 직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대입 수시’ 작년보다 좁은 문

정시확대·고3 수험생 증가 영향
비수도권은 신입생 모집난 지속

서울 주요 대학의 2022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경쟁률이 지난해보다 크게 상승했다.

14일 각 대학에 따르면 13일 2022학년도 수시모집 원서접수를 마감한 고려대와 성균관대의 경쟁률은 지난해보다 큰 폭으로 높아졌다. 고려대 경쟁률은 14.6대 1로 9.5대 1이었던 지난해보다 올랐다. 성균관대도 21.2대 1의 경쟁률을 보인 지난해보다 상승한 24.3대 1로 집계됐다.

서울 주요 대학도 비슷한 추세를 기록했다. 12일 원서접수를 마친 서울대 수시모집 경쟁률은 6.25대 1로 5.63대 1이었던 지난해보다 높았다.

이외에도 △한양대(25.6대 1) △서강대(28.8대 1) △경희대(22.9대 1) 등도 비슷한 현상을 보였다.

다만 연세대 수시모집 경쟁률은 지난해(18대 1)보다 낮은 14.6대 1을 보였다.

임성호 종로학원하늘교육 대표는 “연세대 눈송 응시자가 약 1만 명 넘게 줄었다”며 “수능 전에 눈송을 보는 데 부담을 느낀

학생들이 지원을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입시 전문가들은 올해 서울 주요 대학의 수시 경쟁률 상승 원인으로 정시 확대 기조와 함께 고3 수험생 수가 지난해보다 늘어난 영향으로 분석했다.

교육부는 올해 입시부터 서울 16개 주요 대학에 정시모집 40% 이상을 권고했다. 대부분 대학은 정시모집을 확대하고 수시모집 인원을 줄였다.

지원자격이 졸업생까지 포함해 제한이 없었던 점도 주요 영향으로 꼽힌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장은 “입부 대학의 경우 졸업생을 포함해 지원자격에 별도로 제한을 주지 않은 것과 자연계열 학생들의 통합수능으로 인한 수능 최저학력기준 충족 가능성이 증가함에 따라 졸업생들의 적극적인 지원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비수도권의 신입생 모집난은 올해도 계속될 전망이다. 지난해 비수도권 대학의 수시모집 경쟁률은 5.6대 1이었다. 수험생 1명이 최대 6년까지 수시 지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입시 업계에서는 경쟁률 6대 1 미만의 사실상 ‘미달’로 간주한다.

손현경 기자 son89@

9년째 론스타 국제투자분쟁, 연내 결론 날까

2012년부터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진행 중인 5조 원대 국제투자분쟁(ISDS)이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중재판정부의 절차종료선언에 대비해 후속 대응방안을 마련 중이다. 절차종료가 선언되면 이르면 120일 이내 판정이 선고돼 연내 결론이 내려질지 주목된다.

법무부는 14일 론스타 등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 관련 합동 브리핑을 열어 “이 사건은 이미 서면 공방, 구두 심리 절차, 새 의장중재인 선임 후 질의 응답 기일 절차를 다 거쳤다”며 “전체 사건의 성숙도를 생각해본다면 다시 추가 기일을 잡을 가능성은 대단히 낮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론스타는 2007년 9월 HSBC에 외환은행을 매각하려 했으나 정부가 승인하지 않아 무산됐다.

론스타는 2012년 11월 외환은행의 투자금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해 손해를 입었다며 ISD를 제기했다. 론스타는 46억 달러(약 5조1480억 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한다. 이를 두고 청구 규모가 부풀려졌다는 의혹이 꾸준히 제기됐다.

론스타 사건의 주요 쟁점은 △청구인 적격 및 시적 관할 등 ‘관할 쟁점’ △의

중재판정부 절차종료 선언
이르면 120일 내로 판정 선고
정부, 후속 대응방안 마련 중

환은행 매각 승인 관련 ‘금융 쟁점’ △론스타에 대한 각종 과세 처분 관련 ‘조세 쟁점’ △론스타 주장하는 ‘손해액 산정 쟁점’ 등 4가지다. 론스타와 정부는 이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2013년 5월 중재판정부 구성이 완료된 뒤 양측은 서중 1546건, 증인·전문가 진술서 95건 등 방대한 증거자료를 제출해 서면공방을 벌였다. 2015년 3월부터 2016년 6월까지 4회에 걸쳐 심리기일이 진행된 뒤 심리는 2016년 6월 종료됐다.

그러나 중재판정이 이뤄지지 않다가 지난해 3월 기존 의장중재인이 사임해 절차가 정지됐다. 지난해 6월 윌리엄 이안 비니 전 캐나다 대법관이 새 의장중재인으로 선임돼 절차가 재개됐고, 중재판정부는 10월 14, 15일 이틀간 질의응답기일을 진행했다.

중재판정부가 절차종료를 선언하면 120일(최대 180일) 이내에 판정이 선고된다. 이르면 연내에 결론이 날 수 있

지만 최종 판단이 해를 넘길 가능성도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론스타 사건은 다양한 쟁점을 포함한 매우 복잡한 사건이고 제출된 서면과 증거의 양이 매우 방대하다”며 “현시점에서 판정 시기나 결론에 대해 선불리 예측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는 사건이 개시된 지 9년이 지났고 서면공방절차와 심리기일도 2016년 모두 마무리된 점을 고려해 판정 선고에 대비하고 있다.

중재 결과에 따라 불복 절차가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판약 판정 이후 취소 신청을 하게 되면 3명의 취소위원이 새로 선임돼 취소위원회 구성 후 판단하게 된다”며 “통상적으로 최소한 1년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밝혔다.

한편 론스타 사건 이후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된 ISD는 모두 9건이다. 이중 3건은 종료됐고 론스타를 비롯해 △엘리트 사건(2018년 제기) △메이슨 사건(2018년 제기) △선들러 사건(2018년 제기) △중국 투자자 사건(2020년 제기) △부산 투자자 사건(2021년 제기) 등이 진행 중이다.

정수천 기자 int1000@

‘불법 프로포폴’ 하정우 1심서 벌금 3000만 원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하정우(본명 김성훈·사진) 씨가 벌금 3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박철아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하 씨의 선고공판을 열어 검찰의 구형량보다 높은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8만 8700원을 명령했다. 박 판사는 “각 범행 죄질이 가볍지 않고 특히 대중에 사탕방는 배우로서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지난해 말 열린 1심 결심공판에서 “동종범죄 전력 없고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며

하 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구형하고 추징금 8만8749원을 명령해달라고 요청했다.

하 씨는 2019년 1~9월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수면 마취가 필요 없는 피부미용 시술을 받으면서 프로포폴을 19회에 걸쳐 불법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해당 성형외과 원장에게 지인의 인적사항을 건네줘 해당 지인이 프로포폴을 투약한 것처럼 진료기록을 9회에 걸쳐 허위로 기재하는 데 공모한 혐의도 받는다.

애초 검찰은 벌금 1000만 원에 약식기소했지만 법원은 사건을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구제지 수습기자 sunrise@



〈남양유업 회장〉

檢 ‘매일유업 비방 댓글’ 홍원식 약식기소

검찰이 매일유업 제품 비방 댓글을 올린 혐의로 남양유업의 홍원식 회장을 약식기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부(박현철 부장검사)는 14일 홍 회장을 업무방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법 등) 혐의로 벌금 30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남양유업도 양벌규정에 따라 입건돼 벌금 3000만 원에 약식기소됐다. 검찰은 회사 직원 2명과 흥보대행업체 대표 등 3명

도 각각 벌금 10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매일유업 제품을 비방하는 허위 글을 게시한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부분은 매일유업 측이 고소를 취소하면서 공소권 없음 처분됐다. 검찰 관계자는 “증거에 의해 지시 사실 등 공소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한편 형사2부는 남양유업이 자사 제품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다고 발표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고발된 사건도 수사 중이다. 정수천 기자 int1000@

“구민 삶의 질 높이기 위해 조속한 도시개발 필요”

區석區석

성장현 용산구청장

용산정비창 부지 국제 역량 강화
상업·문화·주거 복합시설로 조성
도심 한복판 공공주택 과잉공급 땀
교통·복지인프라 부족 심화 우려

“부동산 논리를 떠나 용산구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도시개발이 빨리 이뤄져야 합니다.”

수십년간 지지부진했던 용산 개발이 본격화하고 있다. 최근 용산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주민공람도 실시했다. 성장현 서울시 용산구청장은 “용산을 한국의 맨해튼으로 만들겠다”고 자신있게 말했다.

용산 지구단위계획 대상 지역은 용산역 일대와 남쪽으로는 한강변, 북쪽으로는 서울역 일대까지 포함한다. 남영동, 후암동, 용산2가동 등 8개동에 걸쳐 있는데 규모도 용산구 전체 면적의 16%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용산공원은 역사가 깃든 살아있는 박물관이고 우리들만의 것도 아니고 미래의 후손들이 살아갈 곳”이라고 말했다. 성 구청장이 용산역 아이파크몰에서 개발 부지를 둘러보고 있다. 사진제공 용산구

를 차지하고 있다.

서울시가 2001년 처음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했고 2010년 계획을 변경했다. 2016년 재정비 관련 용역이 진행된 결과가 올해 나왔다.

민선 5기부터 12년째 용산구청장에 재임하고 있는 성 구청장은 용산 개발에 대한 애정이 남다르다. 그는 “용산 개발은 국가 위상을 결정하는 중차대한 사

안”이라며 “용산공원 조성에 맞춰 녹지축을 동서로 연결하고, 경부선 지하화 프로젝트까지 용산지도를 넘어 서울지도를 바꾸는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용산정비창 부지는 국제적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발해 대한민국 랜드마크로 기존 국제업무단지 기능을 유지하며 국제 업무·상업·문화·주거시설 등을 포함한 복합시설로 조성할 예정이다.

성 구청장은 용산정비창과 캠프김 부지에 대한 정부의 주택공급안과 관련해서는 “잘못된 얘기”라고 일축했다.

그는 “서울 한복판에 공공주택이 과도하게 공급되면 교통, 복지 인프라 부족 등 문제가 심각해진다”고 우려했다. 이어 “용산공원은 역사가 있는 살아있는 박물관이고 우리들만의 것도 아니고 미래의 후손들이 살아갈 곳”이라며 “온전한 공원을 만들어 부끄러움 없는 땅을 물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부선 지하화에 대해서는 “서울역에서 용산까지 가는 국철을 지하화하는 것은 건설사에 공사를 맡기고 필요한 만큼 철도 부지를 제공해서 수십년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 비용은 많이 들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철도 지하화는 용산구 힘만으로 추진하기 힘들다”며 “국토교통부가 사업비 등을 이유로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으나 서울시와 뜻을 모아 정부를 설득하고 당면 문제들을 하나씩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건희 미술관’ 건립 후보지 중 하나로 용산을 선정했다.

용산가족공원 내 문체부 소유 부지 활용 방안도 제시했다.

성 구청장은 “교통과 문화 시너지에서 용산을 넘어설 수 있는 곳은 없다”며 자신감을 보였다. 그는 “KTX, 신분당선, GTX, 공항철도 등 모든 철도가 용산으로 들어온다”며 “국립중앙박물관, 한글박물관, 전쟁기념관 등 20여 개에 달하는 용산의 크고 작은 박물관들과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최일선에서 주민들과 소통하며 구정을 이끌어 가는 구청장의 고민도 털어놨다. 성 구청장은 “정직인들은 본인들이 익에 따라 파를 나누며 구민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상처를 주는 경우도 있다”며 “이럴 때 지방자치단체장들은 구민과 공감대를 형성해 신뢰를 쌓고 전체를 안고 가야하는 노력이 더 필요해진다”고 토로했다.

성 구청장은 임기 마지막까지 지구단위계획 완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임기 전 서울시와 협의해서 지구단위 계획을 완성시켜야 다음 구청장이 어려움 없이 개발에 속도를 붙일 수 있다”고 말했다. 박은평 기자 pepe@

노원구 ‘해체 공사장 안전 가이드라인’ 마련

안전강화대책 등 홈페이지 게재

서울 노원구가 공사장 붕괴사고 예방 등을 위해 해체공사장 안전관리 가이드 라인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노원구는 전국 최초로 ‘해체계획서 작성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배포한다. 기존 서울시 ‘해체공사장 안전관리 강화대책’을 현장에 맞게 구체화했다. 상주감리 강화 등 노원구만의 강화대책도 담았다.

공사장 안전사고를 방지하는 방안들이 주요 내용이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기

존보다 강화된 안전 강화 대책을 내놓았지만 대다수 영세 해체 업체들이 강화된 해체계획서를 수립하기에 역부족이다.

이에 노원구는 강화대책과 각종 매뉴얼을 참고, 전문가 자문을 거쳐 해체 허가과 신고를 위한 해체 계획서를 작성하려는 사람이 참고할 수 있도록 구 홈페이지에 건물 해체계획서를 올려놓았다.

아울러 △‘계획 따로 시공 따로’의 폐단을 미리 차단하려는 방안 △‘상주감리’의 무화 대상도 확대 △해체공사 단계별 필수 확인 내용을 설정 등 관련 내용을 구체화

해 해체 공사장 안전 관리를 강화한다.

노원구 관계자는 “건축물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2019년에는 ‘노원구 건축 안전센터’를 설치했다”며 “2022년 말까지 토목 시공기술사, 건설안전 기술사 등 전문인력을 추가로 배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오승록 구청장은 “최근 발생한 해체공사장 관련 사고는 되풀이되면 안되는 비극”이라며 “해체공사자 계획부터 완료까지 일련의 과정들에 대한 세심한 점검과 안전 강화로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홍인석 기자 mystic@

동작구 “안전한 귀갓길 조성” ‘비상벨 LED 안내판’ 설치

서울 동작구가 안전한 귀갓길 조성을 위해 ‘CCTV·비상벨 LED안내판’ 구축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

‘CCTV 및 비상벨 LED안내판’은 발광 다이오드(LED)를 탑재해 야간 시인성을 개선했다. 야간에도 안내판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어 위급 상황 시 비상벨을 찾아 신고할 수 있다.

동작구는 여성안심귀갓길과 범죄예방 환경설계 기법으로 설치한 폐쇄회로(CC)TV를 우선 설치 대상으로 선정했다. 설치

지점은 △방범 △어린이 보호 구역 △그린 파킹 구역 △공원 등 총 168개소로 11월 말까지 설치 완료할 계획이다. 동작구 관계자는 “기존 CCTV와 비상벨 안내판에 조명이 없어 보행자가 야간 인식의 어려움이 있었다”며 “LED 안내판 설치가 끝나면 어두운 골목길을 오가며 느껴야 했던 불안감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연말까지 사업비 8억 원을 투입해 △관내 막다른 골목길 △범죄 취약지역 △어린이 보호구역 등에 200만 화소의 고화질 CCTV 32대를 신규설치 할 예정이다. CCTV 확충으로 범죄를 예방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홍인석 기자 mystic@

__& 굿네이버스 30

모두가
굿네이버스

굿네이버스는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세상을 꿈꿉니다.
아이들이 행복한 미래를 꿈꾸고
희망을 노래할 수 있도록
한국에서 세계로 이어진 30년.

세상 모든 아이들 편에서 함께한
모두가 굿네이버스입니다.



굿네이버스는 1991년 한국에서 설립되어 국내, 북한 및 해외에서 굶주림 없는 세상,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전문사회복지사업과 국제개발협력사업을 활발히 수행하고 있는 글로벌 아동권리 전문 NGO입니다.

BIG BANG®

Class가 다른 상위 0.1%를 위한 브랜드

세계 최경량 세계 최고 고반발 장타 설계기술력 - **뱅골프**®

최대 50yd 더 나가는 제3의 기술

지금까지는 세계 톱 프로만 누리던 2단계의 클럽 최적화

뱅골프의 진화된 3단계 최적화 기술로

아마추어 골퍼도 완벽하게 나에게 맞는 클럽을 사용할 수 있는 시대를 열었습니다

세계 어느 골프업체도 하지 못한

3단계 최적화 기술로

골프 클럽의 역사를 바꾸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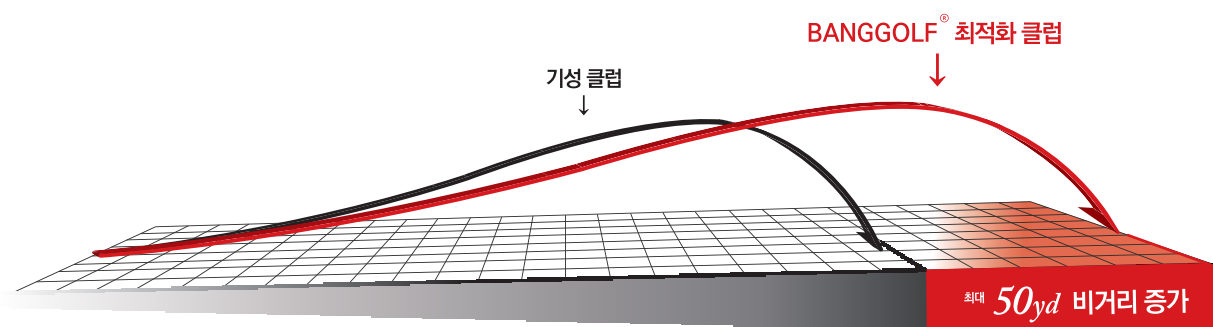
모든 클럽 업체가 여자용은 단 1개의 스펙, 남자용은 6-9개의 스펙뿐이라서

모두 똑같은 스펙의 클럽을 사용하는 잘못된 공급과 구매를 반복해 왔습니다

뱅골프는 10,368,000개의 스펙을 보유하고

귀하에게 딱 맞는 사양의 클럽을 만들어 드립니다

상위 0.1% VVIP 고객을 위한 골프클럽 최적화 서비스



골프 클럽 3大 기술

세계 최고 고반발 기술 + 세계 최경량 기술 + 3단계 최적화 기술



“별명은 ‘자석’ … 고객들이 ‘이모’라 부르며 소통해요”

전장분 hy 동두천점 프레스매니저

“10년, 20년 장기고객 늘려 65세까지 희로애락 함께 하고파”
청소년 무보수 상담 봉사…지역사회 봉사상도 수차례 수상

사소한 물건도 로켓처럼 빠르게 배달해 준다는 ‘배송혁명’ 시대에도 원류(源流)는 있다. 현관 문고리에 걸린 바구니 혹은 우유 투입구에 누군가 놓고 간 야쿠르트다. ‘누군가’에 해당하는 운반책은 전국 방방곡곡 배송망 최전선에 모세혈관처럼 퍼져 있는 일명 ‘야쿠르트 아줌마’, ‘프레스매니저’다. 온갖 먹거리가 가득 담긴 그 시절 보냉 가방은 현재 전기 구동차 ‘코코’로 진화해 이들과 함께 배송의 역사를 잇고 있다.

전장분(44·사진) hy 동두천점 프레스매니저도 그 주인공 중 한 사람이다. 전 매니저는 요즘 말로 ‘인싸’(인사이더)다. 남의 말을 잘 들어주고 말 붙이기도 좋아해 늘 인기가 좋았던 그는 지금도 아파트 통장을 도맡을 정도로 외부활동에 적극적

이다. 청소년 상담 봉사를 시작한 계기도 자녀 학부모 총회 참석차 학교를 오가던 중 교장 선생님의 눈에 띄어서였다. 그는 “한때 교사를 꿈꿨을 만큼 아이들을 좋아하다 보니 교장이 어느 날 청소년 상담 봉사를 권하더라”면서 “그렇게 무보수로 일한 게 어느덧 10년이 넘는다”고 말했다.

주부와 청소년 상담 봉사를 하며 비교적 평탄했던 전 매니저의 일상에 균열이 생긴 건 2018년이다. 6·25 전쟁에 참전했을 만큼 용맹했던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면서다. 7남매에 위로 오빠만 여섯, 늦둥이 딸이던 전 매니저가 오롯이 돌봄을 책임졌다. 프레스 매니저를 알게 된 것도 그때였다. “어머니 요양을 돕고 시간을 자유롭게 쓰면서 돈도 버는 직업이었다”면서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야쿠르트 매니저 합격



전화를 받았다”며 그는 눈시울을 붉혔다.

프레스 매니저로서 생활은 승승장구였다. 동두천점 매출은 그가 입사한 뒤 월 200만 원에서 800만 원 이상으로 4배가 뛰었다. 우수관리점에 뽑혀 상까지 받아 ‘로또 1등에 당첨된 대리점’ 일등공신으로 불릴 정도다. 비결은 특유의 친화력과 오

랫동안 해온 상담봉사다. 그는 “남의 말을 듣고 대화하는 일을 하다 보니 고객들도 ‘이모’라고 부르며 소통한다”면서 “봉사시간만 1000시간이 넘어 경기도교육감상, 대한적십자상, 최근에는 양주시장상까지 받았다”고 귀띔했다.

그렇다고 위기가 없었던 건 아니다. 한 고객으로부터 소통 불찰로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들었을 때였다. 전 매니저는 “당시 상처가 컸던 탓에 일을 관둬야 하나 싶은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었다”고 회상했다. 그는 “점장님, 동료들이 많은 힘이 되줬다. 프레스 매니저를 구성원으로서 소중히 대한다는 느낌을 받아 업무에 복귀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주변 사람들이 마구 달라붙어 별명이 ‘자석’이라는 전 매니저는 65세까지 프레스 매니저를 계속하는 게 꿈이다. 그는 “단기 고객보다는 10년, 20년 장기고객을 늘려 65세까지 이들과 희로애락을 함께 하고 싶다. 고객들의 경조사나 결혼식 등에 초대해 함께 울고 웃을 수 있다면 참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혜지 기자 heyji@

최재해 감사원장 후보자 지명
개원 58년 만에 첫 내부 출신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감사원장 후보자에 최재해 LS전선비상임감사를 지명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사퇴로 공석이 된 지 2개월여 만이다.



최재해 감사원장 후보자는 지난 1989년부터 줄곧 감사원에 몸담아온 감사 전문가로, 1963년 감사원 개원 이후 감사원 내부 출신 인사가 원장 후보로 지명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최 후보자는 동국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와 성균관대 행정학과를 졸업했다. 행정고시 28회로 공직에 입문한 뒤 감사원에서 기획관리실장과 제1사무차장, 감사위원 등을 지냈다.

청와대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은 “최 후보자는 감사 전문가로서 감사행정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 법과 원칙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합리적 리더십, 뛰어난 조직관리 능력을 두루 갖추고 있어 대내외에 신망이 두텁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된다. 정일환 기자 whan@

김밥 장사로 모은 전재산 기부하고 장애인 봉사

박춘자 할머니 등 5명 ‘LG의인상’

LG복지재단은 김밥 장사로 평생 모은 전 재산을 기부하고 40여 년간 장애인들을 위해 봉사해온 박춘자(92) 할머니에게 ‘LG의인상’을 수여했다고 14일 밝혔다. 15년째 휴일마다 폐품을 수집해 그 수익금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한 최복동(58) 소방위, 익사 위기에 처한 이웃의 생명을 구한 김현필(55) 경위, 이한나(36) 씨, 정영화(31) 소방교도 ‘LG의인상’ 수상자로 선정했다.

박춘자 할머니는 열 살 무렵부터 50여 년간 매일 남한산성 길목에서 등산객들에게 김밥을 팔아 모은 전 재산 6억3000만 원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 모두 기부했다. 박 할머니는 3억3000만 원을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 3억 원은 장애인 거주시설인

‘성남작은예수집’ 건립금으로 쾌척했다. 이에 앞서 그는 마흔 살 무렵부터 40여 년간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들을 위해 봉사 활동을 하기도 했다. 60대에 김밥 장사를 그만둔 후에는 11명의 지적 장애인들을 집으로 데려와 20여 년 간 친자처럼 돌봤다.

전남 담양소방서 최복동 소방위는 15년째 휴일마다 폐품을 수집한 수익금으로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을 돕고 있다. 2006년부터 휴일마다 폐품을 수집해 매년 600만~700만 원의 수익금을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기부해왔고, 기부금은 어느덧 1억 원이 넘었다.

경북 포항남부경찰서 김현필 경위는 지난달 8일 야간 근무 중 30대 남성이 실종



박춘자 할머니



최복동 소방위



김현필 경위



이한나 씨



정영화 소방교

됐다는 신고를 받고 실종자의 휴대폰 GPS에 마지막으로 잡힌 형산강 섬안콘다리로 출동했다. 김 경위는 어둠 속에서 사람의 비명을 듣자마자 구명환을 끼고 10m 높이의 다리에서 물에 뛰어들어 30대 남성을 구조했다.

이한나 씨는 지난달 4일 오후 6시경 두 자녀와 함께 전남 완도군 보길도 중리 해수욕장을 찾았다. 바닷물이 썰물로 바뀌며 어린이 두 명이 조류에 떠밀려가는 것을 목격한 이 씨는 50m를 헤엄쳐 탈진한 초등생 형제가 매달려 있던 튜브를 해변으로 끌고와 구조했다. 송영록 기자 syr@

대구동부소방서 정영화 소방교는 지난달 2일 오후 1시경 경북 포항 흥남해수욕장에서 휴가를 보내다 얕드린 채 바다 위에 떠 있는 한 남성을 목격했다. 사람이 물에 빠졌다는 것을 확인한 정 소방교는 망설임 없이 바다에 뛰어들어 그를 끌어냈으나 남성은 심정지 상태였다. 정 소방교는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10여 분간 119 종 합상황실 요원과 통화를 하며 심폐소생술을 이어갔다. 남성이 병원으로 이송될 때에는 스스로 호흡이 가능할 정도로 상태가 호전됐고, 이후 나흘 만에 의식을 되찾았다. 송영록 기자 syr@

‘부인 폭행 물의’ 벨기에 대사 후임
한국인 부인 둔 프랑수아 봉팡 임명



신임 주한 벨기에 대사에 프랑수아 봉팡 벨기에 외교부 조정국장이 임명됐다.

14일 주한 벨기에 대사관에 따르면 봉팡 대사는 3일 한국인 부인 최자현 씨와 입국했다.<사진> 봉팡 대사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주한 대사를 지낸 인물로, 이후 주불가리아 대사와 외교부 조정국장을 거쳐 다시 한국에 복귀했다. 봉팡 대사는 “제 아내와 함께 사랑하는 대한민국으로 다시 돌아와 일하게 돼 기쁘다”며 “군건한 기반과 긴 역사로 다져진 우정 속에서 함께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싶다”고 밝혔다.

한편 전임 대사는 부인이 한국에서 두 차례에 걸쳐 폭행 사건에 휘말린 후 본국으로 소환됐다. 당시 벨기에 외교부는 “대사 부인이 사건을 벌인 후 7월 벨기어로 복귀하기로 합의했다”며 “한국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고 싶은 우리의 바람이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고대영 기자 kodae0@

여의도순복음교회 설립자 조용기 목사 소천

여의도순복음교회 설립자인 조용기 목사가 향년 86세의 일기로 소천했다.

고인은 1936년 경남 울산 울주군에서 태어났다. 전통적인 종교문화 속에 자라다가 1950년 한국전쟁이 터지면서 부산으로 피난을 떠났다. 가난한 환경 속에서 사춘기를 보내다 고교 2학년 때 폐결핵을 앓으며 사망 선고를 받기도 했다. 병상에서 그는 누나 친구로부터 처음 복음을 접한 것으로 전해진다.

기적적으로 건강을 회복한 조목사는 1956년 하나님의성회 순복음신학교에 입학했다. 이후 최자실 목사를 만났고, 두 사

람은 1958년 5월 서울 은평구 불광동에서 여의도순복음교회 시조인 천막교회를 개척했다. 이후 건강을 회복한 그는 성장을 거듭했고, 교인 70만 명이 넘는 세계 최대 교회로 기네스북에 등재되기도 했다.

1988년 일간지 국민일보를 설립하고 기독교 목소리를 사회에 전파했으며, 이듬해 비정부기구(NGO)를 세워 인권, 환경, 아동복지 증진 등에 힘썼다.

부인 고(故) 김성혜 전 한세대 총장은 올해 2월 먼저 세상을 떠났고, 유족으로는 세 아들이 있다.

빈소는 여의도순복음교회 베다니홀에



차려졌다. 장례예배는 18일 오전 8시 여의도순복음교회대성전에서 한국교회장으로 치러진다. 하관예배는 당일 오전 10시 장지인 경기 파주시 오산리최자실국제금식기도원 묘역에서 진행된다. 박선현 기자 sunhyun@

인사

- ◆환경부 <과장급 전보> △한강유역환경청 유역관리국장 신동인 △낙동강 <유역관리국장> 남병인 △영산강 <환경관리국장> 염경섭 △낙동강 <환경감시단장> 윤봉희 △국립생물자원관 전략기획과장 이지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장 신지형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거래심판단 당관 황태호 △혁신행정법무담당관 심재식 △디지털조사분석과장 음잔디
- ◆우정사업본부 <4급(서기관) 승진> △

경영총괄담당관실 황숙연 △국제사업과 유태복 △예금위협관리과 문근석 △보험기획과 유병록 △보험위협관리과 김세웅 △보험사업과 김장욱 △감사담당관실 김덕원 △준법감시담당관실 김은아

◆중앙그룹 <중앙홀딩스> △그룹부동산총괄(사장 승격) 인재권 <중앙일보> △편집인(부사장 승격) 최훈 <JTBC> △대표이사(전무 승격) 이수영 △대표이사(전무 승격) 아규연 <JTBC스튜디오> △대표이사(부사장 승격) 정경문 <메가박스> △대표이사(전무 승격) 겸 제이콘텐트리 대

표이사(내정) 홍정인
◆포춘코리아 △대표이사 이훈

부음

▲윤명숙 씨 별세, 한재준(신한라이프 PREMIER익산지점장) 씨 모친상 = 14일, 서울성모병원장례식장 14호실, 발인 16일 오전 7시 30분, 02-2258-5940
▲이재관 씨 별세, 이창진(프로야구 KIA 타이거즈 선수) 씨 부친상 = 13일, 경북 안동시 용상안동병원 장례식장 특실, 발인 15일 오전 9시, 054-840-1004

롯데그룹 디자인경영센터 신설
센터장에 배상민 카이스트 교수

롯데그룹은 롯데지주 내 디자인경영센터를 신설하고, 초대 센터장으로 카이스트 산업디자인학과 교수 출신의 배상민 사장을 선임했다고 14일 밝혔다.



배 사장은 1971년생으로, 세계적 디자인 명문인 뉴욕 파슨스디자인스쿨 및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디자인을 전공했다. 1998년 27세 때 동양인 최초이자 최연소로 파슨스디자인스쿨의 교수가 됐다. 2005년에는 한국에 돌아와 카이스트에 사회공헌디자인연구소를 만들어 디자이너 제자를 양성해왔다. 배 사장은 레드닷(독일), iF(독일), IDEA(미국), 굿 디자인(일본) 등 세계 4대 디자인어워드에서 40회 이상 수상한 국내 최고의 디자인 전문가다.

앞서 롯데는 8월 롯데지주 내에 신사업 추진을 위한 조직을 강화하고 관련 전문가들을 영입한 바 있다. ESG 경영혁신실 산하에 헬스케어팀, 바이오팀을 신설하며 40대 상무급 임원들을 팀장으로 임명했다. 헬스케어팀을 이끄는 우용조 상무는 2014년 11월부터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 헬스 서비스 및 플랫폼 업무를 수행했다. 바이오팀장인 이원직 상무는 2010년 삼성전자 사업추진단에 합류, 삼성바이오로직스 품질팀장을 거쳐 DP사업부장을 역임한 바 있다. 안경무 기자 noglasses@

GC녹십자, 김지현 사업개발본부장

GC녹십자는 김지현(46) 사업개발본부장을 영입했다고 14일 밝혔다.



김 신임 본부장은 중앙대학교 약학대학에서 학사와 석사 학위를 취득한 이후 종근당 및 한국로슈 등 제약사에서 사업개발 관련 업무를 담당했으며, 다국적 제약사 에자이의 한국 및 아시아 지역의 사업개발본부장을 지냈다.

김 신임 본부장은 앞으로 신약 파이프라인 확충 및 글로벌 협력 활동 전략 수립 등의 업무를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

유혜은 기자 euna@

유럽은 지금



김현정

동아대 국제전문대학원 교수

EU는 무역과 노동, 인권 연계에 보다 장기적이고 제도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유럽의회는 올해 초 노동권 및 인권침해, 환경훼손 등의 방지를 위한 포괄적 영역에 대한 기업의 공급망 실사 의무 지침을 채택하였다. 이 지침은 EU 내 설립·운영되는 기업에 대해 역내·외 전체 가치사슬의 광범위한 환경, 사회 및 기업 지배구조(ESG) 실사 요구사항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낮은 수준의 노동기준을 가진 국가가 통상관계에서 불공정한 이익을 얻어 왔는가?’

미국과 유럽은 오랜 기간 국제통상과 노동기준의 연계 방안에 대해 논의해 왔다. 이런 국제사회의 깊은 고민은 이미 18세기 말부터 존재해 왔다. 이에 대한 다자주의적 접근은 1919년 1차 세계대전 종전 후 전범국 처리를 위해 독일과 연합국 사이에 체결된 베르사유 조약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조약 제13장을 토대로 설립된 국제노동기구(ILO)는 오늘날 가장 오래된 국제기구로서 노동권한의 범위와 기준을 제시해 왔다. 이후 1947년 탄생한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은 좁은 의미의 무역-노동 연계 사항만 규율하고, 대부분의 노동 문제를 ILO에서 다루도록 하는 이분화 체제를 만들었다.

1995년 설립된 세계무역기구(WTO) 내 ‘블루라운드’에서는 무역과 노동, 인권 연계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하였다. WTO와 ILO는 강제노동 금지, 최수노동 금지, 아동노동 금지, 노조활동 자유 등과 같은 인권 및 노동기본권과 관련된 문제들에 대해 보편화된 노동기준을 제

노동과 인권이 보장되는 무역

시하고자 한다. 하지만 두 기구의 무역과 노동 연계에 관한 목적과 의도에는 사뭇 차이가 있다. WTO 블루라운드에서는 통상의 범주에서 ‘국제무역, 투자와 노동기준이 상호 어떤 관계를 갖는지’에 대해 논의되었다. 이 회의에서는 노동기준과 통상을 연계하여 국제 근로기준을 제시하고, 이의 이행 여부에 따라 혜택 혹은 불이익을 주어야 한다는 논의가 진행되었다. 즉, 각국의 근로조건을 국제적으로 표준화하여 열악한 근로조건하에서 생산된 개도국 상품에 ‘불공정 경쟁(Unfair Competition)’으로 판정하고 무역제재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후발 개도국들은 각국의 사회·경제적 여건에 따라 노동기준이 상이할 수밖에 없음을 주장하였고, 경제발전 정도나 노동시장 구조, 역사·문화적 배경이 다른 나라에 동일한 노동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무려 한 세기에 걸친 무역과 노동, 인권 연계에 관한 다자적 논의의 한계를 직시한 미국과 유럽은 새로운 수단과 방식을 통해 문제에 접근하고 있다. 미국은 특정 국가의 사례를 지목하여 즉각적이고 강제적인 조치를 통해 해결하는 방식을 선호한다.

90년대 후반 캄보디아를 필두로 베트남, 인도네시아, 요르단, 리소토, 아이티, 니카라과 등에서 시행된 ‘더 나은 노동 프로그램(Better Works programme)’을 통해 미국-개도국의 쌍무적 관계에 노동기준 개선 감시를 위해 ILO를 연계시키는 복합적 무역-노동-인권 연계 전략을 취한 바 있다. 이러한 협력 파트너십 구축을 통한 접근과 동시에 미국은 노동·인권 착취 생산품에 대한 인도보류명령(WRO) 부과로 즉각적 처분을 진행해 왔다. WRO는 미세관에서 규제 대상 물품을 압류하고, 일정기간 내에 수출기업이 이를 회수하지 않을 경우 직권파기 처분하는 조치이다. 올해 초 미 행정부는 중국 신장(新疆) 지역 소수민족인 위구르족에 대한 인권 탄압을 이유로 신장산 면화 제품과 토마토에 대한 수입 제한 조치를 단행하였으며, 이어 6월 신장의 태양광 발전 부품에 대해서도 수출입을 규제하였다. 동시에 주요 7개국(G7) 회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국제연합(UN) 등과 함께 해당 문제에 대한 공동 포위망을 구축하였다.

유럽연합(EU)은 무역과 노동, 인권 연계에 보다 장기적이고 제도적인 해결 방안

을 모색하고 있다. 유럽의회는 올해 초 노동권 및 인권침해, 환경훼손 등의 방지를 위한 포괄적 영역에 대한 기업의 공급망 실사 의무 지침을 채택하였다. 이 지침은 EU 내 설립·운영되는 기업에 대해 역내·외 전체 가치사슬의 광범위한 환경, 사회 및 기업 지배구조(ESG) 실사 요구사항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U 진출기업 및 수출기업은 자체 사업뿐 아니라 계열사, 나아가 부품을 공급받는 기업에 대한 ESG 실사 의무를 지게 된 것이다. 대상 기업은 공급업체 및 서비스 제공업체에 대한 독립 감사, 계약에 대한 추가 약속, 행동강령 준수 요구 사항 등의 결과 게시, 구현 및 보고의 의무를 진다. 이 지침은 올해 말이나 내년 채택될 것으로 예상되며, 채택 이후 2년 이내에 회원국 국내법으로의 조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제 우리나라도 무역과 노동 연계에 대해 단순히 외압이나 국제 흐름에 대한 대책을 넘어 ESG 부문 선도 역량을 갖춘 국가로 변모할 필요가 있다. 우리 기업과 관련 학계는 발 빠르게 이에 대한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 산·관·학 조직을 통해 ESG 관련 포괄적 정책을 입안해야 할 때이다.

조여린의 벤처 만들기

미국 뉴스쿨 학장·
파스스 디자인스쿨
경영학과 중신교수



소시오테크(socio-tech)를 어떻게 한국어로 번역할까 고민하다가 마땅히 대치할 단어가 없음을 느꼈다. 공영기술라고 하기도 좀 이상하고 공공기술이라고 하기도 적당하지 않은 듯하다. 왜냐하면 이도 결국 혁신 특허기술을 이용하여 이윤활동을 하는 벤처이기 때문이다. 전 세계적으로 관심이 커지고 활발한 벤처 활동이 진행되고 있는 소시오테크 혁신은 다소 생소하지만 아주 획기적인 예가 많아 재미있기도 하고 우리의 시야를 넓혀주는 데 좋은 주제이기도 하다. 소시오테크의 개념은 환경(Environment), 공평(Equality), 권한(Empowerment)과 집단(Community)의 네 가지 축을 증진시키는 기술이라 보는 것이 적당하겠다. 오늘은 우선 환경에 대해 논의하고, 나머지 세 축은 다음 기회에 살펴보고자 한다.

지난날 인류의 생산과 소비가 지구 환경을 적박하게 만든 것에 대한 보복적 기후위기 현상에 대응하고, 다음 세대를 위해 보다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보전하고자 하는 노력은 여러 산업군에서 볼 수 있다. 글로벌 대기업은 물론이고 소규모 제조기업들도 친환경적 생산과 폐기를 위해 많은 혁신이 진행되고 있다. 이 중 친환경적 소비변화를 가장 쉽게 느낄 수 있게 하는 예가 전기자동차이다. 이제는 전기차가 해결할 수 있는 탄소 문제뿐 아니라 전기차가 가지는 다른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에도 친환경적으로 다가가는 노력이 전개되고 있다.

전기차는 사실 너무 조용해 길 가는 사람들이 차가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 이에 사람들이 미처 파악 못해 보행자 사고가 더 많이 생길 수 있는 위험이 있다. 이런 위험을 줄이기 위해 미국과 유럽 국가에서는 전기차가 사람에게 다가갈 때 작은 소음을 인위적으로 발

생시키는 구상을 하고 있다. 이 소음이 어느 정도 레벨로 되어야 충분히 보행자에게 도움을 주는지, 이런 소리가 오히려 환경 소음이 되는 것을 어떻게 막을지가 중요 이슈이다. 일본 도요타와 우루과이의 아약스라는 회사가 함께 진행하는 벤처는 전기차가 보행자에게 다가갈 때 내는 소리를 이용하여 나무를 키우는 기술을 찾고 있다. 인위적인 소음에서 적절한 대역폭과 주파수를 찾아내면 나무가 더 건강하고 빠르게 클 수 있다는 것이다. 즉, 환경오염을 줄이는 것을 넘어 기술을 이용하여 환경생태를 증진시키는 아이디어이다.

오염을 줄이는 방법도 보다 친환경적으로 접근하려는 벤처들이 뜨고 있다. 예를 들면 중국 진안에 산동취오빈농업기술회사라는 곳이 있다. 이 회사의 주모델은 매일 산처럼 쏟아져 소각장에서 태워지며 대기오염을 높이는 음식 찌꺼기를 바퀴벌레가 먹게 하는 기술로 환경오염을 줄이는 방법이다. 특히

생활 속에서 버려지는 엄청난 양의 음식 쓰레기에서 플라스틱이나 쇠, 유리 등을 제거한 후 바퀴벌레가 쉽게 처리할 수 있게 한다. 조금은 황당할 수도 있으나 철저히 관리되는 바퀴벌레 사용 공정은 매우 경제적이고 친환경적인 방법이다. 특히 죽은 바퀴벌레는 갈아져서 단백질 사료나 유기농 비료로 처리되어, 여러 공해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비료 생산도 줄이고 있다.

여저 생각하면 거부감이 있을 수 있으나, 이 사례를 통해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소시오테크가 반드시 최첨단 인공지능 기술에만 의존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사실 도움이 필요한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기본적인 과학기술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고, 첨단기술을 인프라로 이용해도 운영에 필요한 인력이 없는 경우도 허다하다. 따라서 실제 효과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첨단기술보다 적합기술에 대한 고려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하겠다.

이투데이, 말투데이

☆아가사 크리스티 명언
“성공은 하나밖에 없다. 자기방식대로 사는 것이다.”
‘추리소설의 여왕’이라고 불리는 영국 작가. 80여 편의 작품이 영어권에서 10억 부 이상, 100여 개 다른 언어로 출간된 번역본도 10억 부 이상 판매돼 기네스 세계 기록에 올랐다. 오늘은 그녀의 생일. 1890-1976.

☆ 고사성어 / 주관방화(州官放火)
‘주관이 불을 놓다’라는 말이다. 관리나 상급자가 백성들이나 아랫사람의 자유와 권리를 묵살하고 일삼는 전횡을 비유한다. 육유(陸游)의 노학암필기(老學庵筆記)가 원전. 송나라 주관(州官: 지방장관) 전등(田登)은 백성들이 자기 이름과 발음이 같은 등(燈) 자를 입에 올리지 못하게 했다. 상원절(上元節: 정월 대보름) 밤 방화등(放花燈)을 켜는 공고문에도 ‘등불 켜다(放燈)’ 대신 ‘불을 놓는다(放火)’라 쓰게 했다. 사람들이 ‘주관의 방화만 허용되고 백성들이 등불을 켜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只許州官放火 不許百姓點燈]’라며 비꼰대서 유래했다.

☆ 시사상식 / 신용점수제
개인 신용을 등급이 아니라 실제 신용 상태를 적용해 1~1000점 사이의 점수를 부여하는 제도.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됐다. 종전 1~10등급으로 나누는 신용등급제가 등급 구간 안에서 상위 등급과 신용도가 유사해도 등급 차이로 대출 심사에 불이익이 발생한다는 문제가 있어 이 문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됐다.

☆ 고운 우리말 / 바리
한 분야에 집중하는 사람을 낮추어 부르는 순우리말로 ‘악바리’, ‘군바리’처럼 쓴다.

☆ 유머 / 술꾼의 독백
골목길에서 한밤중에 술 취한 남자가 전봇대를 붙잡고 돌면서 손으로 더듬어가며 중얼거렸다. “이런 이런! 어떡하지? 벽 속에 완전히 갇히고 말았네!”
채집/정리:조성권 국민대 경영대학원 객원교수, 맛있는 삶 연구소장

기자수첩

박진산 금융부/jinsan@



흠어지면 산다

달라는 취지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가상자산 업계가 신고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한 마음 한 뜻을 모으기로 한 것이다. 그런데 당시 간담회에는 코인원과 코빗 측 대표는 명패만 놓고 참석하지 않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코인원과 코빗, 빗썸은 거래물 합작 법인을 공동으로 세웠고 결국 은행으로부터 실명확인계좌를 받아 신고

서를 제출했다.
또 며칠 뒤 4대 거래소를 제외한 나머지 중소형 거래소만 모여 성명서를 냈다. 앞서 진행한 간담회처럼 실명계좌 발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여기엔 그동안 업계의 입장에 힘을 넣어준 4대 거래소의 이름은 없었다.
계다가 그나마 신고서를 제출할 가능성

‘무야홍’ 바람과 대선후보 역선택

야당 대선 경선 쟁점인 역선택은 원래 경제학 용어다. 자기에게 유리하게 하기 위해 상대방이 불리한 선택을 하도록 하는 행위다. 2001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조지 애컬로프의 레몬마켓에서 나온 용어다. 레몬마켓은 판매자와 구매자의 정보력 차이로 낮은 품질의 제품만이 유통되는 시장이다. 구매자는 평균값에 제품을 구매하려 하지만 상대적으로 정보가 더 많은 판매자는 저품질의 상품을 평균값에 팔려고 한다. 역선택의 결과로 시고 맛있는 레몬만 시장에 나오게 된다. 결국 구매자는 저질 상품을 선택할 가능성이 커진다.

정치에서 역선택은 자기가 지지하는 정당의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상대 당의 약체후보를 밀어주는 불공정 행위다. A 정당 지지자들이 B정당 경선이나 여론조사에 개입해 고의적으로 경쟁력이 없는 후보에게 표를 던지거나 지지의사를 표함으로써 자기편에 유리하게 선거판을 조작하는 것이다. 능력 있는 후보는 경선에서 탈락하게 된다. 유권자들은 시고 맛있는 레몬 같은 후보를 본선에서 선택하도록 강요받게 된다.

국민의힘에서 역선택 논란이 뜨거웠다. 당 선거관리위원회가 여권 지지자들이 경선 여론조사에 개입할 수 있는 만큼 이를 막을 방법을 찾겠다고 한 게 계기였다. 지지율이 높았던 윤석열 후보는 환영했지만 홍준표, 유승민 후보는 강력 반발했다. 선관위가 대선 본경선에 50%가 반영되는 여론조사 때 여권 지지층의 ‘역선택’을 최소화하기 위해 후보 본선 경쟁력을 조사하는 방안을 도입했다. 조사 대상에서 여권 지지층을 제외하는 설문을 포함하지는 않되, 민주당 후보와의 일대일 가상대결 결과를 점수로 환산해 반영하는

데스크칼럼

이재창

오프라인뉴스룸 에디터



절충형이다.

이로써 룰 갈등은 봉합됐지만 역선택 여진은 계속되고 있다. 홍 후보의 지지율이 급부상하면서 논란이 재현되고 있다. 홍 후보 지지율 급등이 역선택의 결과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일부는 사실이고, 일부는 사실이 아니다. 역선택 정황이 없는 건 아니다. 여야 후보 지지율에서 크게 밀린 홍 후보가 유독 범야권 후보 적합도에서 윤 후보에 앞서는 것은 역선택 말고는 명쾌하게 설명이 안 된다. 13일 리얼미터 조사서 홍 후보는 여야 후보 지지율에선 윤 후보에 10% 밀렸지만 범야권 후보 적합도에선 오히려 0.6% 앞섰다. 정권 안정을 바라는 응답자에서 홍 후보의 지지율이 윤 후보를 압도했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거꾸로 정권 교체를 바라는 응답자에선 윤 후보의 지지율이 홍 후보에 비해 두 배 이상 높았다. 정권 안정을 바라는 응답자는 여권 지지자, 정권 교체를 바라는 응답자는 야권 지지자다. 범야권 지지자 중 일부가 홍 후보를 밀고 있다는 추론이 가능한 대목이다.

그렇다고 역선택의 결과가 결정적이라고 단정짓는 것은 무리다. 맞지도 않다. 홍 후보의 부상은 젊은층 지지와 직결돼 있다. 20대 남성 유권자 사이에서 ‘무야홍’(무조건 야당은 홍준표) 바람이 불고 있다. 거리낌 없는 직설화법의 사이다 발언에 젊은이들이 호감을 갖고 있다. 민주당 텃밭인 호남에서도 20대 지지율은 국

민의힘이 더 높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홍 후보의 호남 지지율이 유독 높은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역선택은 새로운 화두는 아니다. 여야 경선 때마다 불거졌다. 그만큼 역선택 가능성이 상존한다는 의미다.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상대 당의 경쟁력 있는 후보를 떨어뜨리고 싶은 건 인지상정일 수 있다. 이게 현실화한다면 심각한 문제다. 역선택으로 유력한 후보를 잃은 정당은 정권을 놓칠 수 있다. 유권자는 허접한 후보를 선택하도록 강요받는다. 심각한 기본권 침해다. 대선은 최선 또는 차선이 아닌 최악을 피하는 차악의 게임이 될 게 뻔하다. 다행히 우리 정치사에서 역선택이 제대로 작동한 전례는 없다. 국민은 늘 현명했다. 그런 상식밖의 왜곡을 허용치 않는다. 역선택은 이론상으로 가능하지만 현실화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국민이 고민하는 것은 역선택이 아니다. 도덕적 흠결이 없고 능력 있는 후보가 없다는 점이다. 현재 국민 눈에는 최선은 고사하고 차선의 후보를 찾기도 쉽지 않다. 여야의 유력 후보는 도덕성 시비와 여러 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한국갤럽이 3일 발표한 조사서 차기 지도자 선호도 질문에 답하지 않은 응답자가 32%나 됐다. 여야의 콘크리트 지지층 30%씩 60%를 뺀 중도층 대부분이 마음 줄 곳이 없다는 의미다. 대선을 6개월 앞두고 대선 성패의 키를 전 유권자의 마음을 살 후보가 없는 게 현실이다. 그런데도 여야 후보는 무책임한 퍼주기 경쟁과 네거티브 선거전에 올인하고 있다. 미래 비전은 찾아보기 어렵다. 정말 피하고 싶은 차악의 게임이 현실화할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든다.

leejc@

사설

자영업 최악 위기에 눈덩이 빚, 부실 뇌관 우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대면서비스를 중심으로 하는 자영업자의 위기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더 버티기 힘든 자영업자들의 극단적 선택도 잇따르는 등 심각한 상황이다. 자영업자들의 빚 또한 눈덩이처럼 불어나 금융부실의 뇌관이 될 것이란 우려도 커진다.

한국은행의 금융시장 동향 자료에 따르면 8월말 자영업자(개인사업자)들의 예금은행 대출잔액은 413조 1000억원이다. 작년말(386조원)보다 7%, 코로나 사태 이전인 2019년 말(338조5000억원)에 비해 22%나 늘어난 규모다. 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 개인사업자 대출만 292조 원이다.

타격이 큰 대면서비스 업종인 숙박·음식업 대출 증가세가 특히 가파른 것으로 파악된다. 영업환경이 계속 악화하면서 자영업자들이 임대료와 인건비뿐 아니라 생계자금까지 개인사업자대출에 기대는 경우가 많다. 이들의 저축은행 등 고금리 비은행권 대출 비중도 계속 높아져 이자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5대 시중은행의 상반기 말 숙박·음식업 대출연체 금액은 1070억 원으로 작년말보다 59%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자영업자의 개인사업자대출은 사실상 가계대출 성격이지만 기업대출로 분류된다.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코로나 피해로 그동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두 차례의 대출만기 연장과 이자

상황 유예 조치가 이뤄졌다. 차주(借主)들의 재무상태 파악도 어렵다. 다만 한은 분석에서 지난해 중소기업의 50.9%가 영업이익으로 대출이자도 감당하지 못한 채 빚으로 연명하는 ‘한계기업’으로 나타났고, 자영업자들의 상황은 더 심각하다는 점에서 부실 정도를 가늠해볼 수는 있다. 중소기업 대출의 절반 이상을 개인사업자가 차지한다.

코로나19는 계속번지고 고강도 거리두기 방역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당분간 자영업이 나아질 기미가 없다. 결국 이달말 종료 예정인 대출만기 연장과 이자상황 유예 조치의 연장이 불가피하다. 정부도 대출만기 연장을 더 지속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금명간 구체적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겨우 빚으로 버티는 중소기업·자영업자들이 한꺼번에 쓰러지는 사태를 막는 것은 물론 다급하다.

그러나 이들의 부실 위험에 대한 경고음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금융권은 이 같은 조치가 응급처방이기는 하지만, 갚기 어려운 채무자의 빚만 더 늘려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될 것을 우려한다. 막대한 부실채권이 위기의 뇌관이 될 소지가 크다.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과 가계대출 육격기로 향후 대출금리 상승이 이어질 것이라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자영업 부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재무건전성 모니터링과 함께 맞춤형 지원 방안, 이들의 부채로 인한 경제 충격을 막을 금융당국의 어느 때보다 정교한 대응책이 시급하다.

진료실 풍경

어느 나라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였다. 이를 알고 있던 전숙 이발사는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은 욕구를 참다가 그만 화병이 나 앓아눕게 되었다. 그가 어느 날 대나무 숲에 가서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다!”라고 속 시원하게 외치고 나자 병이 씻은 듯이 낫게 되었다고 한다. 이때, 대나무가 한 역할을 무엇이었을까? 바로 ‘공감(共感)’이라고 생각한다.

의대 정신과 수업 첫날, 노교수님께서 “공감은 면담의 알파요, 오메가다”라고 누누이 강조하셨다. ‘타인의 감정을 공유한다’라는 의미인 공감은 면담뿐만 아니라, 모든 대인관계에서 대화의 기본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아침’이나 ‘가식’과는 다르다. 상대방의 의견에 무조건 동의한다거나 찬성한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뜻이고 감정인지 깊이 이해한다’는 것이다.

남편과 이혼하고 혼자 초등생 딸을 키우는 환자와 ‘공감 훈련’을 하였다. 어느 날, “선생님, 어제 공감의 놀라운 힘을 경험했어요!”라며,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딸아이가 평소와 다르게 우울한 모습이어서 까닭을 물으니, “수업 중 짝이 말을 걸

공감의 힘

어서 대답했는데, 선생님이 나만 혼낸 거야, 너무 억울해!”라며, 울먹였다고 했다. 평소 같으면 “왜 수업시간에 떠들고 그래. 너, 엄마가 공부 열심히 하라고 그랬지?”라고 꾸중하거나, “어떤 선생님이 그렇게 편파적이야?”라고 편을 들었다고 한다. 즉, 감정보다는 사실 확인에 치중했었는데, 전날에는 “아… 그러니까 짝이 말을 걸어서 대답해 준 것뿐인데, 선생님이 나만 지적하니까 서운하고 억울한 생각이 들었겠구나!”라고 당시의 마음을 짚어주며 안아서 토닥토닥 등을 두드려 주었다고 한다.

“그런데요, 정말 놀라운 일은 그 후에 벌어졌지 뭐예요. 밤이 되어 자려고 누웠는데, 딸아이가 ‘그런데, 엄마. 생각해 보니 짝이 말을 걸긴 했지만, 내가 너무 큰 소리로 대답했었던 것 같아요’ 하고, 스스로 자신의 잘못을 발견한 거예요. 예전에는 항상 자기변명만 하던 아이가 말이에요! 정말 감정을 이해해 준다는 게 어떤 효과를 주는지 확실히 알았어요.”

‘이성은 감정의 노예이다.’ -데이비드 흄
최영훈 닥터최의연세마음상담의원 원장

모자라지 않기와 아껴 쓰기

대한민국은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이다. 1970년대 어느 날 포항 앞바다에서 석유가 나온다고 신문에 대서특필된 적이 있었다.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지만 잠깐이라도 온 국민이 흥분할 만큼 기대에 부풀었던 기억이 살아난다. 기록을 보면 해방 직후의 전기 사정은 우리보다 북한이 훨씬 좋았다고 한다. 일제강점기까지 우리나라의 주력 발전원은 수력 발전이었고 산세가 험한 북한이 그런 발전에 유리한 지형이다. 제국주의 일본의 대륙 진출에 유리한 점도 작용했을 것이다. 당시 한반도의 발전소 중 가장 큰 발전소인 수풍 발전소는 전체 전기 생산 능력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다. 1948년 북한이 남한으로의 송전을 중단했을 때 남한의 충격이 어느 정도였을지도 짐작이 가는 대목이다. 없으면 쓰지 못한다는 단순한 진리일 뿐이다.

전기뿐만 아니라 인류에게 편익을 제공하는 에너지에 관한 한, 우리는 항상 부족한 국가이다. 근대화 이전은 차치하고라도 1970년대 후반의 중동발 오일쇼크는 한국 경제를 크게 흔들어 놓았다. 생산 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모자라지 않기’이다. 쇠를 녹이는 용광로도, 자동차나 비행기 그리고 선박 등도 에너지 없이는 움직이지 못한다.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주택이나 건물에도 따뜻함과 시원함을 제공하는 에너지 시설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에 없는 석유나 천연가스는 산유

조석의

遠見明察

(원견명찰)



현대일렉트릭 사장

국으로부터 수입해야 하고, 전기를 만들기 위해서도 그 연료를 공급해야 한다. 우리는 오일쇼크를 극복하기 위해서 정부 내 전담부처를 만들어서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을 책임지게 했던 경험에 있다. ‘에너지 안보’는 국정의 최우선 과제이다.

그러나 무한대의 욕구를 충족시킬 만큼 에너지를 공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육구의 절제와 ‘아껴 쓰기’가 필요하다. 무엇이 우리의 욕구를 절제하게 하는가? 그 첫 번째는 가격이다. 싸고 유용한 물건을 ‘아껴 쓰기’는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반면에 가격이 비싸면 아무래도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다.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생수는 그렇지 못한 수도물보다 비싸야 한다. 원가를 고려해도 그렇고 ‘아껴 쓰기’ 위해서도 그렇다. 생수 가격이 수도물보다 싸다면 먹는 물로 빨래하는 이도 생길 것이다. 사람들은 전기요금을 통상 전기세라고 부른다. 효용 있는 재화를 사용한 대가인 가격이 아니라 국가에 의무적으로 내야 하는 세금의 일종으로 보는 것이다. 가격은 수요 공급 원칙에 따라 시장에서 결정되지만, 세금은 국가와 국민 간의 약

속으로 결정한다. 분명한 점은 전기요금은 세금이 아니라 가격이라는 것이다. 낮은 전기요금은 국민의 전기 사용을 쉽게 하여 보편적 편익을 제공하지만, 전기를 실제 필요보다 많이 사용하게 한다. ‘아껴 쓰기’가 어려워진다.

‘아껴 쓰기’의 또 다른 방법은 기술이다. 백열등보다는 형광등이, 형광등보다는 LED가 더 높은 효율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기기의 효율을 높이는 것이 기술이다. 기술은 기기의 소재를 무엇을 사용할 것인지, 기기를 어떤 설계로 만들 것인지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공학을 전공한 엔지니어들의 실력이 기술로 구현된다. 기술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과 투자가 필요한 이유이다.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일이 중요하다. 개발에 필요한 비용의 재정적 지원, 개발된 기술에 대한 지적 재산권 보호, 고효율 제품이 시장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의 정비 등이 조화롭게 갖추어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남은 것이 정부의 적절한 규제와 국민의 참여이다. 냉난방 온도를 규제하거나 스스로 ‘아껴 쓰기’를 하자는 에너지 절약 캠페인이 그것이다. 하지만 이것만을 강조해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합리적 가격 정책과 끊임없는 기술 개발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슈퍼히어로 서 ‘작은 것이 아름답다’에서 나오는 대로 적절한 수준의 중간 기술과 ‘아껴 쓰기’로 사는 삶이 행복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 본다.

이투데이



뉴스를 풀어줍니다,
경제가 쉬워집니다.

24시간 온라인 뉴스 서비스는 www.etoday.co.kr

SAMSUNG

펼쳐자. 색다르게.



워치 페이스와
맞춰 연출하는
커버 디스플레이
볼수를 빠져드는
4가지 투톤 컬러



* Galaxy Watch4, Galaxy Watch4 Classic 단말의 페이스 디스플레이 같은 데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Galaxy Z Flip3의 그레이, 화이트, 핑크 컬러는 삼성닷컴에서만 구매 가능합니다.

나를. 새로. 활짝.
Galaxy Z Flip3

